

예술인파견지원
예술로 사업 10주년 사례집

예술로 만나는 **터** 2014 — 2024

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 사업 10주년 사례집 <터> 2014 —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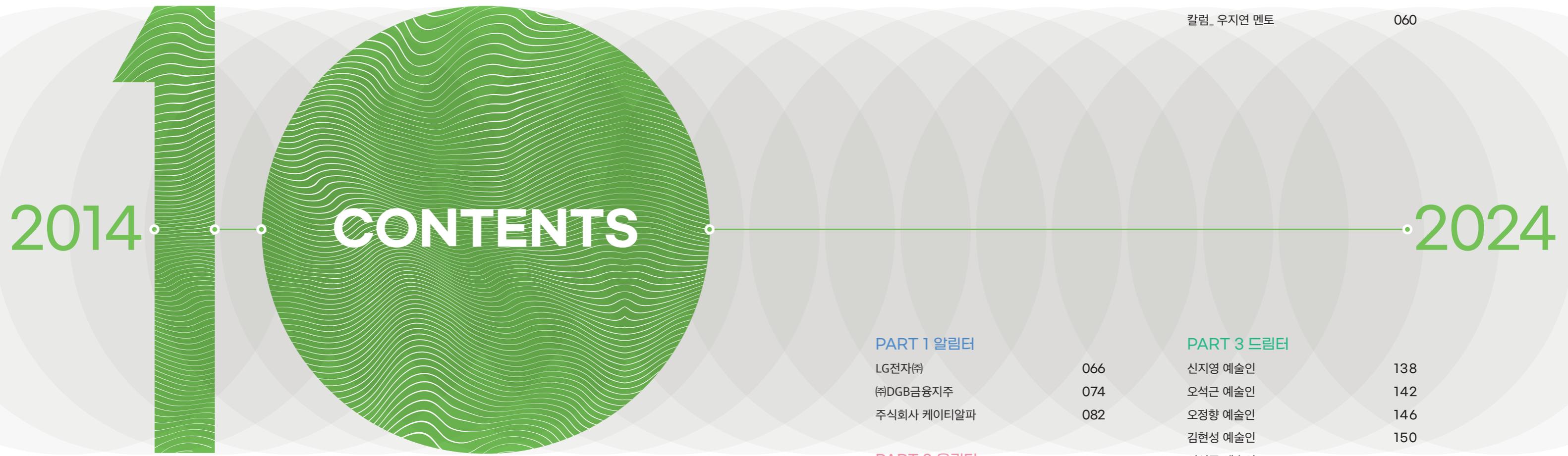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14
2024

예술로 사업 10주년 사례집

한국예술인복지재단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 416
서울스퀘어 3층 사업본부 예술가치확산팀
02-3668-0200 www.kawf.kr





발간사	006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소개	008
예술로 사업 소개	009
예술로 사업 연간 추진 일정	012

예술로 10년의 궤적	
예술로 10년 통계	014
10년 주요 특징	018
사업의 궤적	020
멘토 대담	048
칼럼_ 우지연 멘토	060

PART 1 알림터	
LG전자㈜	066
(주)DGB금융지주	074
주식회사 케이티알파	082

PART 2 올림터	
과천고등학교	092
마포푸르메직업재활센터	100
사단법인 여울돌	108
사단법인 푸른고래리커버리센터	116
키후위키 협동조합	124
칼럼_ 서민기 예술인	132

PART 3 드림터	
신지영 예술인	138
오석근 예술인	142
오정향 예술인	146
김현성 예술인	150
이성준 예술인	
정가윤 예술인	

PART 4 누림터	
국립생태원	156
복현1동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164
한국동서발전	172
광주극장	180
칼럼_ 류성호 멘토	188

예술로 연결된 10년,

함께 만들어갈 미래

예술은 사회와 소통하며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의 창작 환경을 지원하고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그중에서도 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 사업은 지난 10년간 예술과 사회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2014년 시작된 예술로 사업은 예술인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사회 각 분야에 접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오고 있습니다. 예술이 특정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산업, 복지, 교육, 지역 공동체 등 다양한 분야와 협력함으로써 우리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술인은 자신의 역량을 확장하며 지속 가능한 창작 기반을 다지고, 참여 기업·기관과 지역사회 또한 예술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24년, 10주년을 맞이한 예술로 사업은 그동안 9,744명의 예술인이 2,354개의 기업·기관과 협력하며 예술이 단순한 창작 활동을 넘어, 사회적 가치와 결합할 때 더욱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예술로 사업 10주년 기념 사례집은 지난 10년의 성과와 변화를 돌아보는 중요한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이제 예술로 사업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서 기술 융합, 지역 재생, 공공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예술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사업을 세분화하고 공공과 민간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예술이 사회 전반에 더욱 깊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참여하는 주체들 간의 파트너십을 보다 촘촘히 구축하여 더욱 깊이 있는 협력을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예술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사회를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지난 10년 동안 예술로 사업과 함께 해주신 모든 예술인과 기업·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10년의 노정이 깃든 사례집이 예술로 사업의 미래를 준비하는 의미 있는 기록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이사

정용욱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의 복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2012년도에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Artist + Welfare = AW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심벌마크는 행복한 예술인의 웃는 표정을 의미합니다. 예술인(Artist)과 복지(Welfare)의 머리글자 AW를 형상화했습니다.

미션/비전/슬로건

예술인의 권리 보호 및 복지 지원으로 예술 발전에 이바지



전략목표

- 1 예술활동 기반 예술인복지지원 강화
- 2 선제적 예술인 지위보장 체계 확립
- 3 함께하는 예술사회 조성
- 4 지속가능한 경영인프라 구축

예술로 사업 소개

사업 목적 및 방향

예술로 사업은 예술인과 기업·기관의 상호 협력의 기회를 제공하여 확장된 파트너십 기반의 협업을 통해 예술인 직업 안정화 및 예술적·사회적 가치를 확산하는 사업입니다.

상호 협력과 이익

참여주체 간 협력적 노력
파트너십 활동을 통한
상호 이익과 영역 확장

확장된 파트너십

기존활동/사업/영역을
넘어서는 파트너십 구축

예술적·사회적 가치

문화예술과
조직활동의 결합으로
예술적 재인식 경험,
사회 지속가능성 기여



예술로 사업 비는 공간을 상징하는 아치형태 내부에 타이포그래피로 예술인과 기업·기관이 조화롭게 협업하는 예술로 사업의 아이덴티티를 표현했습니다.

사업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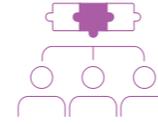
예술로 사업은 총 3가지(협업사업, 기획사업, 지역사업) 세부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합니다. 예술로 협업사업, 지역사업은 예술인과 기업·기관 선정 후 매칭을 통해, 예술로 기획사업은 예술인과 기업·기관을 함께 팀 단위로 선정하여 협업활동을 진행합니다.

구분	내용	운영 주체
다년 트랙	사전 기획된 협업주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팀(기업·기관 및 예술인) 단위 협업활동 추진(2년) ① 다년형 1기(2024~2025년), ② 다년형 2기(2025~2026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기업·기관 및 예술인 선정 후 매칭 진행. 상호 협의된 협업주체에 기반한 협업활동 추진	광역문화재단

사업 내용

예술로 사업은 각각의 이슈(고민)와 혁신의 욕구가 있는 기업·기관과 예술인이 결합하여 예술인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예술적 개입을 통해 기업·기관의 이슈와 욕구에 대한 해결방안을 함께 찾아볼 수 있습니다. 활동기간 동안 예술인은 기업·기관의 조직문화를 경험하고 다양한 예술인들과 함께 새로운 방식의 협업활동을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기업·기관은 창의적 예술방식을 통해 조직의 이슈를 해결하거나 이전과는 다른 형식의 행사, 공연, 전시, 워크숍 등을 기획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술인의 활동비는 전액 국고에서 지원되며,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공간, 회의비 및 재료비 등은 가용범위 내에서 협의를 통해 기업·기관에서 제공합니다.

예술로 협업사업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예술인 및 기업·기관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기업·기관-리더예술인-참여예술인을 매칭합니다. 이후 예술협업활동의 주제, 방향, 기획 및 실행의 단계를 자율적으로 협의하며 추진합니다.

예술로 기획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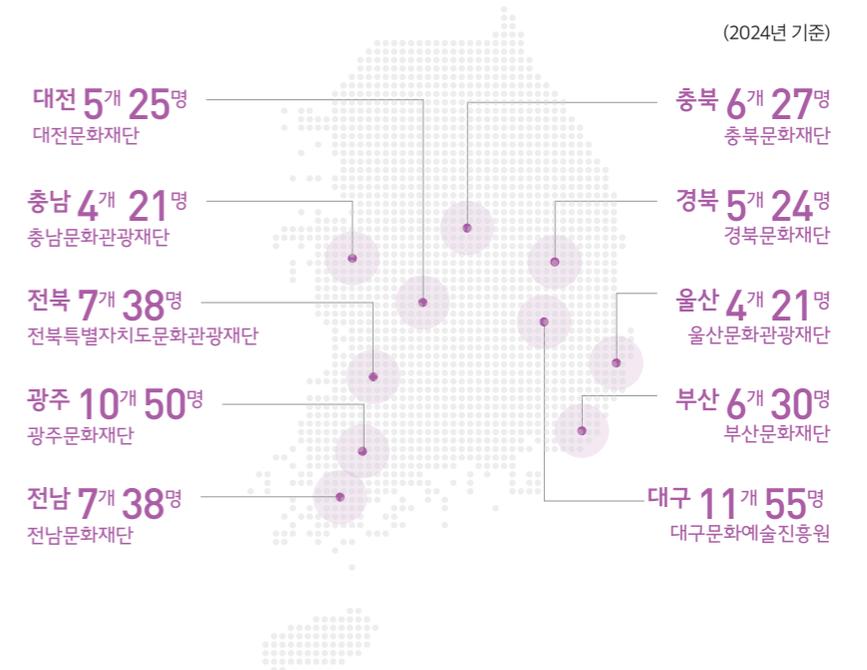
사전기획을 통해 구성된 예술인 및 기업·기관을 팀 단위로 선정하여 예술협업 활동을 지원합니다. 기획사업은 협업사업의 '매칭' 및 '만남과 탐색' 단계를 생략함으로써 기간 내 집중적으로 예술협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술로 지역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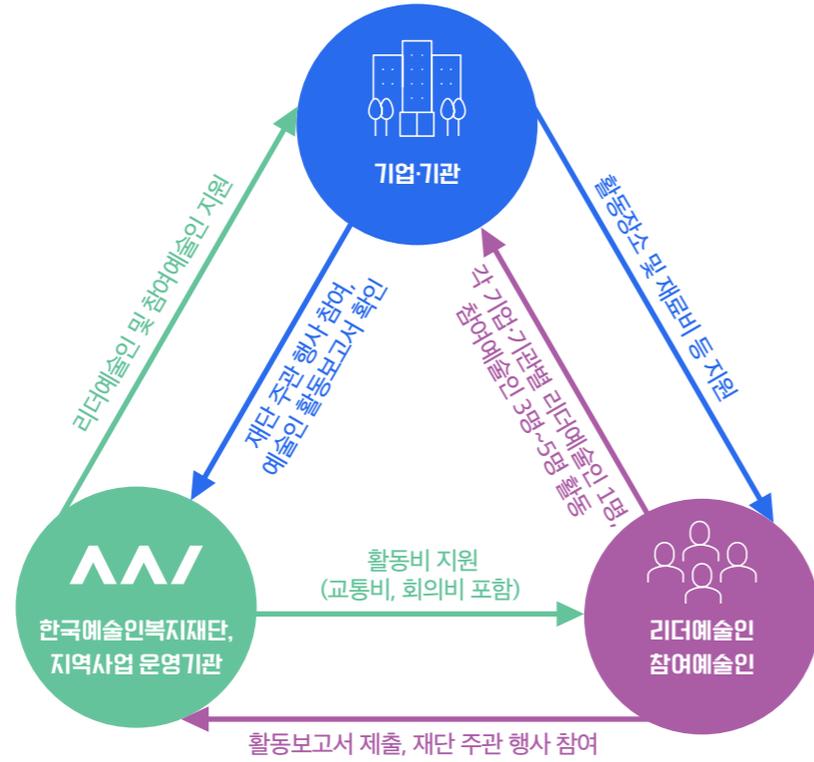


광역문화재단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별 예술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2024년에는 10개 광역문화재단이 참여하였으며, 예술협업활동의 구조는 '예술로 협업사업'과 동일합니다.

예술로 지역사업은 지역 예술인의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예술인 복지사업에 대한 인지도를 확장하고자 2020년 신설된 사업입니다. 2024년에는 총 10개의 광역문화재단이 운영기관으로 참여하였고, 65개 기업·기관과 329명의 예술인이 함께하였습니다.



사업 주체



사업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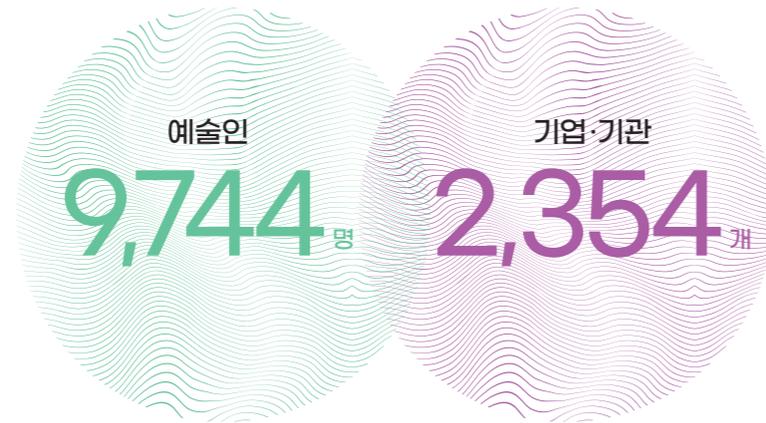
2014

예술로 10년의 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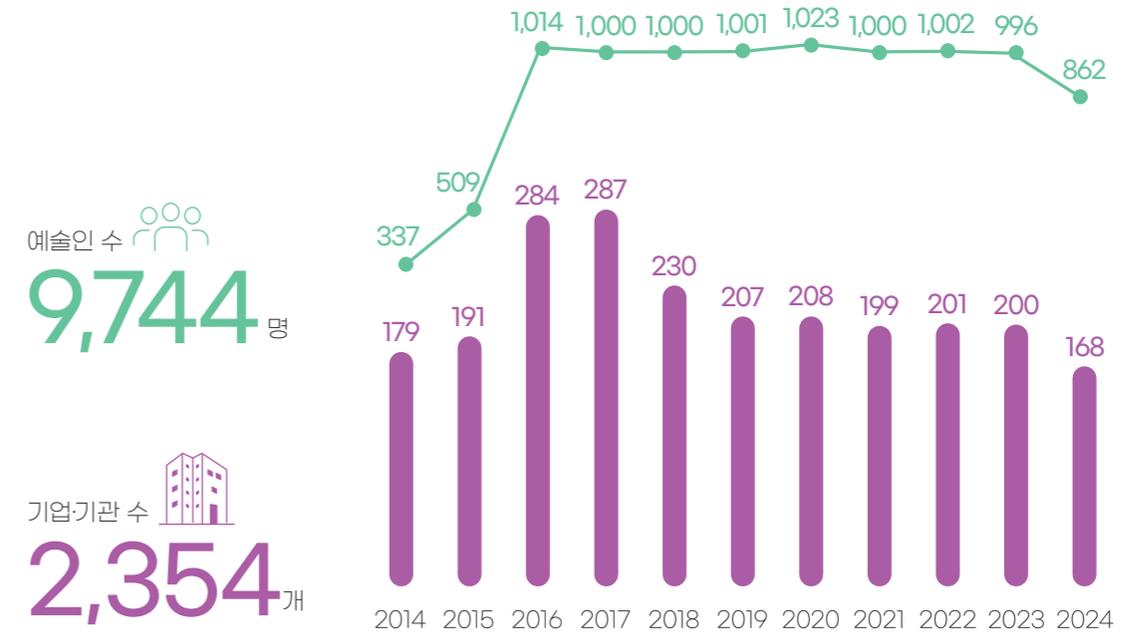
2024

예술로 10년 통계

예술로 사업 10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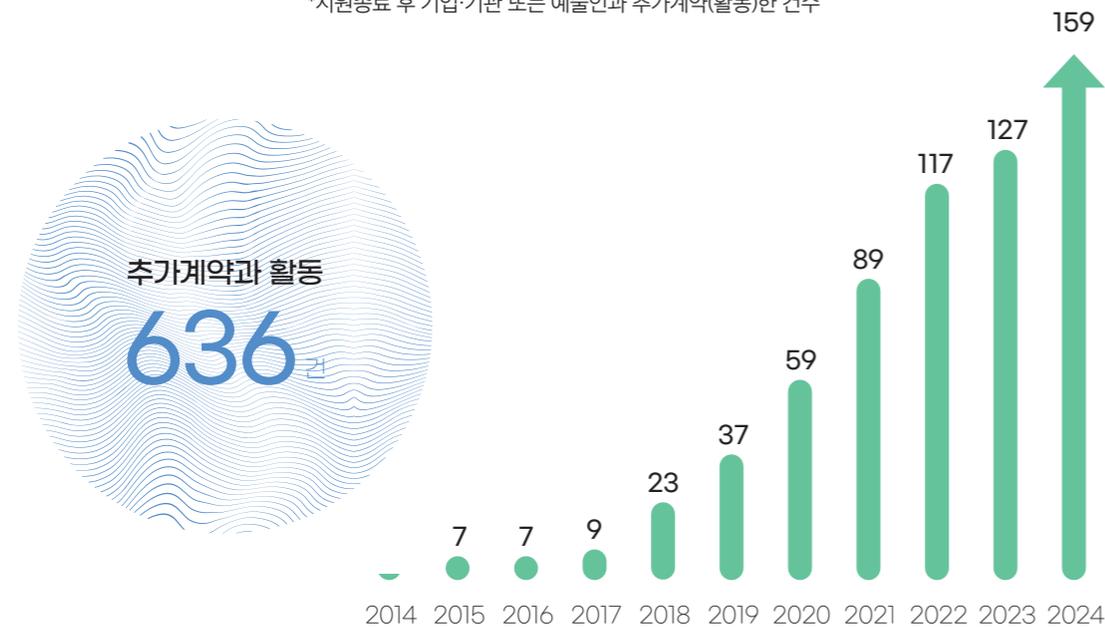


연도별 기업·기관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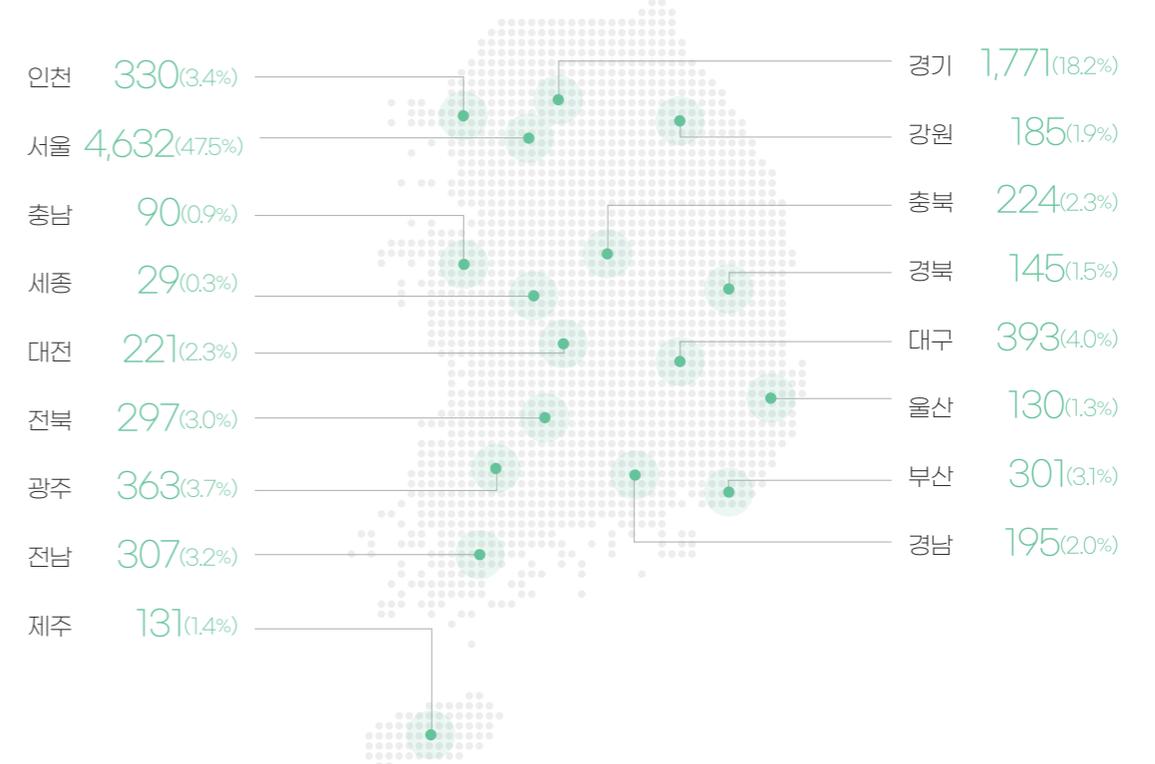


10년의 추가계약과 활동! 예술로가 만든 장기적 파트너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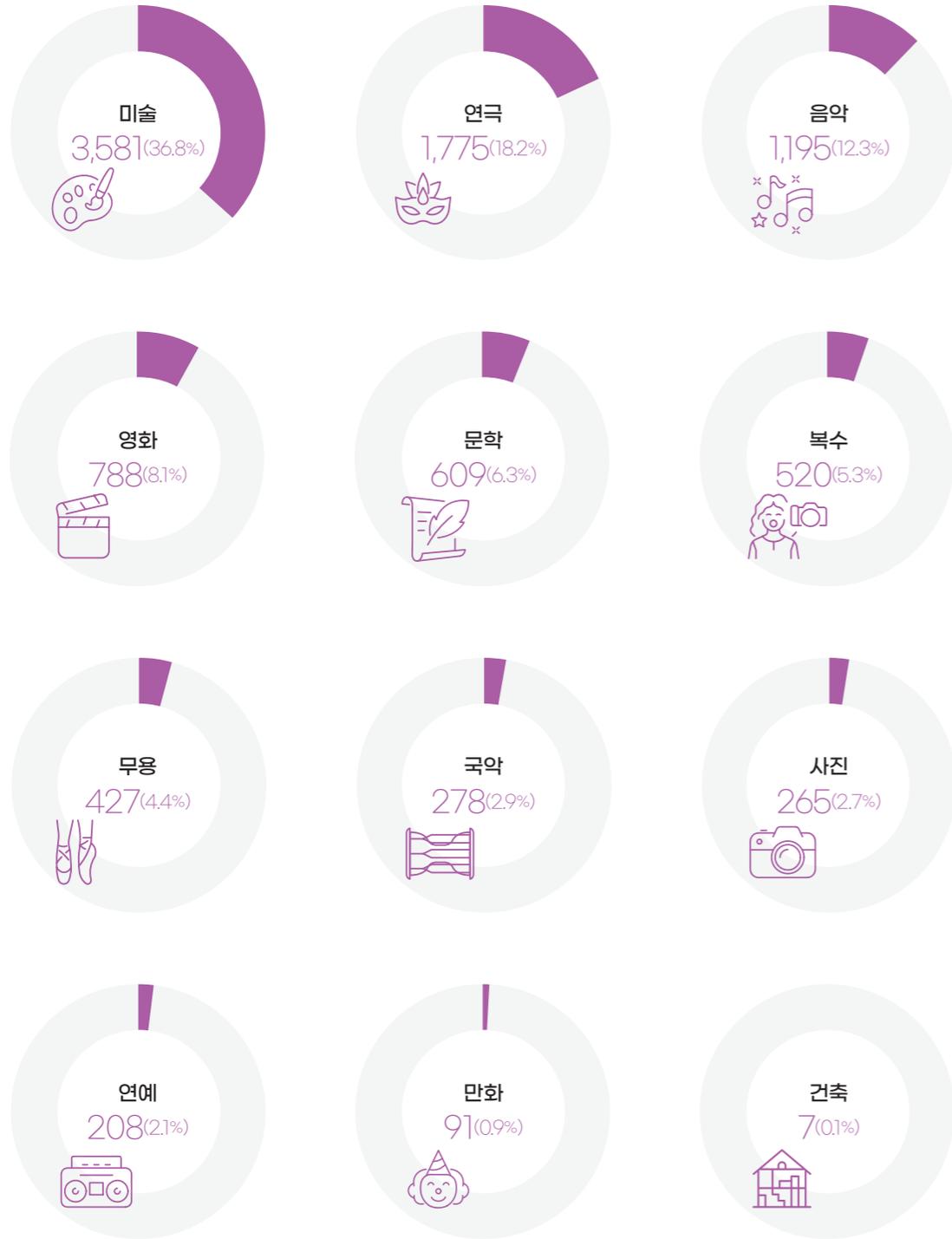
*지원종료 후 기업·기관 또는 예술인과 추가계약(활동)한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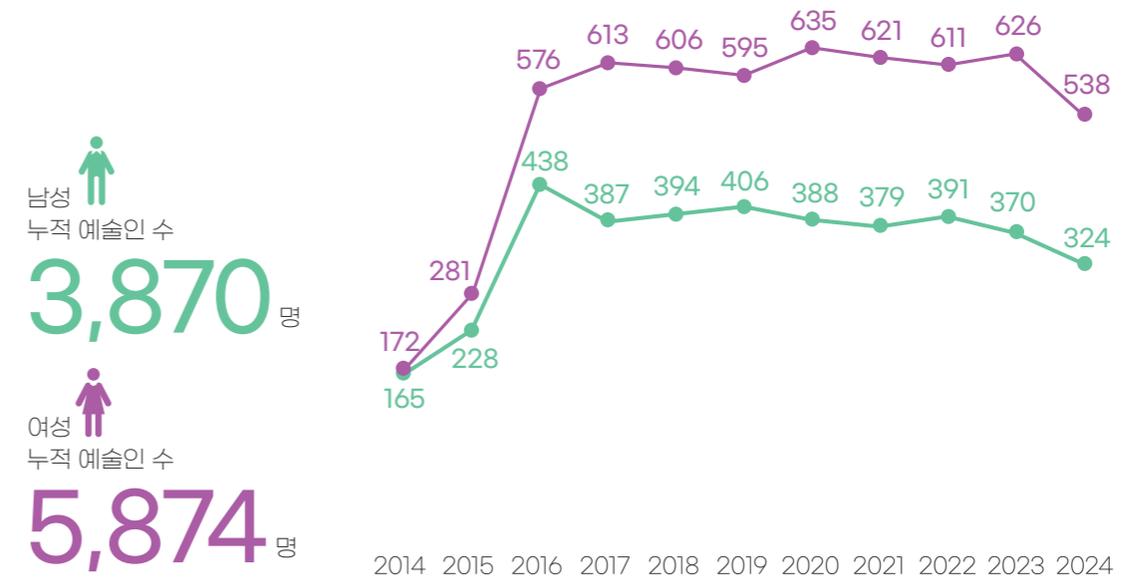
예술인 누적 지역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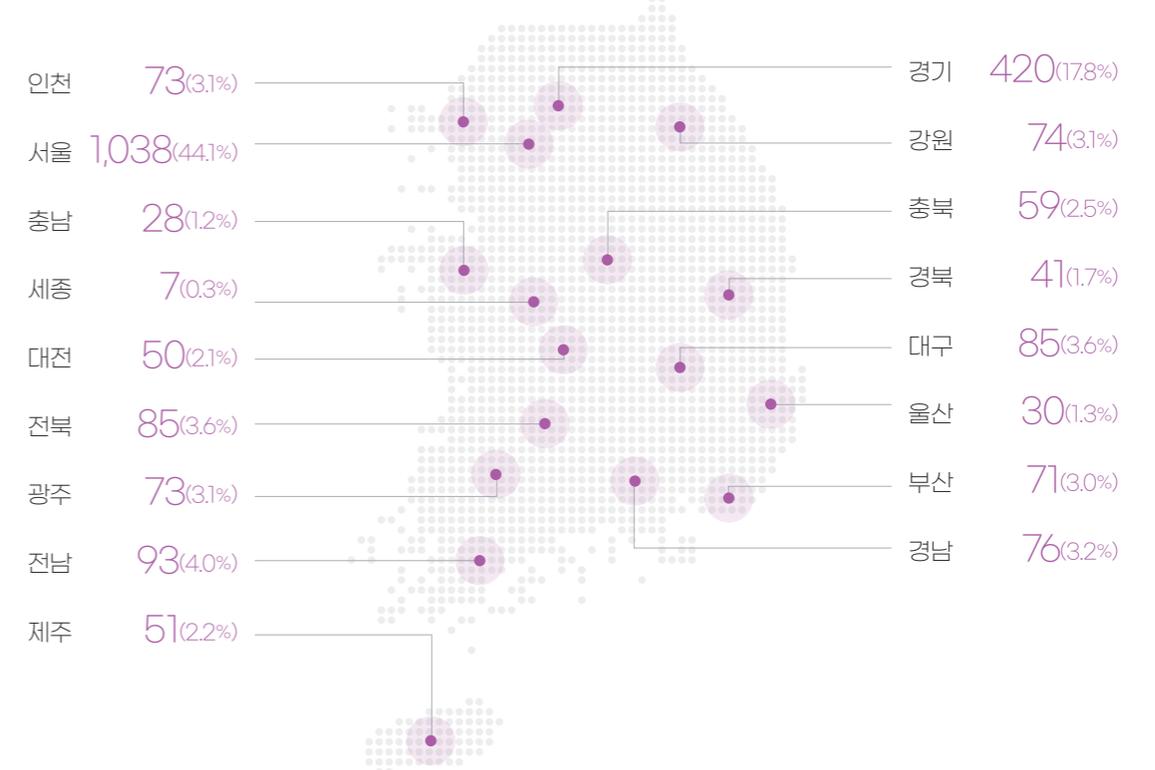
예술인 누적 장르 분포



연도별 예술인 성별 분포



기업·기관 누적 지역 분포



지난 10년간 지속적 확대 및 사업 다각화 방향으로 전개



문화융성 산업의 문화화, 문화의 산업화

새 예술정책 발표 : 예술의 가치, 사회적 역할

예술로 10년, 어떻게 발전해 왔을까요?



2014 사업 사례집
「본업 예술가의 부업 가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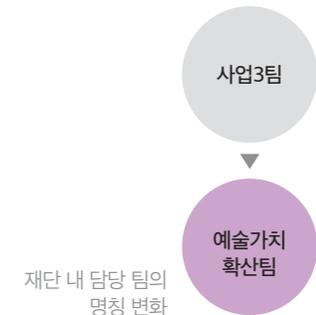
퍼실리테이터
(現 리더예술인) 도입



2016~2019
연계기관 협업사업



2017 사업 사례집
「예술, 변화의 물방울」



2011

2014

2015

2016

2017

2018

「예술인 복지법」 제정

2012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설립



예술인 파견 지원사업 시범 시행

- 예술인의 '부업(Sub-job)' 개념으로 출발
(예술활동기반 직업 진출 경로 확보와 경력개발 지원을 통한 소득보장 목표)
- 새로운 혁신 창출의 방법론으로써 '예술적 관찰과 개입' 제시
- 331명 예술인, 179개 기업·기관, 멘토 14명으로 시범사업 시작

재단 정규사업으로 안착

- 문화예술 '신규 직무영역' 개념을 사업에 도입
- 퍼실리테이터(現 리더예술인) 공모 도입(60명)
- 퍼실리테이터(1명): 기업 3~6개, 참여예술인 1~6명 담당
- 퍼실리테이터가 매칭 기업·기관 발굴 및 매개

사업 규모의 비약적 확대

- 예술인 1,014명, 기업·기관 281개로 전년 대비 약 1.5~2배 증가
- 사업 목적에 '일자리 창출(창직 job-creation)을 통한 '적극적 예술인 복지 실현' 등장
- 예술적 기획·협업 구조 목표 제시
- 기업·기관의 공모제도 도입
- 연계기관 3개 협업사업 도입
(농협중앙회(농촌마을), 한국메세나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기관 공모와 연계사업 도입, 퍼실리테이터의 기업·기관 발굴 역할 소멸

예술인의 가치 확대 강조

- 사업에서 예술인의 사회적 가치 개념 전면화
- 예술인의 가치 확대를 위한 기반으로 사회(기업·기관)의 협업 개념 제시
- 사업 참여 구성원(퍼실리테이터, 참여예술인, 참여기업) 용어 명확히 정의
- 연계기관 5개 협업사업 진행
(농협중앙회, 한국메세나협회, 한국산업단지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재단 내 사업담당팀의 안정화

- 재단 내 사업 담당 팀의 명칭 '예술가치확산팀'으로 변경
- 사업 참여 구성원의 용어 정의에 '연계기관' 추가
- 연계기관 3개 협업사업 진행
(농협중앙회,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9년 도입된 기획사업



2019

<예술로> 명칭과 '기획사업' 도입

- 국민공모를 통해 예술인파견 지원사업의 '예술로(로)' 명칭 선정
예술로(로)는 예술의 영역이 찾아오는 영역에 멈추지 않고 직접 찾아가 새로운 길을 개척한다는 의미
- 사업 목표에 '적극적 예술인 복지'의 방법론으로 '예술적 개입' 명시화
- 기획사업 도입: 협업활동을 사전 기획한 예술인과 기업기관의 팀 공모
- 연계사업과 기획사업 일부에 '퍼실리테이터' 대신 '리더예술인' 용어 사용
- 연계기관 3개 협업사업 진행 (농협중앙회, 지역문화진흥원, 워터웨이 플러스)

2020년 도입된 지역사업



2020

'지역사업' 도입

- 추진체계를 (1)협업사업, (2)기획사업, (3)지역사업으로 재구조화
- 지역사업 도입으로 8개 광역문화재단에 지역사업 위임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충북, 전북, 전남, 경남)
- 퍼실리테이터 용어 삭제, '리더예술인' 사용 전면화
- 기존 연계기관 협업사업 종료 및 가점 대상 등의 역할 변화
- 코로나19로 인해 예술활동 과정 비대면화

예술인 고용보험



2021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 「고용보험법」의 개정(2020.12.12)으로 예술인의 고용보험 당연가입
- 사업 참여 시, 예술인 고용보험 기준인 24개월 중 9개월 고용 조건 일부 충족
- 리더예술인 간담회에 컨설턴트 참여 시작

예술인파견지원 성과분석



2022

사업 평가지표 개발 시작

- 기획사업의 7개 주제 유형 실험 (일상 회복·치유, 좋은 일터 만들기, 기술과 예술의 융합, 지역·공동체 활성화, 환경, 인권, 자율주제)
- 예술로 사업 평가지표 개발 시작(선택적 시범 적용)

책임멘토제



2023

책임멘토제 도입

- 컨설팅·전문가 모니터링 기능을 제도화하기 위해 책임멘토제 도입 (책임멘토는 심의부터 평가까지 컨설팅에 대한 책임 부여)
- 우수사례 시상제도 도입

사업 10주년 기념 BI 개발



2024

다년제 신설 및 기업·기관 지원 강화

- 예술현장의 요구로 기획사업에 다년지원 트랙 신설
- 10주년 기념 포럼: 우리가 나눈 말, 우리가 나눌 말 추진
- 직업역량강화사업 중장기 사업방향 모색 연구 추진
- 예술로 사업 효과성 분석 연구 추진
- 예술로 사업 통합 홍보 전략 수립 및 실행



예술로 사업 10주년 기념 포럼 전체 영상

지나온 10년,

함께 나눈 말

“이 사업 덕분에 예술가로서 자존감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회사에서 예술인과 대화하다 보니 서로 이해의 폭이 넓어졌죠.”
“각자의 이야기가 모여 하나의 작품이 되어가고 있어요.”
“예술과 일상이 만나는 순간을 경험했어요.”
“처음엔 서먹했지만, 결국 마음을 열게 되더군요.”
“기업의 문화를 예술로 표현하다니, 신선했어요.”
“우리 이야기, 우리 목소리를 담아내는 작업이었죠.”
“예술적 감성을 불어넣어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비폭력 대화를 통해 서로를 존중하게 됐어요.”
“창의적인 시선으로 우리 조직을 다시 보게 됐죠.”
“아무리 피곤해도 이 시간이 기다려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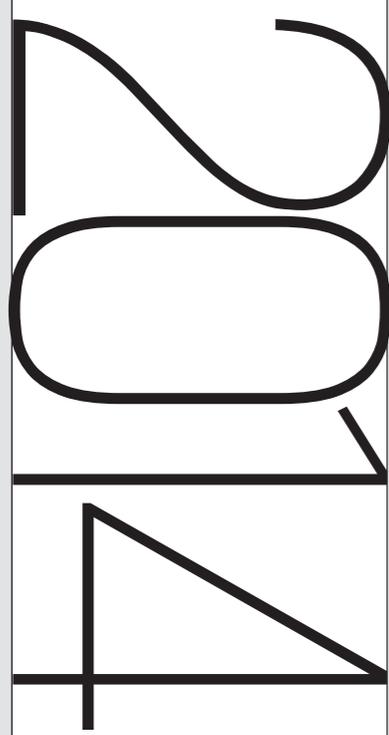
“문화예술이 사람을 연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예술이 주는 치유의 힘을 느꼈습니다.”
“직장에서도 예술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게 됐어요.”
“직장 내 벽이 허물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 사이에 다리가 생긴 느낌이에요.”
“일상 속에 예술이 스며들어 오는 기분이에요.”
“같은 공간에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긍정적 변화를 만들었어요.”
“제 목소리를 내는 법을 배웠어요.”
“말 한마디로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바뀔 줄 몰랐어요.”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함께 만든 작품이 이렇게 의미 있을 줄은 몰랐어요.”
“생각보다 서로에게 많은 걸 배운 것 같아요.”
“예술이 기업 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실감했어요.”
“우리의 이야기가 가치 있게 다뤄져서 감동이었어요.”
“내 일상이 예술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회사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표현해본 적이 없었어요.”
“작품을 함께 만들며 동료애가 생겼습니다.”
“예술을 통해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게 됐어요.”
“서로의 마음을 여는 좋은 시간이었어요.”
“예술로 이렇게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다니 놀라워요.”

“각자의 개성이 살아 있는 작품이 탄생했어요.”
“단순한 대화에서 시작된 큰 변화였습니다.”
“함께 작업하는 즐거움을 알게 되었어요.”
“예술가들과 협업하며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겼어요.”
“예술을 통해 일상에서 힐링을 경험했습니다.”
“작은 이야기도 큰 울림을 줄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다양한 시각이 모여 새롭게 조명된 우리 이야기입니다.”
“예술을 통해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법을 배웠어요.”
“이 공간이 더 이상 단순한 회사가 아닌 느낌이었어요.”

“동료들과 예술로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귀한 시간이었어요.”
“예술이 주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존중이 깊어졌어요.”
“예술이란 공통분모로 많은 이들이 모였어요.”
“예술가와 함께한 시간,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어요.”
“각자의 이야기가 담긴 작품이 마치 나를 보는 것 같았어요.”
“우리 삶 속에서 예술이 가진 힘을 발견했어요.”
“서로 다른 사람들과의 예술적 경험은 신선했어요.”
“조직 안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 프로젝트였습니다.”
“내 작업이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게 기뻐요.”

- 예술로 사례집 2014~2023에서 발췌



약정체결식 및 오리엔테이션

4월



예술인 워크숍

5월



5월 예술인 워크숍

기업·기관

구분	공모사업	합계
기업·기관	179	179

예술인

구분	공모사업	합계
참여예술인	337	337

예술인 지역

구분	명	%	구분	명	%
서울	180	53.4	강원	1	0.3
부산	6	1.8	충북	9	2.7
대구	8	2.4	충남	2	0.6
인천	19	5.6	전북	5	1.5
광주	7	2.1	전남	6	1.8
대전	1	0.3	경북	0	0.0
울산	0	0.0	경남	0	0.0
세종	0	0.0	제주	6	1.8
경기	87	25.8	합계	337	100



성과보고회

12월



예술인 워크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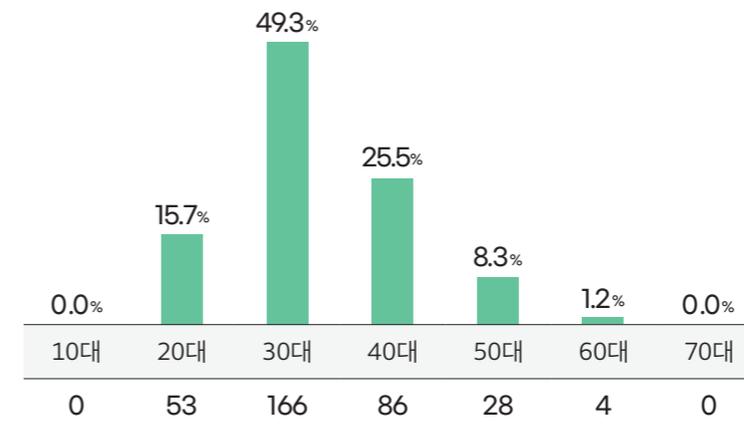
5월

기업·기관
1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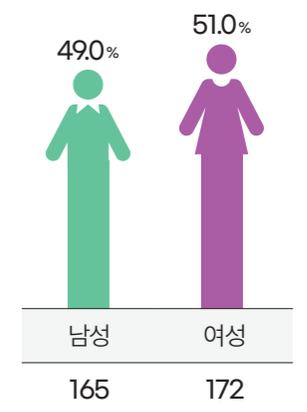
예술인
3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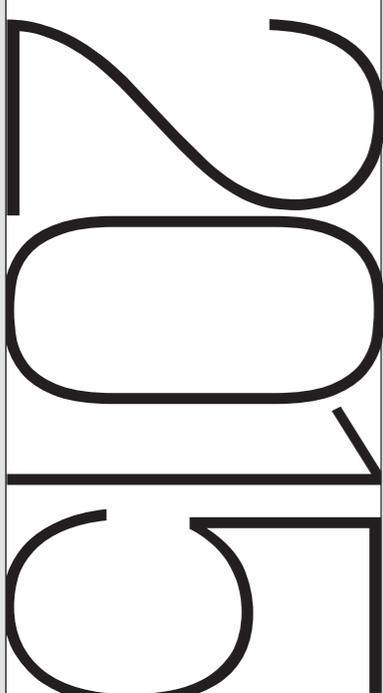
● 공모사업

예술인 연령



예술인 성별





기업·기관
191

예술인
509

● 공모사업



퍼실리테이터 오리엔테이션



퍼실리테이터 모임



모니터링

기업·기관

구분	공모사업	합계
기업·기관	191	191

예술인

구분	공모사업	합계
퍼실리테이터	58	58
참여예술인	451	451
합계	509	509

예술인 지역

구분	명	%	구분	명	%
서울	290	57.0	강원	10	2.0
부산	9	1.8	충북	3	0.6
대구	8	1.6	충남	1	0.2
인천	20	3.9	전북	13	2.6
광주	6	1.2	전남	3	0.6
대전	6	1.2	경북	2	0.4
울산	1	0.2	경남	4	0.8
세종	0	0.0	제주	5	1.0
경기	128	25.1	합계	509	100



성과보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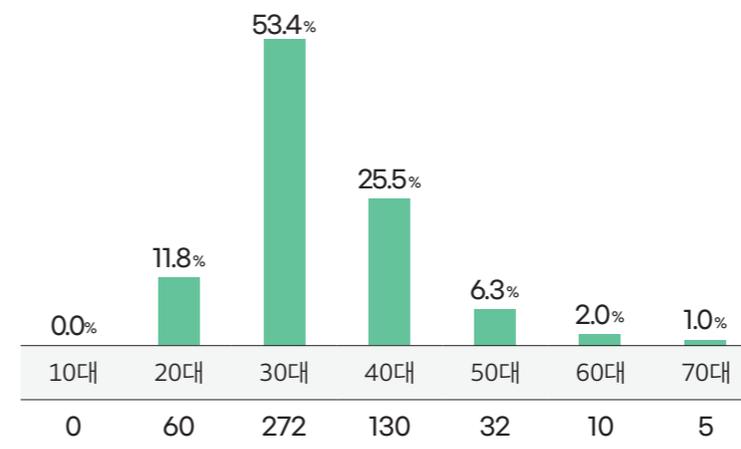


성과보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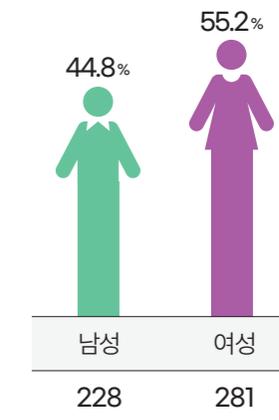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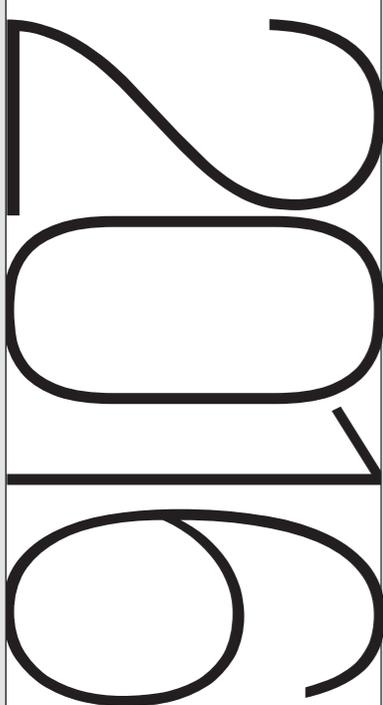
예술인 간담회

예술인 연령



예술인 성별





사업설명회(예술인)



사업설명회(기업·기관)



4월 만남의 광장



발대식



7월 퍼실리테이터 워크숍 및 직무교육



성과보고회 12월



퍼실리테이터 간담회

기업·기관

구분	협업사업	공모사업	합계
기업·기관	103	181	2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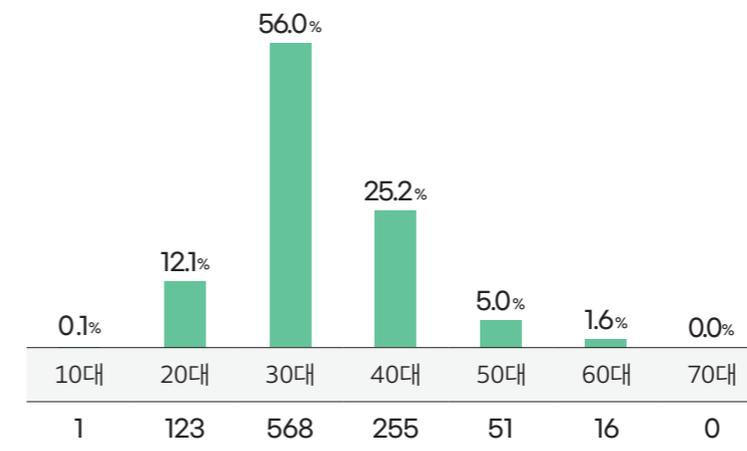
예술인

구분	협업사업	공모사업	합계
퍼실리테이터	-	200	200
참여예술인	166	648	814
합계	166	848	1,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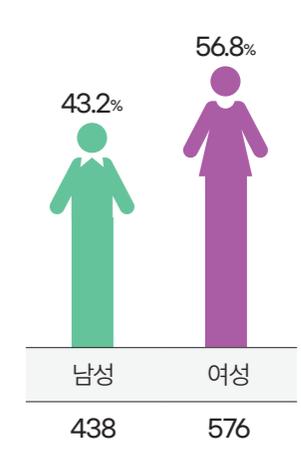
예술인 지역

구분	명	%	구분	명	%
서울	607	59.9	강원	18	1.8
부산	21	2.1	충북	6	0.6
대구	20	2.0	충남	3	0.3
인천	31	3.1	전북	14	1.4
광주	10	1.0	전남	8	0.8
대전	13	1.3	경북	3	0.3
울산	2	0.2	경남	13	1.3
세종	2	0.2	제주	13	1.3
경기	230	22.7	합계	1,014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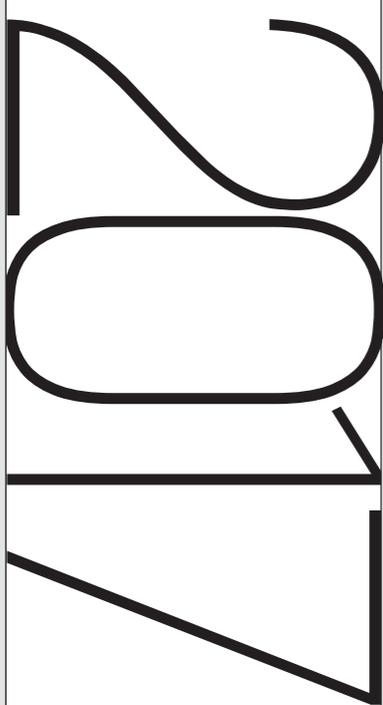
예술인 연령



예술인 성별



● 협업사업
● 공모사업



예술인 간담회



참여예술인 오리엔테이션



참여예술인 오리엔테이션(산업단지)



국제 세미나
(지오바니 쉬우마)



성과보고회



예술인 간담회

기업·기관

구분	협업사업	공모사업	합계
기업·기관	107	180	2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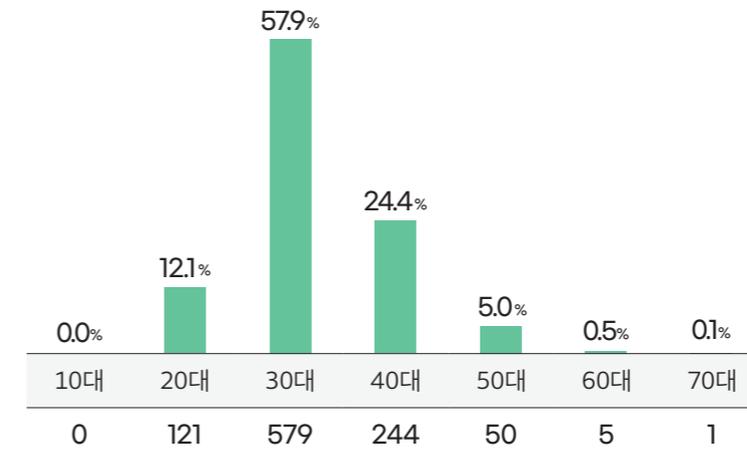
예술인

구분	협업사업	공모사업	합계
퍼실리테이터	-	180	180
참여예술인	175	645	820
합계	175	82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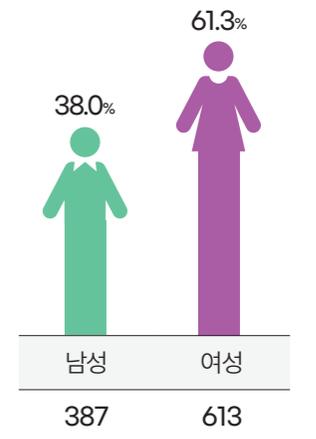
예술인 지역

구분	명	%	구분	명	%
서울	579	57.9	강원	21	2.1
부산	17	1.7	충북	14	1.4
대구	21	2.1	충남	1	0.1
인천	31	3.1	전북	21	2.1
광주	16	1.6	전남	2	0.2
대전	13	1.3	경북	6	0.6
울산	10	1.0	경남	9	0.9
세종	2	0.2	제주	12	1.2
경기	225	22.5	합계	1,00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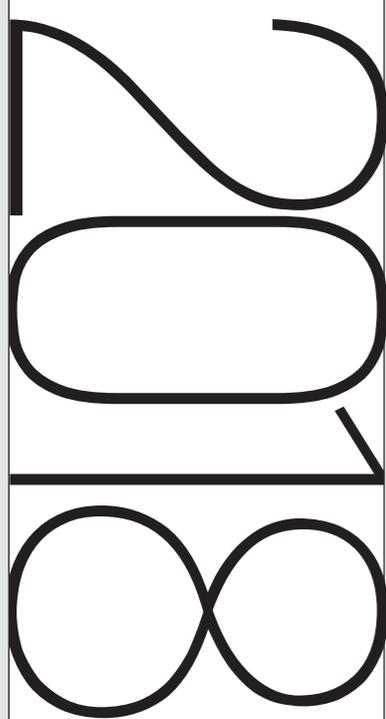
예술인 연령



예술인 성별



● 협업사업
● 공모사업



● 협업사업
● 공모사업

3월



퍼실리테이터 워크숍 및 직무교육



4월 만남의 광장

기업·기관

구분	협업사업	공모사업	합계
기업·기관	48	182	230

예술인

구분	협업사업	공모사업	합계
퍼실리테이터	8	184	192
참여예술인	151	657	808
합계	159	841	1,000



성과전시회 및 사업개선을 위한 토론회

12월

5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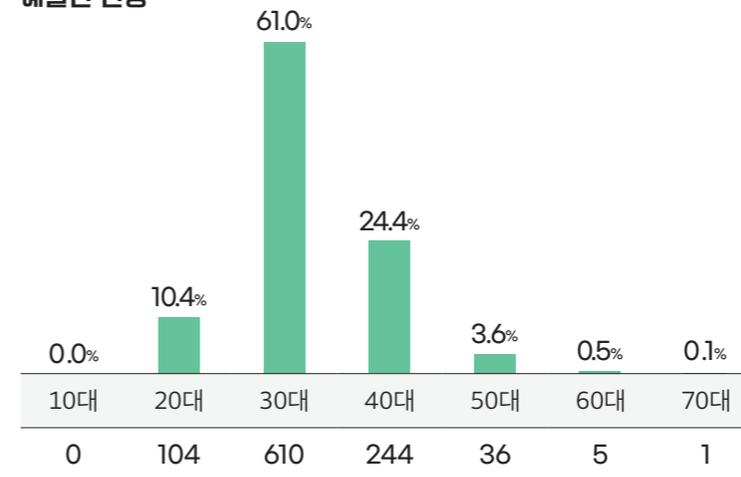


참여예술인 오리엔테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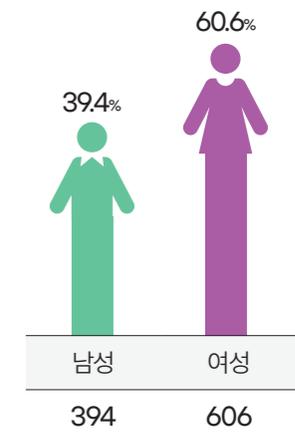
예술인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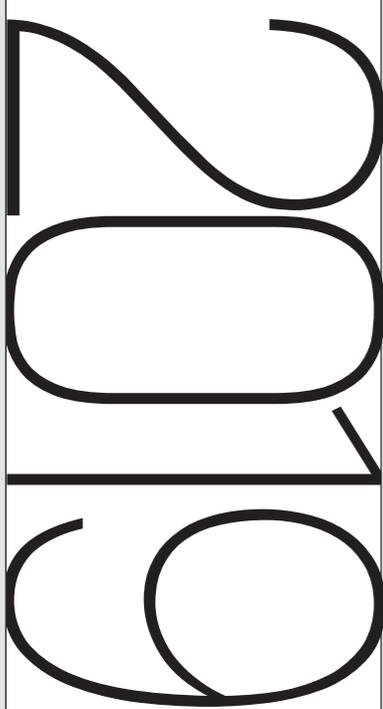
구분	명	%	구분	명	%
서울	615	61.5	강원	16	1.6
부산	11	1.1	충북	13	1.3
대구	18	1.8	충남	1	0.1
인천	44	4.4	전북	16	1.6
광주	8	0.8	전남	2	0.2
대전	13	1.3	경북	3	0.3
울산	13	1.3	경남	7	0.7
세종	1	0.1	제주	10	1.0
경기	209	20.9	합계	1,000	100.0

예술인 연령



예술인 성별





4월

퍼실리테이터 워크숍



5월

기획사업 오리엔테이션



5월 기업·기관 오리엔테이션

기업·기관

구분	협업사업	기획사업	공모사업	합계
기업·기관	47	36	124	207

예술인

구분	협업사업	기획사업	공모사업	합계
퍼실리테이터 (리더예술인*)	48	36	124	208
참여예술인	118	139	536	793
합계	166	175	660	1,001

*2019년부터 연계사업과 기획사업 일부에 '리더예술인' 용어 사용

예술인 지역

구분	명	%	구분	명	%
서울	591	59.0	강원	23	2.3
부산	16	1.6	충북	19	1.9
대구	15	1.5	충남	6	0.6
인천	37	3.7	전북	12	1.2
광주	12	1.2	전남	0	0.0
대전	9	0.9	경북	6	0.6
울산	10	1.0	경남	9	0.9
세종	3	0.3	제주	13	1.3
경기	220	22.0	합계	1,001	100



12월

사업개선을 위한 집담회



5월

만남의 광장

6월

참여예술인 오리엔테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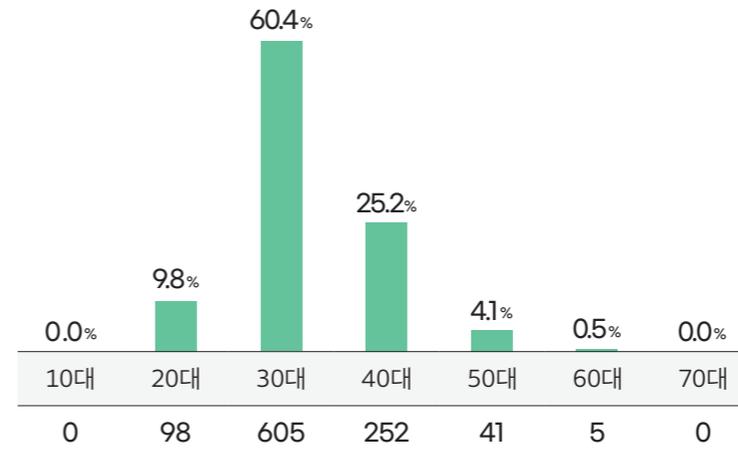
5월

만남의 광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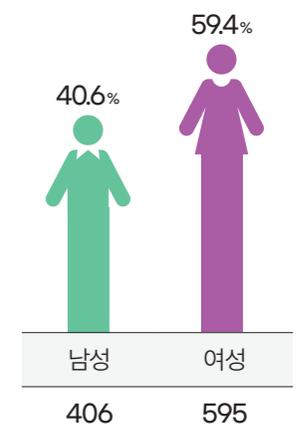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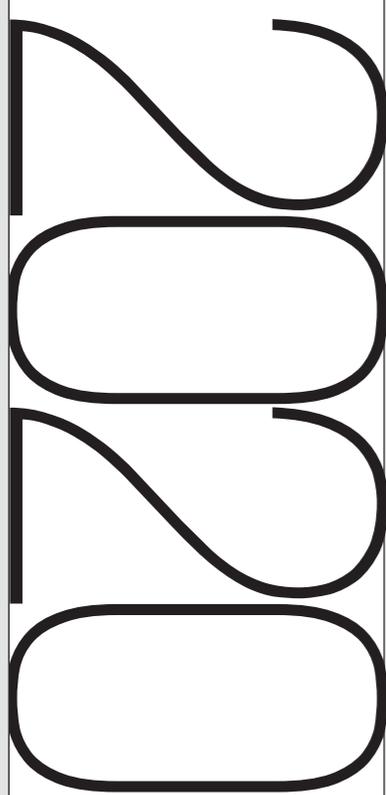
- 협업사업
- 기획사업
- 공모사업

예술인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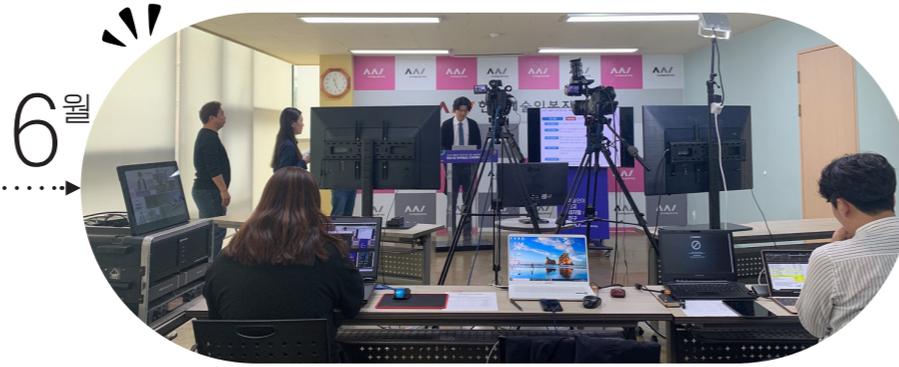


예술인 성별





- 협업사업
- 기획사업
- 지역사업



참여예술인 오리엔테이션



리더예술인 오리엔테이션



리더예술인 중간간담회

기업·기관

구분	협업사업	기획사업	지역사업	합계
기업·기관	59	80	69	208

예술인

구분	협업사업	기획사업	지역사업	합계
리더예술인	59	80	67	206
참여예술인	240	328	249	817
합계	299	408	316	1,023

예술인 지역

구분	명	%	구분	명	%
서울	441	43.1	강원	15	1.5
부산	55	5.4	충북	15	1.5
대구	42	4.1	충남	3	0.3
인천	30	2.9	전북	35	3.4
광주	53	5.2	전남	60	5.9
대전	36	3.5	경북	12	1.2
울산	8	0.8	경남	36	3.5
세종	1	0.1	제주	21	2.1
경기	160	15.6	합계	1,023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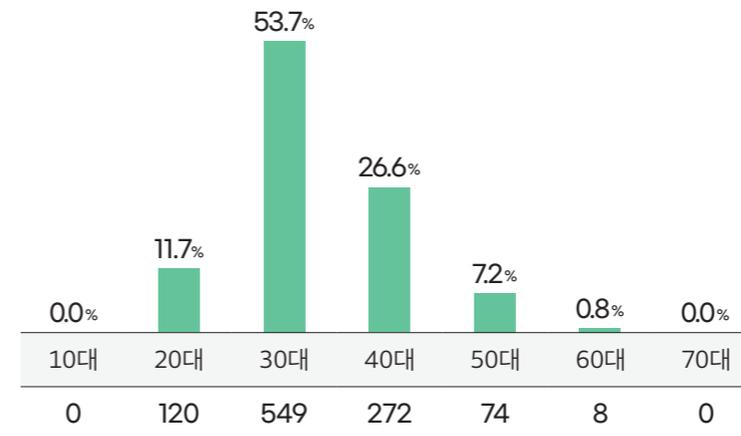


리더예술인 중간간담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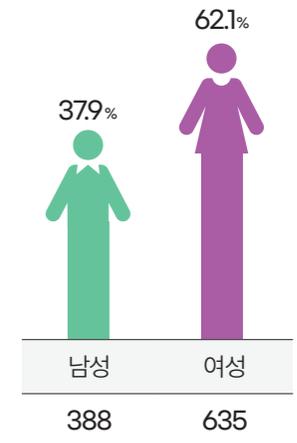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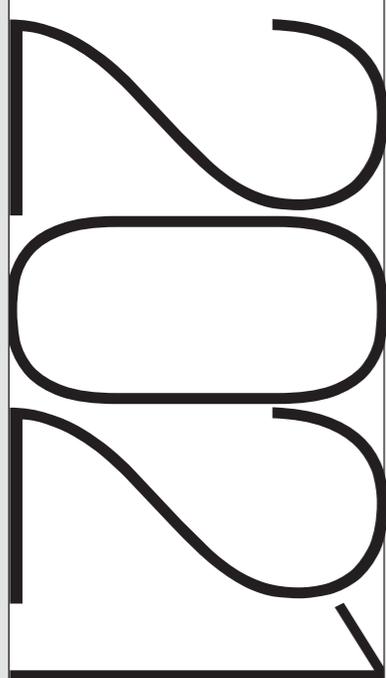
지역사업 중간간담회

예술인 연령



예술인 성별





- 협업사업
- 기획사업
- 지역사업



리더예술인 오리엔테이션



만남의 광장



기획사업 오리엔테이션

기업·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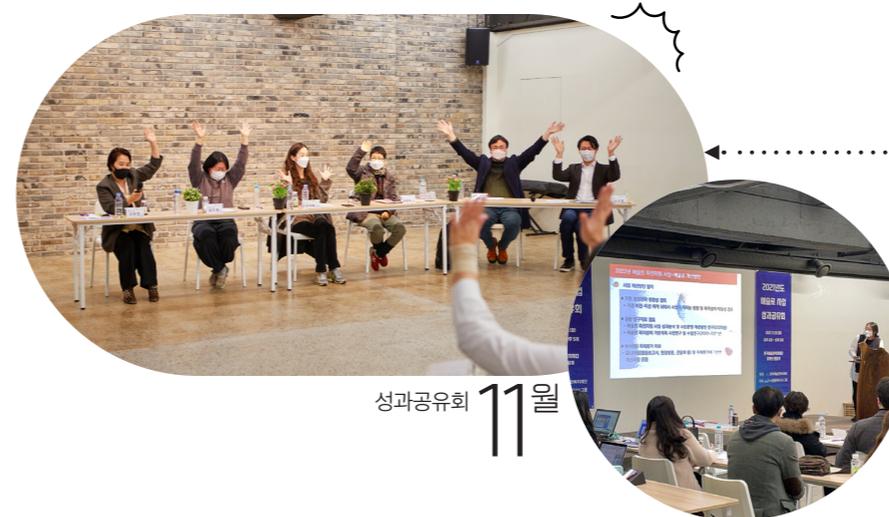
구분	협업사업	기획사업	지역사업	합계
기업·기관	40	78	81	199

예술인

구분	협업사업	기획사업	지역사업	합계
리더예술인	40	78	79	197
참여예술인	169	313	321	803
합계	209	391	400	1,000

예술인 지역

구분	명	%	구분	명	%
서울	367	36.7	강원	22	2.2
부산	68	6.8	충북	36	3.6
대구	58	5.8	충남	3	0.3
인천	28	2.8	전북	42	4.2
광주	60	6.0	전남	55	5.5
대전	29	2.9	경북	22	2.2
울산	19	1.9	경남	41	4.1
세종	10	1.0	제주	13	1.3
경기	127	12.7	합계	1,00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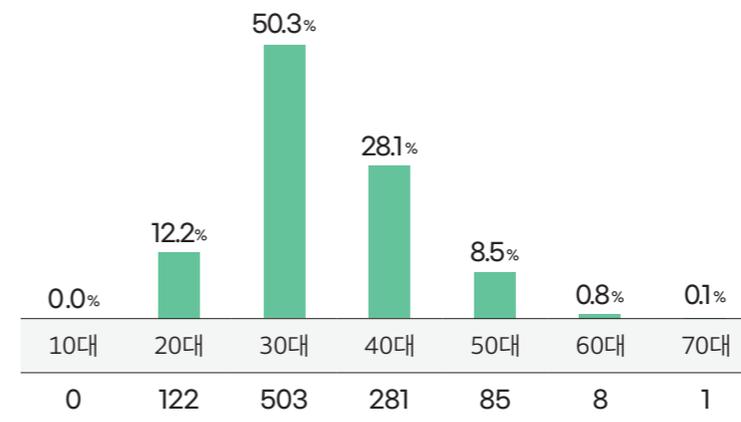


성과공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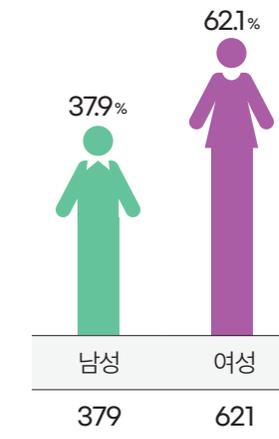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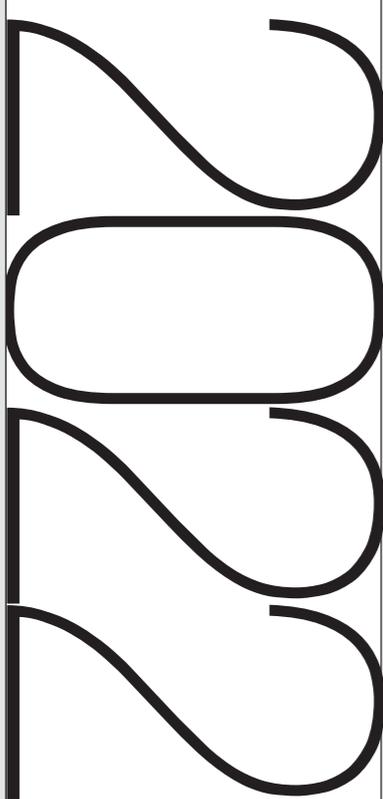
지역사업 간담회

예술인 연령



예술인 성별





- 협업사업
- 기획사업
- 지역사업



리더예술인 오리엔테이션



기획사업 오리엔테이션



만남의 광장



참여예술인
오리엔테이션



라운드테이블



지역사업 간담회

기업·기관

구분	협업사업	기획사업	지역사업	합계
기업·기관	66	49	86	2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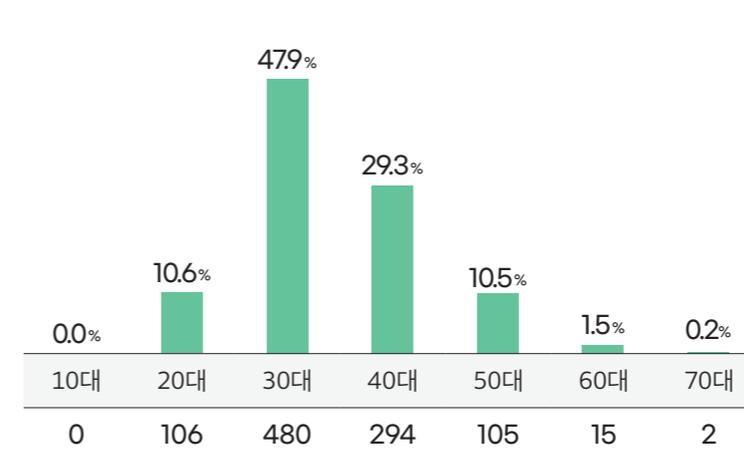
예술인

구분	협업사업	기획사업	지역사업	합계
리더예술인	66	49	86	201
참여예술인	277	185	339	801
합계	343	234	425	1,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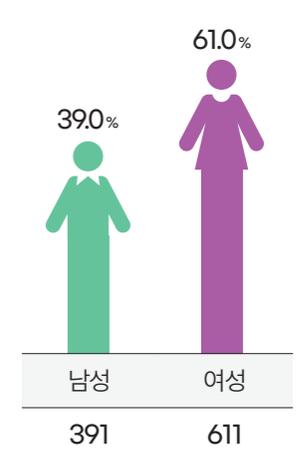
예술인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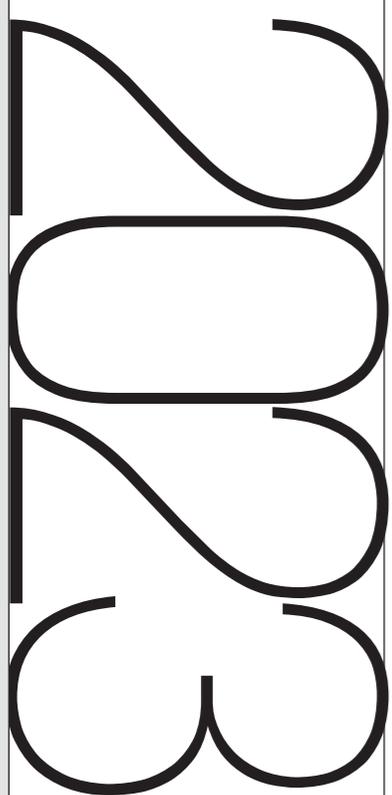
구분	명	%	구분	명	%
서울	352	35.1	강원	25	2.5
부산	20	2.0	충북	38	3.8
대구	66	6.6	충남	20	2.0
인천	30	3.0	전북	51	5.1
광주	64	6.4	전남	69	6.9
대전	29	2.9	경북	25	2.5
울산	21	2.1	경남	50	5.0
세종	2	0.2	제주	11	1.1
경기	129	12.9	합계	1,002	100

예술인 연령



예술인 성별





- 협업사업
- 기획사업
- 지역사업

4월



리더예술인&기업·기관 오리엔테이션

기업·기관

구분	협업사업	기획사업	지역사업	합계
기업·기관	80	26	94	200

예술인

구분	협업사업	기획사업	지역사업	합계
리더예술인	80	26	94	200
참여예술인	316	104	376	796
합계	396	130	470	996

예술인 지역

구분	명	%	구분	명	%
서울	318	31.9	강원	23	2.3
부산	41	4.1	충북	40	4.0
대구	76	7.6	충남	28	2.8
인천	32	3.2	전북	50	5.0
광주	75	7.5	전남	50	5.0
대전	37	3.7	경북	30	3.0
울산	25	2.5	경남	20	2.0
세종	5	0.5	제주	10	1.0
경기	136	13.7	합계	996	100

4월



만남의 광장

5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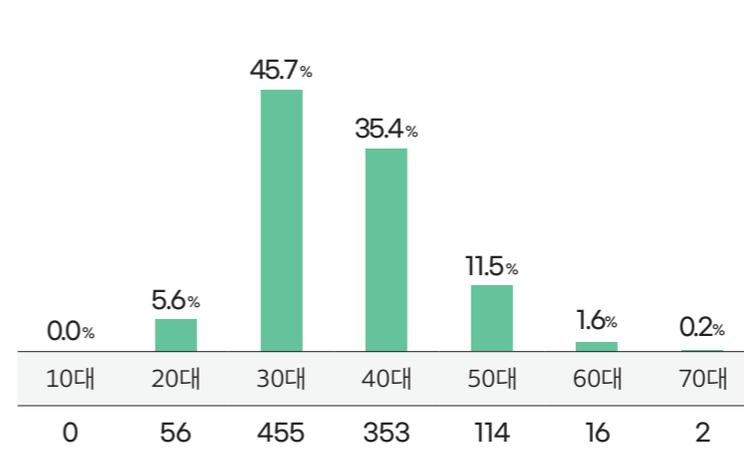
기획사업 오리엔테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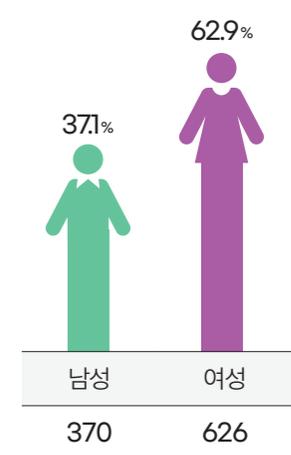
성과공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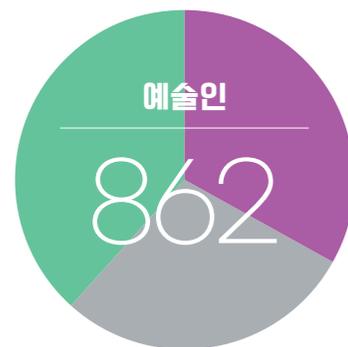
12월

예술인 연령



예술인 성별





- 협업사업
- 기획사업
- 지역사업

4월



리더예술인 오리엔테이션

4월



기업·기관
오리엔테이션

5월



기획사업 오리엔테이션

기업·기관

구분	협업사업	기획사업	지역사업	합계
기업·기관	56	47	65	168

예술인

구분	협업사업	기획사업	지역사업	합계
리더예술인	56	47	65	168
참여예술인	231	199	264	694
합계	287	246	329	862

예술인 지역

구분	명	%	구분	명	%
서울	292	33.9	강원	11	1.3
부산	37	4.3	충북	31	3.6
대구	61	7.1	충남	22	2.6
인천	28	3.2	전북	38	4.4
광주	52	6.0	전남	52	6.0
대전	35	4.1	경북	36	4.2
울산	21	2.4	경남	6	0.7
세종	3	0.3	제주	17	2.0
경기	120	13.9	합계	862	100

4월 만남의 광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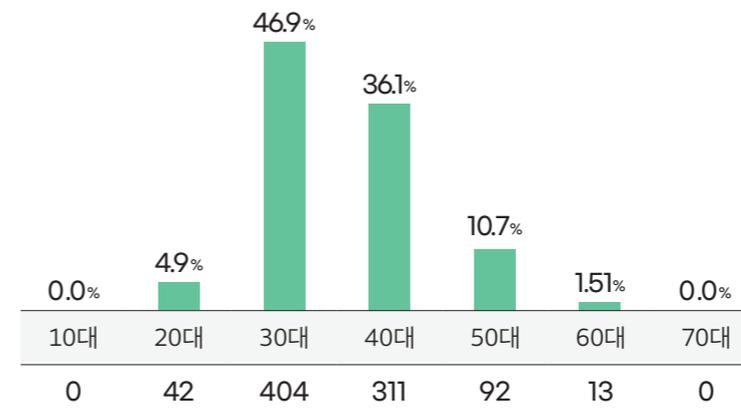
성과공유회

1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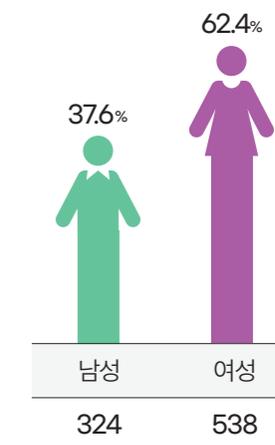


10주년 포럼

예술인 연령



예술인 성별



제도와 현장, 예술로 10년을 말하다

멘토 4인의 대담

만남 사람

멘토

(왼쪽부터)
김대현(한국작가회의 저작권위원회 위원장/문학평론가)
임현진(독립기획자)
최선영(문화예술기획자)
송지은(라운드콘/문화예술기획자)

예술인에게는 실질적인 지원을, 사회 속 다양한 기업·기관에는 예술의 힘을 나누는 ‘예술로 사업’이 올해로 10주년을 맞았다. 길게는 그 원년인 2014년부터 사업에 참여하며 참여예술인으로, 리더예술인(이전 명칭 퍼실리테이터)으로, 그리고 멘토로 예술로 사업과 함께 하는 네 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예술로 사업이라는 큰 울타리 안에서 10년 동안 기뻐하고 감동하며, 때로는 깊게 고민하며 성장해 온 이들이다. 이제는 기획자로서 프로젝트의 멘토로 역할하며 예술이라는 영역 안에서 서로 지지하며 응원하는 관계이기도 하다. 다양한 분야의 예술인과 기업·기관이 만나 일정 기간 동안 함께 호흡하며 하나의 프로젝트를 만들어가는 예술로 사업, 각각의 프로젝트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이는 곳에서 때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술인과 프로젝트를 이끌어주는 멘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낯설고 신기한, 시야를 넓혀준, 일상을 함께한 예술로 사업

Q **사회자** 멘토님들 안녕하세요! 예술로 사업이 벌써 10주년을 맞았어요. 예술로 사업에 참여하면서 경험했던 인상적인 추억들 다 있으시겠죠?

김대현 2014년 첫째 프로젝트가 생생하게 기억나요. 정말 우왕좌왕했죠. 예술인들끼리 협업하는 것도 아직은 너무 생소했던 시기였어요. 저는 2014년 서울대 공원의 프로젝트를 참여예술인으로 함께 했는데, 저희 팀은 동물들 앞에서 요요를 하고 반응을 기록했어요. ‘코알라들은 아무 반응이 없다’, 같은 식으로요. 사진 작업을 하던 예술인은 사육사들의 상처 입은 손들을 사진으로 기록하기도 하고요. 저는 글을 쓰는 사람인데, 이렇게 다른 분야 예술인의 작업을 가까이서 지켜보는 경험은 정말 신선했어요. 제 시야가 열리는 느낌이었죠. 그 이후로 예술로 사업에 큰 매력을 느껴서 계속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죠.

최선영 저는 2016년, 2017년에 예술로 사업에 참여했는데요, 그때 제 아이가 대여섯 살 때쯤이었어요. 예술가이면서 엄마이기도 한 저에게는 아이를 데리고 함께할 수 있는 기관이 있다는 사실이 무척 반가웠죠. ‘우리동네 나무그늘’이라는 카페이자 공동육아 프로그램과 매칭이 되어, 아이는 카페 안 놀이방에서 놀게 하고 저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었어요. 수원시 평생학습관에 매칭되었을 땐 아이랑 함께 퍼레이드도 했어요. 예술인 복지의 맥락으로 예술로 사업이 제 삶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

임현진 저는 문화재단에서 일하다 독립기획자가 되어 여러 가지 일을 병행하던 중, 2016년에 퍼실리테이터로 처음 참여하게 됐어요. 당시 아카이빙 팀으로 활동하면서 활동 영역이나 세대, 관심사별로 주목할 만한 사업들을 기록하는 역할을 맡았죠. 또, 예술인들 간의 네트워크를 어떻게 만들고 확장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소모임이나 스터디 같은 방식도 많이 시도했던 해여서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시기이기도 해요. 이후, ‘별별문화기획협동조합’에서 2년 동안 기획사업으로 참여했는데요. 그때는 기업 브랜딩이나 마케팅 아이디어 등, 마을 공동체사업 안에서 혼자서는 해볼 수 없었던 작업들을 예술인들과 함께 해볼 수 있었어요. 그 과정을 통해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훨씬 넓어지고 확장되는 느낌을 받았던 프로젝트였죠.

송지은 저는 퍼실리테이터로 참여했던 2018년 예술로 사업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서울 이태원 우사단로에 있는 ‘유니버설 피스 프로젝트(U.P.P)’라는 브랜드였는데 영화, 설치미술, 시각예술 등 다양한 장르 예술가들과 함께 했죠. 이 프로젝트가 유독 기억에 남는 이유는 결과물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지난한 과정 때문이에요. 모두가 만족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모래성을 쌓았다가 무너뜨리고, 또다시 새로 짓기를 반복하는 작업이었거든요. 우리가 어떤 결과를 향해 가기보다는 그 과정 속에서 경험하고 느끼는 것들을 곱씹고 해체하고 다시 만들어보는 실험을 함께 했다는 점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아 있어요.

Q **사회자** 한정된 기간과 결과물에 대한 걱정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가능했나요?

송지은 오랫동안 예술로 사업에 참여하다 보니 어느 순간 ‘그래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정해진 일정이나 타인의 속도에 맞춰서 무언가를 만들어내기보다는, 예술가 각자의 속도에 집중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점점 더 느꼈죠. 그렇게 서로의 리듬을 존중하면서 함께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신뢰가 많이 쌓였고요. 퍼실리테이터로서 조율하는 역할도 일방적으로 주도하기보다, 예술가들과 함께 나누는 과정이 되었어요. 전체 관계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감각이 생겼던 프로젝트였습니다.



예술로 사업이 준 선물, 경험과 역량

❶ **사회자** 예술로 사업의 연차가 쌓이면서 의미 있는 성과도 많았을 것 같아요! 관련된 이야기 좀 해주세요.

임현진 사업 연차가 쌓이면서 독립기획자로서의 역량이 많이 확장됐어요. 예술로 사업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다 보니 이제는 예술로 사업 없이도 여러 일들을 자연스럽게 만들어갈 수 있게 되었죠. 예술로 사업은 제게 '행복한 졸업'이었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멘토의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김대현 저는 사실 '졸업'이라는 말을 실감하진 않아요. 예술로 사업을 정말 좋아하고, 또 지금도 그리워해요. 참여할수록 즐겁고, 계속 이어가고 싶은 시간이었거든요. 지금은 문화정책 관련 사업에 참여하면서 일정상 함께하기가 조금 어려워졌지만, 여건이 된다면 언제든지 다시 참여하고 싶은 마음은 여전히 있습니다.

최선영 예술로 사업에 참여하면서 다양한 세계, 다양한 기관, 다양한 사람의 예술에 대한 관점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었어요. 그 안에서 수많은 생각과 마주하는 경험이 저로 하여금 예술로 사업을 '졸업'하게 만든 또 다른 동력이 됐던 것 같아요. 그 후로는 마치 창업하듯이 새로운 활동도 시도해봤고, 지금은 지방으로 이주한 지 4년이 되었어요. 제가 원하는 삶의 형태를 꾸려가는 데 있어 예술로 사업은 굉장히 크고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고, 그래서 좋은 자극이었고... 한편으로는 정말 고마운 시간이었습니다.

김대현 예술로 사업을 하면서 제 활동 범주 너머의 것들을 보게 되었어요. 예술을 확산할 수 있는 방법과 과정들이 이렇게나 다양하다는 걸 느끼고 배울 수 있었죠. 문학진흥기본계획 연구원으로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문화 정책을 기획하고 연구하는 일에도 예술로 사업에서의 시간이 큰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왼쪽부터) 임현진, 최선영, 김대현, 송지은

멘토의 역할, 넓고 깊게 바라보기

Q **사회자** 예술로 사업에 참여하던 예술인에서 이제는 자연스럽게 멘토로 활동하고 계신데요. 멘토로서 예술인들과 만날 때,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고 조언을 해주시나요?

임현진 저한테 알게 모르게 계속 영향을 미쳤던 것은, 오리엔테이션에서 한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내용이었어요. 예술로 사업 설계의 기초는 '예술적 개입의 가능성'에서 출발했다면서, 예술이 모든 사회적 영역에 개입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창조적인 역량이 발휘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제게는 영감이 되어 '이건 예술적 개입이야, 뭔가 창조적인 스파크가 일어날 거야'라는 암시를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

최선영 저는 예술인들이 이 사업에 너무 안주하게 되지는 않기를 바라요. 그런 지점에서 멘토링 과정에서 아주 가볍게 '이거 재미있어서 하시는 거냐' 하는 질문을 많이 드리기도 해요. 개별 프로젝트에 대해 너무 구체적인 조언은 하지 않는 편이에요. 대신 예술인들이 프로젝트 방향에 대한 부담을 느끼기보다는 자유롭게 접근하고 재미를 챙겨 갔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려요. 마음껏 해보시라고요.

임현진 '재밌으세요?'라는 질문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경험상 프로젝트가 잘되느냐 마느냐는 결국 '동기부여'가 얼마나 되는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해요. 멘토로서 저의 중요한 역할은 예술인이 프로젝트에 대해 고민하고 활동한 내용들을 좀 더 객관적인 언어로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외부의 시선으로 성과를 정리하다 보면 예술인들 스스로도 '내가 이런 걸 해냈구나' 하는 뿌듯함과 성취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게 다음 활동을 위한 동력이 되고, 자연스럽게 포트폴리오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김대현 참여예술인이었을 때는 하고 싶은 일을 했던 것 같고, 리더예술인이 되었을 때는 어렵지만 해야만 하는 일이 있고, 멘토가 되니까 어떤 생각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각자의 입장에 따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죠. 저는 예술인들에게 '우리가 충족 수 없으면 혁명이 아니다. 우리가 즐겁지 않으면 이 작업 자체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 드려요. 가급적 지금 하는 작업이 즐겁고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다면 좋고, 의미 있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그러기 위해서 개개인이 자신의 프로젝트를 통해 어떤 변화를 만들었는지 정리해보는 '사업의 의미화' 작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최선영



송지은

송지은 저는 참여예술인 입장에 가까운 마음으로 프로젝트를 바라보는 편인 것 같아요. 필요하다면 리서치도 같이 하고, 여러 장르가 섞였을 때 기대되는 아웃풋 사례를 찾아 공유해드리기도 하고요. 또 예술인들이 아이디어를 말씀해주시는 때는, 경험자 입장에서 조언을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예술인들이 너무 잘하고 계셔서 제가 따로 뭔가를 보태지 않아도 될 때가 많아요.

Q **사회자** 멘토들의 애정이 잘 느껴집니다. 멘토링 중 기억에 남는 장면 좀 소개해 주세요.

김대현 2024년에는 김근태기념도서관의 프로젝트가 기억에 남아요. 이 팀은 리더예술인의 노력 덕분에 초반부터 라포가 잘 형성되어 있었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도 깊었어요. 프로젝트 역시 유쾌한 에너지가 가득했죠. 기관의 정체성이 '인간 존중, 인간 존엄' 같은 매우 큰 가치를 다루고 있어 어쩌면 막막하게 느껴질 수도 있었을 텐데, 그걸 잘 수렴해 나가면서 마지막에는 새로운 보드게임을 만들어냈고, 저 또한 큰 환대를 받는 기분이라 아주 행복한 기억이었습니다.

송지은 저는 마포푸르메직업재활센터의 프로젝트가 인상적이었어요. 예술인들이 발달장애 이용인들과 함께 연극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는데요. 자신들의 예술이 이곳에서 정말 올바르게 쓰이고 있는지, 혹시나 진정성이 왜곡되지는 않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 예술인들이 진지하게 고민하셨어요. 그 깊은 고민 속에서 큰 진심이 느껴졌고, 그 부분이 오래도록 가슴에 남았어요.

임현진 저는 멘토링 하다가 객석에 앉아 운 적이 있어요.(웃음) (사)들꽃청소년세상 경기지부의 프로젝트였는데요, 그룹홈 사춘기 청소년들의 무관심한 태도에 예술인들이 방법론도 바꿔보고 만나는 장소도 바꿔보고 여러가지 새로운 시도를 지속하며 하나씩 고민을 해결하고 계셨거든요. 아무래도 청소년 당사자들을 만나는 방식이 예상하고 설계했던 것과 달랐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는 참 아름다웠어요. 마지막 발표회에서 청소년들이 만든 음악을 들었는데요, '노래를 만들라는데, 우리에게 노래라는데, 우리는 도대체 뭐지...' 무심하게 시작하는 노랫말에, 함께한 과정이 꾸밈없이 다 들어 있는데 너무 멋지더라고요. 그 어떤 명작보다 감동적이었고 참 좋았던 시간이었어요.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예술로 사업에 지원하는 예술인들에게

❶ **사회자** 예술인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술로 사업에 참여하면 좋을까요? 멘토님은 어떤 예술인을 기다리나요?

최선영 예술은 모호한 개념이에요. 시대적으로도 계속 변하고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술에 대한 사회적 역할, 가치 같은 것들이 현실에서 어떻게 해석되는지 알고 싶은 분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면 좋겠고요, 정말 참여하고 싶다면 이 사업에 대해 자신의 질문과 관점은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대현 외로운 예술인들이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예술은 사실 가장 내밀한 작업이고 또 혼자 작업하는 경우가 많은데, 만나보면 자신과 비슷한 지점에서 연동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 우리는 섬이 아니고 서로 다 연결돼 있다는 그 개념들을 가지게 될 때가 제일 즐거운 순간 아닌가 싶습니다.

송지은 예술가는 때로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버려야 새로운 것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내가 가진 것들을 해체하고 버리는 실험을 해보는 것, 그걸 통해서 새로운 것을 획득하고 싶은 분에게 예술로 사업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학습된 예술을 깨주는 여러 장치들이 있어서 참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임현진 예술의 방법론적인 배움이 아니라 예술 바깥에 대해 고민하고, 배우고 싶은 예술가들한테 이 사업이 되게 좋다고 느꼈어요. 저의 경우 어떤 기업에서는 1년 내내 공정 무역 관련된 책만 읽었고, 또 어떤 경우에는 1년 내내 탁구를 쳤어요. 또 한번은 작은 도서관 책방에서 일하며 작은 책방의 전략을 고민해보기도 했고요. 근데 그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자신이 하던 것 바깥에 대한 배움과 성장을 원하는 예술가라면 이 사업을 정말 재미있어할 것 같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김대현



임현진

예술로 사업, 미래를 위한 제언들

❶ **사회자** 예술로 사업,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해 나가면 좋을까요?
최선영 기획에 대한 열려 있음, 자유로움이 예술로 사업의 핵심이라 생각합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예술인들에게 이 사업에 대해 자유로운 해석과 실험을 반긴다는 것을 자주 언급해주시면 좋겠어요. 오리엔테이션에서 이 사업이 얼마나 유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좀 덜 걱정해도 되는지,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더 의미 있고 발전적인 기획이 촉발되는 방향성이 될 것 같아요.

임현진 예술로 사업이이말로 시대와 함께 고민하며, 사회와 맞닿아 있는 예술이죠. 이 사업이 복잡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이 사업의 정성적인 지표들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인데, 이 사업을 한 줄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이 오히려 좋은 점이라 생각해요. 좋은 프로젝트에 대한 후속지원도 중요하데, 한국예술인복지재단뿐만 아니라 다양한 단체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김대현 예술로 사업은 동시대 예술을 폭넓게 포섭할 수 있다는 면 때문에 우리 예술인들에게 가장 호응이 좋은 지원사업이라 생각해요. 저는 예술로 사업의 모든 부분을 지지하지만, 아쉬운 것은 협업사업의 기간이 짧다는 점입니다. 정말 좋은 작업 과정 중이거나 이미 훌륭한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후속 사업이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들은 참 안타깝워요.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좀 연속성 있는 사업도 진행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송지은 하나의 지원사업이 10년 동안 지속되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예술인들이 느끼지 못하지만 재단 내부에서 굉장히 견고하고 치열하게 이 사업을 유지, 발전, 연결하기 위해 부단히 애썼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생각하고요. 10년간의 각각의 결과가 모든 예술가들이 함께 한 프로젝트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예술로 사업을 총망라한 아카이브가 잘 만들어진다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사회자 오랜 시간 유익한 대화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대담이 예술로 사업의 자양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김대현 멘토

한국작가회의 저작권위원회 위원장/문학평론가

- 2014년: 서울대공원(참여예술인)
- 2016년: (사)한국메세나협회(퍼실리테이터)
- 2017년: 인천탁주제조제1공장(퍼실리테이터)
- 2018년: 꽃과 생활(퍼실리테이터)
- 2019년: 송파구보건소(참여예술인)



2014년 예술로 사업에 참여예술인으로 처음 참여했습니다. 이후에도 퍼실리테이터 등으로 사업에 참여하였고 현재는 예술로 사업 멘토로 활동하고 있는 김대현입니다. 본업인 평론과 함께 예술로 사업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문화예술정책 웹진 <에이스퀘어> 편집위원장으로 활동했습니다.



임현진 멘토

독립기획자

- 2016년: 예술로 사업 성과아카이브팀(퍼실리테이터)
- 2017년: (주)안테나(퍼실리테이터)
- 2018년: 사단법인 서울산책(퍼실리테이터)
- 2019년: 지구마을사회적협동조합(리더예술인)
- 2021년: 별별문화기획협동조합(리더예술인)
- 2022년: 별별문화기획협동조합(리더예술인)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예술로 사업과 인연을 맺은 뒤 2024년 예술로 사업 멘토로 참여했습니다. 예술로 사업의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 기업과 협업 프로젝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송지은 멘토

라운드/문화예술기획자

- 2014년: 아이디성형외과(참여예술인)
- 2015년: 동아지질(퍼실리테이터)
- 2016년: 대학로소나무길번영회(퍼실리테이터)
- 2017년: 제주도좋아(참여예술인)
- 2018년: U.P.P(퍼실리테이터)



독립 프로듀서로 공연 기획과 축제 프로그래밍 등의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2016년 처음으로 퍼실리테이터를 맡아 예술인파견지원사업에 참여하게 된 이후로 사회적 기업과 마을 기업 등에서 활동했습니다. 2024년에는 멘토로 예술로 사업의 구성구성을 살펴보고 예술인들과 기업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최선영 멘토

문화예술기획자

- 2016년: 우리동네나무그늘협동조합(퍼실리테이터)
- 2017년: 수원시 평생학습관(퍼실리테이터)

2016, 2017년 퍼실리테이터로 예술로 사업에 참여했으며 현재 문화예술기획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창작, 기획, 연구를 이어가며 개별성 중심의 활동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1+1+1은 예술로

우지연 멘토
하루의축 이사

함께 살아온 예술로 10년

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 사업(이하 예술로 사업)은 2024년, 10년차 사업이 되었다. 문화예술 분야 정책 중 ‘지원사업’의 형태로 10년을 넘어가는 경우는 정말 흔치 않다. 사업이 10년 이상 지속될 수 있는 이유는 어찌 보면 단순하다. 필요한 사업인데 효과도 있다는 것이다. 10년 동안 예술로 사업을 설명하는 말과 지향은 조금씩 변화했지만 사회에 대한 예술적 개입을 통해 예술의 사회적 가치, 예술가의 사회적 역할을 만들어가겠다는 기본 방향은 변함없다. 예술가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하겠다는 것, 그 사업을 사회에도 필요한 것으로 만들겠다는 선순환의 가능성을 지난 10년의 시간 동안 확인했고 입증했다.

사실 예술로 사업은 쉬운 사업이 아니다. 예술가만 지원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기관과의 파트너십이 전제되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예술가와 기업·기관 간 협업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예술가 간 협업이 동시에 요구되는 사업인 점도 그렇다. 사업 초기 주체마다 사업에 대한 이해가 달랐고 예술가와 기업·기관이 서로를 이해하기 어려운 지점도 많았다. 10년의 시간을 지나오며 그 간극은 많이 좁혀졌다. 이해의 부족은 존재하지만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서로 맞춰가려는 모습들이 더 많아졌다. 그리고 사업의 형식을 맞추는 것에 초점을 두었던 것에서 이제는 사업의 내용을 고민하고 보다 의미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려는 의지들로 확장되어 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참여 예술가들이 새로운 동료 예술가를 만나고 새로운 영역을 학습하고 사회와의 접점을 만드는 것은 덤으로 따라오기도 한다. 예술가 개인의 작업과 연결하거나 고민을 확장하는 경우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렇게 예술로 사업은 10년 동안 예술 현장과 사회에 자리 잡았다.

개인적으로 예술로 사업을 만난 것은 운이 좋았다는 생각이다. 사업을 처음 만난 것은 2017년이다. 사업 심의위원으로, 멘토로, 사례집 필자로 참여 형태는 조금씩 달랐지만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예술로 사업을 마주했다. 예술가를 이렇게 대규모로 만난 것도 인상적이었는데 그 안의 다양한 고민을 보며

단순한 지원사업으로만 대할 수 없었다. 또 고정되어 있는 사업이 아닌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재진행형의 사업이고 함께 만들어낼 여지가 있는 사업이라는 점도 매력적이었다. 다른 사업보다 훨씬 깊게 고민하고 생각할 것도 많았지만 그 자체로 즐거움이 컸다. 다양한 예술가들을 만나는 것은 점점 큰 즐거움으로 다가왔다. 여러 해 동안 예술로 사업에 참여하면서 들었던 몇 가지 생각을 나눌까 한다.

협업사업에 대한 전지적 참견 시점

예술로는 정해진 조건이 명확한 사업이다. 서로 모르는 예술가들끼리 팀이 되는 것, 모르는 기업·기관과 만나는 것, 기한이 6개월로 정해진 것이 그렇다. 여기에 팀 구성과 기업·기관 매칭은 내 뜻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점이 추가되기도 한다. 낯설고 막연한 상황 속에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은 정해져 있다는 것이 기본 조건이라는 점을 전제로 놓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예술가든 기업·기관이든 참여한 각자가 모두 생각과 속도가 다르다는 점도 생각해야 한다. 초반에 서로 알아가는 과정을 거치기도 하지만 그걸로 모든 것을 해결하기엔 어려운 일이다. 사업 기간 내내 우리가 서로 다를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하며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 올해 몇몇 팀에서는 안전한 활동 환경을 위한 약속을 만들어 공유하기도 했다.

점점 갈수록 협업의 내용과 방향에 대해 깊이 생각하며 결과물의 퀄리티나 자신의 성취로 어떻게 연결할지 고민하는 예술가들이 늘어나는 것은 굉장히 반가운 일이다. 내용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역으로 일정 관리라는 형식이 중요하다. 6개월이라는 정해진 시간을 어떻게 잘 보내느냐의 문제인 것이다. 앞부분에 고민과 논의를 오래하느라 뒤에 시간이 부족해 아쉬웠다는 팀들을 왕왕 보게 된다. 나와 우리 팀의 고민과 준비를 잘 담아낼 수 있는 과정 관리가 필요하다.

협업의 형태는 다양하다. 한 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도 있고,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동시다발로 병행할 수도 있다. 모든 구성원이 N분의 일로 참여할 수도 있고 프로젝트에 따라서 주, 부의 역할을 나눌 수도 있고 논의는 함께 하지만 주된 실행자가 있는 경우도 있다. N분의 일만이 협업은 아니다. 중요한 점은 함께 해석하며 하나의 주제와 방향성을 설정했는가이다. 프로젝트가 하나이든 여러 개이든 우리 팀에서 정한 주제에 맞춰 프로젝트를 구성하고 맥락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따로 또 같이’도 협업이다.

또 기업·기관과의 협업은 기업·기관의 요구를 수용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기업·기관의 요구를 예술가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이다. 해석하기 위해서는 기업·기관에 대해 알아가고 그 요구의 배경과 목적에 대해 알아가야 한다. 이 과정에서 리서치와 학습은 필수다. 서로 이해의 폭을 넓혀가는 과정 속에서 다양한 해석과 논의가 가능하다. 예술가의 시각으로 해석하고 주제를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과물의 형태 또한 다양하다. 예술로 사업은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니 결과물이 없어도 되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기도 한다. 예술로 사업은 과정과 결과 모두 중요하다. 결과가 중요한 이유는 예술로 사업이 사회와 접점을 만들어내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예술가들만 움직이는 사업이 아니라 기업·기관이라는 파트너가 함께 하는 사업이다.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은 과정을 생략한 채 결과 그 자체를 향해 달려가지 말라는 뜻이지 결과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과정을 어떻게 구성할까 끊임없이 고민하고 질문해야 한다.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또 다른 이유는 결과가 어떻든 과정 자체에 의미가 있다면 과정 자체도 좋은 결과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과정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웠고 얻었는지 또 그것의 의미는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정리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예술가에게도, 기업·기관에도 유의미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회고와 의미 정리로 사업을 마무리했으면 한다. 나에게, 우리 팀에게, 기업·기관에게 이 협업은 어떤 의미인지 스스로 정리하는 것은 중요하다. 다른 사람이 하는 평가가 아닌 이 사업의 주체로 참여한 예술가로서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이 작업이 어떤 작업인지를 밝히는 일이기도 하다. 각자의 의미를 남기는 것도 중요한 성과라고 생각한다.

예술로의 다음 10년을 기대하며

올해 유난히 눈길을 끌었던 부분은 리더예술인의 역할

이었다. 많은 리더예술인이 스스로 자신의 역할에 대해 질문하고 고민하며 이런 저런 시도를 멈추지 않았다. 인상적인 것은 참여예술인 옆에서 함께 걷거나 뒤에 서 밀어주는 역할이었다. 리더예술인이라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더 들으려는 노력은 바운더리를 제한하기보다는 여지를 넓히는 과정으로 이어졌다. 참여예술인 각각이 하는 이야기와 제안에 담긴 의미를 발견하고 그것을 공유하며 하나의 흐름으로 맥락화하는 작업이었다. 읽어주는 사람이라는 리더예술인의 역할을 재발견하는 기회가 되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하지 않은 사업의 중요한 주체가 하나 더 있다. 바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가치확산팀이다. 사업의 지난 10년을 이끌어 왔고 앞으로의 10년을 기대하게 하는 동력 중 재단을 빼놓을 수 없다. 지난 10년간 수많은 위기와 고비를 넘어오는 데는 재단의 수많은 고민이 있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묻고 이야기 나누며 사업을 단단하게 다지기 위해 무수한 노력을 기울였다. 보통은 의견 수렴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 예술가치확산팀은 그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고 피드백까지 잊지 않았다. 이렇게 사업에 진심인 공공기관이라니, 그 과정을 함께 하며 당연하게 사업에 진심이 될 수밖에 없었다.

예술로의 3주체가 있다면 예술가, 기업·기관, 재단 예술가치확산팀이 아닐까. 지난 10년의 시간은 이 3주체가 사업에 대한 이해를 서로 맞춰가는 시간이었다고도 볼 수 있다.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재단의 지향과 예술가의 필요, 기업·기관의 기대 간 교집합을 만들어오는 데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3인 4각은 서로의 속도를 맞춰가는 것이 중요하다. 3인 4각으로 발맞추어 앞으로의 10년도 한발 한발 걸어가길 응원한다.

예술로는 특별하다

예술로 사업은 전시, 공연과는 다른 형태로 일상과 사회 현장 곳곳에서 예술가와 예술을 만날 수 있는 통로다. 시민들이 일상에서 예술가와 함께 예술을 사유하고 감각할 수 있는 경험은 특별하다. 이런 경험들이 더 많은 시민들에게 가닿을 수 있기를 바란다.

PART 1

알림터

기업의 가치를 예술로 전하는 알림

예술을 통해 브랜드를 이야기하고
예술의 언어로 기업을 말합니다.



066

예술, 첨단기업의 일상에 스미다
LG전자(주)

074

새 이름을 우리답게 알리다
(주)DGB금융지주

082

슬로건에서 공감으로 연결고리가 되는 법
주식회사 케이티알파

예술, 첨단기업의 일상에 스미다

#ESG

#환경

#안전

#전시

#문화행사



2024년 예술로 사업 우수사례 인터뷰

LG전자(주)

만남 사람

기업·기관 정희석 LG전자(주) 총무팀 책임

리더예술인 김지혜(미술, 사진)

참여예술인 윤승비(영화, 연예), 정경우(미술), 홍지혜(음악, 무용)

LG전자(주)

LG전자는 혁신적인 기술과 디자인으로 가전, 전자, IT 분야를 선도하며 고객의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하는 글로벌 기업이다. 문화예술 지원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다양한 예술 프로젝트와의 협업으로 고객에게 더욱 창의적 경험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LG전자(주) + 예술로 사업

‘Life is good’이라는 캐치프레이즈와 함께 세계인의 가정과 생활 속에서 만나는 글로벌 가전 브랜드 LG전자와 예술로 사업이 새롭게 만났다. LG전자 총무팀의 정희석 책임은 TV, 냉장고, 세탁기처럼 우리 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하다 쓰임을 다한 가전제품 폐자재와 LG사이언스파크의 연구개발 과정에서 나온 폐자재를 의미 있게 활용할 방법을 고민하다가, 예술로 사업을 알게 되었다. 예술인들과 함께라면 뭔가 뻘하지 않고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나올 것 같다는 기대 속에 2024년 예술로 사업을 신청하게 되었고, 예술인들과 함께 한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사진과 영상 기반의 시각작업을 하면서 문화예술 기획자로도 활동하는 김지혜 예술인이 리더 역할을 맡았고, 시각예술가 정경우,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 홍지혜, 인테리어 디자인과 무대미술을 공부한 윤승비 예술인이 팀원으로 참여했다. 다양한 분야의 예술인들이 모인 만큼 때로는 함께 머리를 맞대고, 때로는 독립적으로 전문성을 발휘하며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들이 장기적 미션으로 진행한 프로젝트는 2025년 완공되는 LG사이언스파크 로비 안전체험관의 <LG전자 아트 프로젝트: 안전 더하기 쉽터> 설치미술 작품 제작이다. 또한, 5월 가족의 날에는 LG 임직원 가족과 함께하는 문화 행사 <가족 자(子)화상 그리기>를 기획·진행했으며, 9월 <LG 컬처위크 라이브 공연>에서는 홍지혜 예술인이 피아노 연주를 통해 임직원들에게 아름다운 힐링의 시간을 선사했다.



(왼쪽부터) 정경우, 김지혜, 홍지혜, 정희석, 윤승비

LG전자는 환경 보존과 보건·안전에 대한 임직원들의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며 2024년 예술로 사업에 참여했다. 제품의 연구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활용하여 예술 작품을 제작함으로써 기업의 폐자재 재활용과 안전 관리 이슈를 예술과 연결한 <LG전자 아트 프로젝트: 안전 더하기 쉽터> 설치미술 프로젝트를 비롯해 <LG전자 가족의 날 행사: 가족 자(子)화상 그리기>와 <LG 컬처워크 라이브 공연> 등을 진행했다. 이러한 과정은 단순한 프로젝트를 넘어 기업과 예술 협업의 방향성을 넓히고 지속가능성을 보여준 우수사례로 인정받아 2024년 성과공유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기쁨을 얻었다.



LG전자와 한 해 동안 진행한 프로젝트를 소개해 주세요.

김지혜 크게 세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우선 5월에는 LG전자 가족의 날 행사 프로그램 중 하나로 <가족 자(子)화상 그리기>를 진행했어요. 자녀들이 부모님의 얼굴을 그리는 행사로 기획하여 의미 있고 재미도 있는 행사로 인기를 얻었어요. 또 9월에는 <LG 컬처워크 라이브 공연>을 진행했고 홍지예 예술인이 피아노 콘서트를 성황리에 열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완성을 목표로 준비 중인 <LG전자 아트 프로젝트: 안전 더하기 쉽터>가 있어요. 전자제품 폐자재를 활용한 설치미술 프로젝트로, 현재는 LG사이언스파크 내 새로 공사 중인 건물에 설치하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한 임직원들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정희석 제가 총무팀에 있다 보니 다른 부서와 소통이 많은 편입니다. 특히 직원들의 복리후생 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 노경파트(근로자와 경영자의 상생경영)나 연구조직 등 유관 부서와 자연스럽게 의견을 나누고 있는데요. 덕분에 프로젝트의 소식도 사내에 자연스럽게 알려졌습니다. 가족초대 행사를 준비할 때 저희 바람은 많은 체험을 제공해주고 싶은데, 참신한 아이디어가 늘 부족했거든요. 올해는 예술인들이 새롭고 훌륭한 아이디어를 많이 제안해 주었습니다. 주관 부서 입장에서는 적은 예산으로 신선한 행사를 기획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특히 행사에 참여한 임직원 가족들이 아이들이 그려준 그림을 무척 소중히 간직하며 뿌듯해하던 모습이 기억에 남아요. 물론 아이의 그림 실력에 당황하는 부모님들도 계셨지만요(웃음). 모두에게 재미있고 특별한 추억이 된 것 같습니다. <LG 컬처워크 라이브 공연> 역시 사내 관련 부서의 요청을 받아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LG전자 아트 프로젝트: 안전 더하기 쉽터>는 '안전과 환경'을 키워드로 시각 작업과 음악 작업이 함께 들어가는 멋진 작품이 될 것으로 임직원 모두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술로 사업 종료 후에 연장계약을 체결하게 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정희석 2025년 2월에 개관하는 신사옥 1층의 안전체험관 벽면을 장식할 전시물 <LG전자 아트 프로젝트: 안전 더하기 센터> 프로젝트인데요, 예술로 사업 활동 기간은 10월까지였지만, 신사옥 개관 일정에 맞추어 제작을 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했어요. 회사 차원에서 예술인들과 연장 계약을 하고 안정적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고요. 아주 마음에 들어 하셔서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신 덕분에 가능했던 일이지요. 예술인들이 제안해준 전시 기획이 너무 좋아서 회사에서는 연장 계약을 하는 것이 당연한 선택이었어요. 오히려 예술인들이 스케줄이 안 맞을까봐 조마조마한 마음도 있었죠.

정경우 저희 예술인 입장에서도, 시간이 부족해 자칫 미완으로 끝날 수도 있었던 기획에 대해 기업이 적극적으로 의지를 보여주고 비용을 들여 함께 완성하고자 하신 점이 무척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저희가 6개월을 결코 허투루 보내지 않았다는 보람을 크게 느낀 순간이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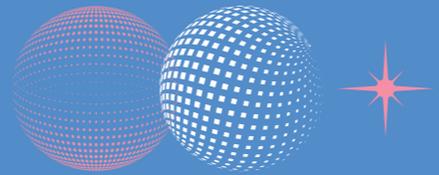
‘안전과 환경’이라는 가치에 대해 평소에도 관심이 있었나요?

김지혜 평소 작업을 하면서 '나의 작업이 어떤 가치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고, 환경문제에도 꾸준히 관심을 가져왔어요. 아마 그런 이유로 LG 전자와 매칭이 잘된 것 같아요.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도 지속적으로 그 답을 찾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특히 프로젝트 과정에서 LG 리사이클센터를 함께 방문한 경험이 기억에 남아요. 가전제품들이 10년, 20년 사용 후 버려지고 난 뒤 어떻게 다시 순환하는지를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정경우 저는 시각작업을 하다 보니 실제로 공구나 약품을 사용할 때도 많은데 그동안 안전 문제에 다소 소홀했던 것을 이번에 느꼈어요. 기업의 체계적인 안전 관리 시스템을 보면서 제 스스로도 안전의식을 높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환경을 주제로 한 작업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편이었어요. 창작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쓰레기를 만들어내는 상황이 종종 있으니까요. 그동안은 환경을 주제로 메시지를 던지는 게 과연 정당한지 고민이 있었는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제가 던지려는 메시지가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보다 더 가치가 있다면 충분히 시도해볼 만하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예술인으로서 기업 경험이 조금 낯설기도 했을 것 같아요.

윤승비 저는 디자인 베이스여서 오히려 작가라는 이름이 조금 어색했어요. 다른 분야 예술인들과 함께 세상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프로젝트를 작업하는 것도 신선했고, 예술인의 시각과 기업이 원하는 것 사이를 오가면서 맞춰 나가는 것이 디자인



저희요 - 나에게 예술로는 예술인 힘을 순간만 기쁘다.



함께 짚는 일이다. - 김지혜
예술로 사업 종료 후에도 LG 전자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나에게 예술로는 매우 특별한 일이다. - 정경우



윤승비
안전과 환경을 주제로 하는 프로젝트는 굉장히 큰 도전이다.



홍지혜
나에게 예술로는 선한 영향력을 나누는 활동이다.

Decide here & Execute fast!

여기서 결정하고, 빠르게 실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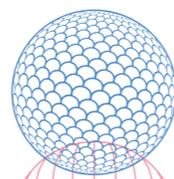
의 역할이라는 생각도 하면서, 학교에서 배웠던 것을 실전에서 열심히 적용해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Q 협업하면서 느낀 어려움은 없었나요?

정경우 협업은 역시 어려웠어요! 대부분의 예술인들이 독립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의사결정 구조가 단순하고 직선적인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과 기업까지 함께 의견을 조율하며 나아가야 하니까 많이 낯설었어요. 그런 와중에 수평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조금 더디더라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는 과정이 어려웠지만 의미가 있었어요. 마치 예술가가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경험한 것 같아요. 우리 모두 열심히 '사회화 훈련'을 받은 셈이죠(웃음).

Q 프로젝트 과정에서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홍지예 저는 음악을 하다 보니 시각예술과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번 LG전자 프로젝트에서 조형물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으는 과정에서 음악을 시각화할 방법을 고민하게 되었어요. 예를 들어, LG의 세탁기가 돌아가는 모습을 LP판이나 CD 플레이어의 이미지와 결합하여 음악과 가전을 융합한 조형물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했어요. 기업에서도 좋은 반응을 보여주셨지만, 시간이 부족해 현실화하지 못한 점이 무척 아쉽습니다. 언젠가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 꼭 추진해보고 싶어요.



Plus Interview



LG전자(주) 총무팀 정희석 책임

Q LG전자의 ESG 활동과 '예술로 사업'은 어떻게 만났나요?

글로벌 빅 바이어들이 우리 회사 제품을 구매할 때 중요하게 보는 요소 중 하나가 ESG 활동이고, 그중에서도 리사이클링 활동이 아주 중요합니다. LG 사이언스파크에서 발생하는 폐자재는 실험이나 테스트 용도로 쓰이다 버려진 것들인데요. 이 폐자재들을 예술가들과 함께 리사이클링 작품으로 만든다면, 우리 사업장을 방문하는 바이어들은 물론이고 내부의 연구원들도 흥미롭게 감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LG전자 아트 프로젝트: 안전 더하기 씬터>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Q 기업에 예술이 필요한 순간이 있나요?

회사 안에서 공간 조성을 할 때, 휴게실이나 화장실 등에 BGM이 필요할 때, 안내 자료가 필요할 때, 임직원 대상의 특별한 캠페인이 필요할 때, 예술가의 힘을 빌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전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는데, 생각해보니 일상 속에서 예술이 필요한 순간이 정말 많더라고요.

Q 예술가들과 함께하며 느낀 점 있으세요?

개인적으로 '예술인이 각광받는 사회가 조만간 오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유니크함이나 젊은 MZ세대 직원들이 원하는 새로움, 이런 니즈를 가장 잘 충족시킬 수 있는 게 바로 '예술적 감각'이라는 걸 이번 기회에 확실히 느꼈거든요. 예술인들이 보여주신 아이디어나 기획은 기존의 거래처에서 접해왔던 것과는 다른 신선함과 감성적인 '몽글몽글함'이 있었어요. 예술이 우리 삶에 스며들면서, 회사의 윗분들도 보는 눈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예술가의 창의성과 기업이 만났을 때 나올 수 있는 시너지는 정말 엄청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LG전자(주)와 예술인이 함께한 작업들



LG전자(주)는 구성원의 건강 증진과 회사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아트다방>, <폐휴대폰 수거 캠페인> 프로젝트를 운영하였다. 건강한 삶, 창조적 에너지, 지속가능한 삶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퍼실리테이터 김호경(미술)

참여예술인 구시연(연극),

김은희(대중예술), 윤찬목(음악)



임직원 가족과 <가족 자(子)화상 그리기>를 운영하고, LG사이언스파크 건물 로비에 안전체험관을 조성했다. 임직원과 시민들에게 안전과 환경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리더예술인 김지혜(미술, 사진)

참여예술인 윤승비(영화, 연예),

정경우(미술), 홍지예(음악, 무용)

새 이름을 우리답게 알리다

#사회공헌

#기업이미지제고

#공연

#지역예술인

#상생



2024년 예술로 사업 우수사례 인터뷰

(주)DGB금융지주

만남 사람

기업·기관 류혁하 (주)DGB금융지주 피플&컬처부 매니저

리더예술인 박준우(음악)

참여예술인 김리아(미술), 김현성(음악, 연극), 오현아(미술), 이해웅(연예)

(주)DGB금융지주

DGB금융지주는 대구광역시를 기반으로 성장한 금융기관이다. 지역 대표 은행인 대구은행을 모태로, 현재는 총 10개의 계열사(iM뱅크, iM증권, iM라이프, iM캐피탈, iM에셋자산운용, iM유페이, iM데이터시스템, iM신용정보, iM투자파트너스, 뉴지스)를 갖춘 종합 금융그룹으로 성장했다. '따뜻한 금융으로 모두가 꿈꾸는 세상을 만들다'라는 미션을 품고, 새로운 50년을 향해 힘찬 출발을 준비하고 있다.

(주)DGB금융지주 + 예술로 사업

2024년 6월, DGB금융지주의 자회사인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되며 새로운 이름 'iM뱅크'를 얻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DGB금융지주는 지역 주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고 동시에 임직원들의 소속감을 높일 방안을 모색하던 중, <아임 프롬 DGB(I'm from DGB)>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었다. 프로젝트를 담당할 DGB금융지주 피플&컬처부 류혁하 매니저는 예술인들과 협업하면 더욱 창의적이고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대구 지역 예술인들과 협업을 추진했다.

큰 무대 기획 경험이 있는 박준우 리더예술인의 합류를 시작으로, 다양한 분야의 예술인들이 함께하며 획기적인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미술로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이해웅 예술인, 연극부터 뮤지컬까지 폭넓은 무대 경험을 지닌 김현성 예술인, 상상을 현실로 구현하는 미디어아티스트 김리아 예술인, 전통 서예를 전공한 오현아 예술인이 참여했다. 예술인들은 각자의 시각에서 적극적으로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기획한 프로젝트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었으나, 예술인들은 먼저 예산을 요구하기보다 스스로의 예술적 역량을 증명하는 길을 선택했다. 예술인들은 <CEO와 함께, Talk & Art>를 통해 확실한 성과를 보여주었고, 이후 기업과 협의를 거쳐 추가 지원금을 확보할 수 있었다. 한 달 동안의 준비를 거쳐, 미술 공연, 캘리그래피 퍼포먼스, 미디어아트, 뮤지컬 콘서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DGB 패밀리데이>를 기획해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왼쪽부터) 김리아, 김현성, 박준우, 이해웅, 오현아, 류혁하

DGB금융지주의 자회사 iM뱅크(구 대구은행)는 2024년 6월 은행명을 변경했다. 변화에 따라 브랜드의 정체성과 사명감을 강화하고, 보다 긍정적인 이미지를 조성하기 위해 <i'M from DGB> 프로젝트를 기획해 예술로 사업에 참여했다. 예술인들은 기업의 니즈를 충분히 반영하며 파일럿 성격의 <CEO와 함께, Talk & Art>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이를 기반으로 기업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구체적인 계획을 제안했고, 그 결과 <DGB 패밀리데이> 프로젝트까지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 이번 예술로 사업의 성공을 바탕으로 후속 프로젝트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12월, 2024년 예술로 사업의 성과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주)DGB금융지주 팀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이사상을 수상하며 성과를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DGB금융지주와 진행한 프로젝트를 소개해주세요.

박준우 저희가 진행한 <i'M from DGB> 프로젝트는 대구은행이 iM뱅크로 전환됨에 따라 이를 예술적으로 알리는 작업이었어요. 여러 차례의 논의 끝에, 8월에는 20여 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CEO와 함께, Talk & Art>를 진행했고, 9월에는 <DGB 패밀리데이>를 개최했습니다. <CEO와 함께, Talk & Art>에서는 부채 만들기와 마술 공연으로 임직원들 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했죠. 그리고 iM뱅크 제2본점에서 열린 <DGB 패밀리데이>는 임직원뿐만 아니라 가족과 시민들까지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어요. 지역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20여 개의 플라마켓이 열렸고, 저녁에는 예술인들이 참여한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메인 공연에서는 캘리그래피 퍼포먼스, 민화 미디어아트, 마술쇼, 뮤지컬 갈라쇼를 선보였어요. 프로그램을 통해 DGB 임직원들에게는 애사심을, 지역 시민들에게는 iM뱅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기획했죠.

프로그램을 함께한 임직원과 지역민들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류혁하 첫 프로젝트였던 <CEO와 함께, Talk & Art>부터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예술적 자극을 준 부채 만들기와 마술 공연은 CEO와의 만남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고, 예술이 직장 문화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던 것 같아요.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예술인들에게는 성취감을, 기업에는 예술인들과 신뢰를 쌓은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덕분에 프로젝트에 대한 예산 확보로도 이어졌습니다. 사실, DGB에서 가족 초청 행사는 처음으로 진행된 거였어요. 개인정보를 다루는 금융기관이라서 사람들을 초청한다는 것이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이번 기회에 가족에게 자신의 일터를 보여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는 피드백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 공연을 본 뒤 가족들과 집에서 관련 영화를 찾아 보신 분들도 있었고, 이런 공연을 좀 더 크게 한번 더 했으면 좋겠다는 반응도 있었죠. 지금은 그룹사 내 다른 부서 담당자들이 저희에게 자문을 구할 정도로 사내에서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❶ 협업 과정은 어땠나요? 힘들진 않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김현성 처음에는 예술로 사업의 목적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렸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협업의 즐거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팀은 다른 팀들과 달리 한 달에 약 5번씩 다 같이 만났어요. 자주 만나면서 서로의 차이점을 파악하고 이를 극복해 가는 과정이 굉장히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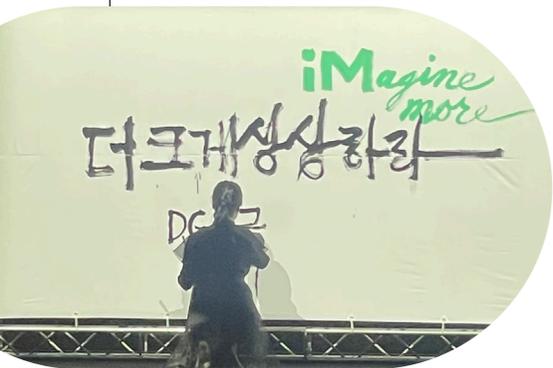
김리아 사실, 저는 하고 싶은 것이 많아서 욕심이 더 났어요. 미디어 아트와 퍼포먼스를 결합하면 재미있겠다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평소 시나리오를 구성할 때 기승전결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이번 작업에서도 단순히 멋진 영상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분명한 의미를 담고 싶었어요. <DGB 패밀리데이>에서 선보인 작품은 오현아 예술인의 DGB 슬로건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 열매를 맺는 과정을 미디어 아트로 표현한 작업이었어요. 그걸 통해 DGB 임직원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다면 성공적인 작업이었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도 정말 즐겁게 작업한 프로젝트였어요.

❷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이사상을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김리아 팀워크가 정말 좋았어요. 부족한 부분은 서로 채워주고,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응원해주는 우리 팀의 분위기가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낸 것 같습니다. 리더 예술인이 잘 이끌어 주었고, 기업 담당자와 지역사업 담당자님의 적극적인 지원도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❸ 예술로 사업을 통해 나에게 생긴 변화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오현아 저는 서예가로 주로 평면 작업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번 예술로 사업에서 캘리그래피 퍼포먼스라는 입체적인 작업에 도전하게 되었죠. 이 과정은 개인적으로 큰 도전이었어요.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이해웅 예술인과 김현성 예술인이 발의 보폭 같은 세세한 움직임까지 많은 조언을 해주었죠. 이번 프로젝트가 아니었다면, 이런 퍼포먼스를 배울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동료 예술인들의 응원 덕분에 제가 새로운 영역을 시도할 수 있었고, 제 역량도 한층 더 확장된 것 같아요.



안현복 - '나에게 예술로는 지역 예술의 가능성을 알게 해준 보물창고이다.'

박준우 - '나에게 예술로는 뉴시하는 법을 알려주는 곳이다.'

이혁우 - '예술로는 예술인을 다양한 통로로 연결하는 다리이다.'

오현아 - '나에게 예술로란, 부캐다.'

김현성 - '나에게 예술로는 틀을 깨는 재창조이다.'

김리아 - '나에게 예술로는 기회를 잡는다.'





(주)DGB금융지주 피플&컬처부 류혁하 매니저

Plus Interview

Q 예술로 사업을 통해 얻은 것은 무엇인가요?

가장 큰 수확은 대구의 뛰어난 예술인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번 기회가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대형 기획사와 협업하여 공연을 준비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대형 기획사의 틀에 맞춘 것이지, DGB만의 고유한 콘텐츠라고 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조금 더 힘들더라도 우리만의 콘텐츠를 만들고 싶었고, 이를 위해서는 대구 예술인들과 협업하는 것이 정답이라 생각했습니다. 예술로 사업을 통해 대구 예술인들과 협업할 방법을 찾게 되었고, 그 덕분에 지금의 예술인들과 만날 수 있었습니다.

Q 예술인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가능했던 이유가 있을까요?

지난 수년간 저희 CEO의 인터뷰를 보면, “예술과 함께 발전하는 금융그룹이 되겠다”는 이야기가 자주 등장합니다. 이번 예술로 사업은 그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적합한 계기가 된 셈입니다. 결과적으로 상을 받을 만큼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어요.

Q 예술가들과 협업하며 느낀 점이 있나요?

담당자로서 벅차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예술인들이 시너지를 내며, 정형화되지 않은 새로운 DGB만의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박준우 리더예술인의 역할 덕분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Q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DGB금융지주 직원들과 가족, 시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모습을 보니 담당자로서 너무 뿌듯했습니다. 앞으로도 직원들과 화합할 수 있는 활동을 추진하고, 소상공인 및 예술 관련 활동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Q 활동 종료 이후 어떤 후속 활동이 진행되고 있나요?

박준우 현재 2024년 DGB금융지주의 연말 공연과 2025년 사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 예술인별로 자회사와의 팔로우 비즈니스도 이어지고 있어요.

이해웅 <CEO와 함께, Talk & Art>와 <DGB 패밀리데이>의 성공이 기업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 반응 덕분에 팔로우 비즈니스로 이어지고 있어요. 마술 공연을 기획하면서 DGB인으로서의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 DGB라는 글자를 이용한 브랜딩 마술을 구상했어요. 이런 방식으로 기업에 맞는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이 팔로우 비즈니스로 이어질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Q 예술인의 사회적 역할은 무엇일까요?

박준우 늘 마음속에 ‘아트 이즈 올 어라운드(Art is all around)’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즉, 예술은 늘 우리 가까이에 있는, 특별하기보다는 일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웅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예술인의 역할이 아닐까 싶어요. 이번 사업을 통해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모습을 보며 말할 수 없는 성취감을 얻었어요. 기회가 된다면 내년에는 <DGB 패밀리데이>를 더 크게 개최하고 싶어요.



Q 다시 예술로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면 어떤 결과물을 내보고 싶으세요?

김현성 직원들이 직접 공연의 주체가 되고, 저희가 공연에 필요한 연기, 퍼포먼스, 노래 등을 가르쳐주는 과정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더 나아가 지역 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다면 더욱 의미 있는 프로젝트가 될 것 같아요.

오현아 서예 작업은 보통 혼자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상대적으로 고립되기 쉬워요. 그래서 서예의 가치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어요. 더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새롭게 쓰이기를 바라요.

(주)DGB금융지주와 예술인이 함께한 작업들



예술 체험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리더예술인 손현진(연극)

참여예술인 김상훈(연극), 마혜선(음악), 박정은(미술), 오승희(음악)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 운영

리더예술인 박정하(음악)

참여예술인 나재희(무용, 연극), 백창하(연극), 오승희(음악), 이해웅(연예)



브랜딩을 위한 기업 명칭 홍보와 DGB 패밀리데이 행사 운영

리더예술인 박준우(음악)

참여예술인 김리아(미술), 김현성(음악, 연극), 오현아(미술), 이해웅(연예)

슬로건에서 공감으로 연결고리가 되는 법

#조직문화개선

#임직원대상

#사내인식_제고_캠페인

#웹툰

#영상

#클래스

주식회사 케이티알파

KT알파 + 예술로 사업

KT알파는 예술로 사업의 가장 오랜 파트너 중 하나다. 무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술로 사업과 함께하며 예술을 일상의 언어로 받아들이고, 기업문화 속에 부드럽게 녹여왔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의 감각적 유대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 기업에게 예술로 사업은 단순한 프로젝트 그 이상이다.

KT알파와 예술로 사업의 여정은 다양한 사내 프로그램에서 시작되었다.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예술 체험 활동, 원데이 클래스, 사내 캠페인 콘텐츠 제작 등 예술을 낯설고 특별한 이벤트로 만드는 대신 임직원의 일과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2024년에는 KT알파의 새로운 슬로건인 <Basic Must>를 주제로 예술인들과 협업했다. '기본이 곧 필수'라는 메시지를 콘텐츠에 담아,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그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예술인들이 프로젝트에 참여했고 임직원들이 직접 손으로 만드는 원데이 클래스도 함께 진행되었다. 예술의 물성이 직장이라는 공간을 새롭게 환기시키는 순간이었다.

2023년에는 <나를 찾아서>를 주제로 '자화상 그리기'와 '일상 속 소중함을 찾는 사진 클래스'가 열렸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평범한 하루의 감도를 높이는 시간이기도 했다.

KT알파 예술로 사업의 중심에는 기업문화팀의 김동현 과장이 있다. 그는 5년째 이 사업을 담당하며, 기업과 예술 사이를 오가는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해왔다. 오랜 시간 예술로 사업에 참여하며 쌓은 이해와 감각은 해마다 새로운 예술인들에게도 든든한 안내자가 되어주었다. 덕분에 예술인들은 기업의 요구를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고, 예술 활동이 실제로 조직문화에 스며들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졌다.

2024년에는 정지현(미술) 리더예술인을 비롯해 김수연(미술), 이재호(미술), 최샘이(연극), 하이정(음악) 참여 예술인이 함께했다. 연극, 미술, 사진, 문학, 음악까지 해마다 다양한 장르의 예술인들이 KT알파의 문을 두드리고, 기업 안에서 예술이 자라날 수 있는 온기를 나누고 있다.

만남 사람

기업·기관 김동현 주식회사 KT알파 기업문화팀 과장

리더예술인 정지현(미술)

참여예술인 이재호(미술)

KT알파

KT알파는 1991년 KT하이텔에서 출발해 2000년대 이후 IT 트렌드 변화에 맞춰 인터넷 포털 '파란' 서비스와 모바일 App 사업, 2010년대부터는 콘텐츠, ICT 사업과 함께 T커머스 사업을 통해 디지털 플랫폼 전문 기업으로 한 단계 도약하고 있다. 현재 국내를 대표하는 홈쇼핑 채널인 'KT알파쇼핑'을 운영하며 TV-커머스 산업의 패러다임을 선도하고 있다. KT알파는 워라밸이 있는 기업문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며, 2017년 여가친화기업 인증 및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수상, 2020년 노사문화대상 대통령상 수상, 2022년 가족친화우수기업 대통령상을 수상하며 대내외에 이름을 높이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현, 정지현, 이재호

KT알파는 20-30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워라벨(Work Life Balance)'과 조직문화에 대한 인식 차이를 좁히기 위해 사내방송, 조직문화 개편, 사내 이벤트, 문화활동, 복지 등 조직문화의 융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런 노력은 단순한 분위기 개선을 넘어, 조직문화 활성화를 통한 업무 효율 향상과 애사심 고취라는 목표를 향하고 있다. 이를 위해 KT알파는 기존의 방식 대신 예술인이 함께 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접근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예술로 사업에 지원했다. KT알파는 팀원과 팀원, 부서와 부서, 나아가 조직 전체의 모든 임직원이 공감하고 함께할 수 있는 예술적 접근과 해결 방안을 기대하며 예술로 사업을 진행했다.

예술인은 기업의 니즈와 예술인의 재능이 맞물리는 지점을 찾아서 실질적 성과를 남기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모든 팀원이 긴밀하게 협업한 방식과 일부 팀원이 중심이 되어 리드한 방식, 두 가지 협업을 병행했다. 이 과정에서 각각의 방식이 지닌 장단점을 체감할 수 있었고, 향후 협업 방식에 대한 고민의 밑거름이 되었다. 해를 거듭할수록 매끄러운 운영과 원활한 소통을 바탕으로 좋은 팀 문화를 만들어가는 KT알파의 담당자와 예술인을 만났다.



KT알파는 예술로 사업과 인연이 깊은 기업인 것 같아요!

김동현 저희 기업문화팀의 목표는 단순히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데 그치지 않아요. '워라벨'이 조화롭고, 동료들 간에 화합이 잘되고, 격 없이 소통할 수 있는 문화, 그런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어서 결국엔 '일을 잘하는 회사'를 만드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직원들이 일에 더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예술적인 자극도 받으며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예술로 사업을 매년 꾸준히 지원하고 있어요. 여러 번 참여하니까 이제는 저희만의 방향성도 생기고, 예술인들과의 호흡도 훨씬 능숙해졌어요.

우선 저희는 사내 클래스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어요. 예술인들과 임직원이 교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식이 바로 이 '클래스'인 것 같아요. 클래스의 커리큘럼도 많이 고민해요. 아무래도 직장인들은 따로 예술적 경험을 할 기회가 적어서 소소하게 나만의 소지품을 만든다든지, 집에 전시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고 싶어 하는 등 체험에 대한 니즈가 있어요. 그 욕구와 예술인들의 재능이 만나는 접점을 계속 찾아왔어요. 2024년에는 <키링에 색연필로 그림 그리기>, 작곡 앱을 이용해 <벨소리 만들기> 같은 클래스를 진행했는데 반응이 참 좋았어요.

또 기업문화팀에서는 조직문화 캠페인을 사내에 잘 스며들게 하는 일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술인들과 함께 캠페인 영상이나 웹툰 같은 콘텐츠도 제작했죠. 이 과정에서 예술인들이 기획부터 완성까지 깊이 관여해주시니까 콘텐츠의 완성도도 높고 직원들의 반응도 훨씬 좋았어요. 예술로 사업을 통해 저희가 기대하는 성과는 단순히 '예쁘고 재미있는 결과물'이 아니라, 그걸 통해 조직 안에 어떤 새로운 공감이거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거든요.

예술인이 KT알파와 협업을 결정한 이유는?

정지현 저는 KT알파가 지원서에 기업 소개와 이 사업에서 기대하는 바를 정말 성실하고 자세하게 적어주신 게 인상 깊었어요. 예술로 협업사업을 이전에 두 차례 경험하면서 정해진 기간 안에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하는 경우, 사업의 목표와 니즈가 명확한 편이 좋다고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2024년 KT알파의 캠페인 슬로건 내용도 공감되는 부분이 많았어요.

이재호 저는 그림책 작가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고 있어요. 예술로 사업 첫해에는 NGO 단체와 캠페인 작업을 했고, 두 번째 해에 KT알파와 협업사업을 진행했어요. 첫 해의 캠페인 작업이 재미도 있었고 의미도 컸어요. 그 경험 덕분에 '더 많은 사람들과 예술적인 활동을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프리랜서로 일하며 혼자 작업할 때가 많은데 기업과의 협업은 그런 일상에 신선한 자극이 되기도 해요. 작업을 통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보람이 크죠. 그런 의미에서 KT알파와의 작업은 저에게도 좋은 기회였어요.

❶ 캠페인 슬로건 '베이직 머스트(Basic Must)'를 소개해 주세요.

김동현 2024년 저희 KT알파의 조직문화 캠페인 슬로건은 베이직 머스트(Basic Must)였어요. 이건 모든 임직원이 회사생활 속에서 '기본'을 다시 한 번 되새기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야말로 조직을 건강하게 만드는 첫걸음이니깐요. 말 그대로, 기본은 필수!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재호 저는 이 슬로건을 바탕으로 웹툰을 제작했어요. '알파 농장' 주식회사라는 재치 있는 설정을 가지고 '캐티 사원'과 '알파 팀장' 등의 캐릭터를 만들어냈죠. 회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을 유쾌하게 풀어가면서도 캠페인의 핵심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녹여내고자 했습니다.



2024년 베이직 머스트 웹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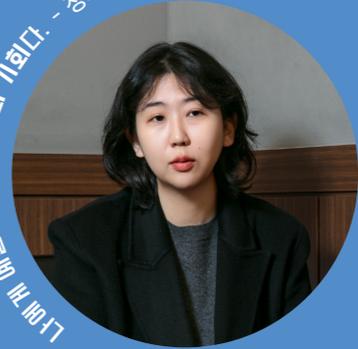
KT알파의 베이직 머스트 (8대 행동양식)



2019년 예술인 협업
몸의 노래 스트레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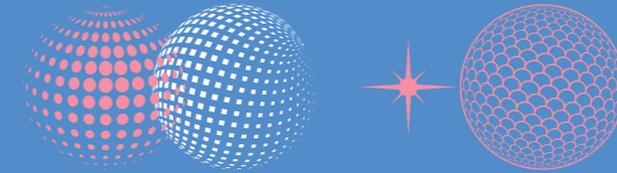
김동현 - '기본'은 배움이다.



정지현 - 사회화의 기쁨이다.



이재호 - 예술로는 틀림 없는 시작점이다.



2019년 사회공헌 활동



2020년 예술인 협업 사내 캠페인



주식회사 KT알파 기업문화팀 김동현 과장

Plus Interview

❶ 캠페인 작업은 개인 작업 할 때와 어떤 점이 다른가요?

이재호 개인 작업은 제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자유롭게 풀 수 있지만, 캠페인은 목적이 분명한 프로젝트라 기업에 대한 이해가 먼저였어요. 메시지의 맥락을 파악하려고 노력했고, 스토리도 혼자 결정하지 않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으며 작업했습니다.

❷ 직원들의 피드백은 어땠어요?

김동현 '캐티'랑 '알파' 캐릭터를 잘 만들어 주셔서 웹툰 외에 인형극에서도 활용했어요. 두 캐릭터가 토크쇼처럼 농담도 주고받으며 '베이직 머스트'의 행동 지침과 성공 사례를 소개했어요. 귀엽고 재미있다 보니 직원들이 더 쉽게 받아들이고 반응도 좋았습니다.



2018년 사가 작곡 및 공연

❸ 리더예술인으로서 가장 신경 쓴 부분은?

정지현 처음 리더를 맡다 보니 너무 큰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해야 할 것들을 놓치지 않고 누군가 소외되는 멤버가 없도록 하자는 생각으로 역할에 임했던 것 같아요. KT알파의 슬로건 '베이직 머스트'처럼요. 멤버들이 모두 협조적이고 의욕적으로 함께 해주셨어요. 장리의 차이가 오히려 더 서로 궁금하게 하고 몰랐던 걸 새로 알아가는 계기가 되기도 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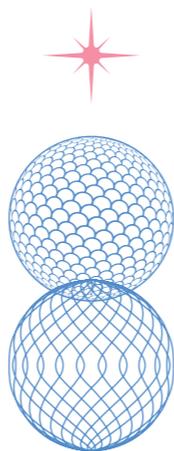


2017년 예술인 미술 클래스

❹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얻은 것이 있다면?

정지현 이번에 대기업의 조직 문화를 직접 접할 수 있었던 게 큰 배움이었어요. 프로젝트를 만들어가는 커뮤니케이션 과정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습니다.

이재호 저에게는 예술의 확장을 경험한 계기였어요. 기존엔 그림을 상품화하는 정도에 머물렀다면 이번엔 캐릭터로 미술품도 만들고 영상 작업까지 함께하면서 할 수 있는 게 훨씬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



❶ 기업 담당자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저는 매년 새로운 예술인들과 만나면, 우선 그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들으려고 해요. 다들 열정도 크고 좋은 아이디어도 많지만 조직의 제도나 리소스와 안 맞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들을 한 번씩 정리해서 저희 조직과 접점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율해왔던 것 같아요. 예술인들의 생각을 존중하면서도 현실적인 부분을 함께 이야기하는 식이죠. 다른 기업 담당자 분들과 이야기해보면 때로 너무 구체적인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아이디어나 영감을 얻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게 훨씬 건강한 방식이라고 봅니다.

❷ 예술인들과의 협업에서 개인적으로 느낀 점이 있다면요?

예술인들은 각자의 재능은 물론, 행정이나 마케팅까지 능숙한 분들이 많아요. 어떤 면에서는 일반 직장인보다 더 치열하고,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자극을 받은 해요. 회사 안에 있으면 쉽게 접하지 못하는 다양한 삶의 방식이나 사회의 단면을 예술인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배우고 느낄 수 있어서 예술로 사업을 담당하게 된 건 제게도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❸ 예술로 사업이 궁금한 다른 기업에 조언을 해 주신다면?

예술로 사업은 단순히 예술인이 기업에 용역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예술인들이 회사와 소통하면서 새로운 영감도 얻고, 또 뭔가 배워가는 경험이 되면 좋겠다고 늘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선 브랜딩이나 클래스 운영 같은 니즈가 있을 수 있지만 예술인들에게도 어떤 성장이 가능할지, 이 프로젝트가 사회적 가치를 더할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하며 참여하면 더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거예요.

주식회사 KT알파와 예술인이 함께한 작업들



임직원 대상 예술적 교양 증진과 선진화된 조직문화 만들기(2022년 고용노동부 주관 일생활 균형 공모전 우수상 수상)

리더예술인 김희정(건축)
참여예술인 김민주(음악), 김인희(음악), 김효진(연극), 한창호(무용)



임직원 교양 증진과 조직문화 개선 워크숍

리더예술인 정기훈(미술)
참여예술인 YOUNJULIEINSUN(미술), 강우람(연극), 유수진(미술), 장명훈(사진)



베이직 머스트 캠페인 홍보 웹툰, 영상 제작 및 워크숍

리더예술인 정지현(미술)
참여예술인 김수연(미술), 이재호(미술), 최샘이(연극), 하이정(음악)

PART 2

올림터



사회가 함께 공유하는 올림

따뜻한 예술 활동으로 우리 사회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올림을 전합니다.

092

정답보다 질문, 나를 발견하는 시간
과천고등학교

100

우리 생애 최고의 뮤지컬
마포푸르메직업재활센터

108

뚝자리를 펴면 마법 같은 하루가 시작돼요
사단법인 여울돌

116

고립에서 공생까지 청년과 함께 걷다
사단법인 푸른고래리커버리센터

124

마음에 닿는 메시지, 지구를 위한 올림
기후위키 협동조합

정답보다 질문, 나를 발견하는 시간

#융합교육

#예술경험

#전시

#연극



과천고등학교 누리집

과천고등학교

만남 사람

기업·기관 노진영 과천고등학교 교무부장

리더예술인 이은아(미술, 연극)

참여예술인 신하정(미술)

과천고등학교

문화와 교육의 도시 과천. 교육친화적인 도시 한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과천고등학교는 고교학점제와 AI 정보교육, 예술 및 체육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미래형 교육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과천고는 2024학년도 기준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AI 정보교육 중심학교, 예술중점학교, 체육교육과정 특성화학교 등 다방면의 선도 사업을 수행 중이다. 이와 같은 교육과정은 과천시가 '과천미래교육지구' 및 '고교학점제 선도지구'로 지정된 지역적 이점을 적극 활용한 결과로,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 인프라의 결실이기도 하다. 특히 교사들은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중심으로 수업 및 평가 방식 개선에 주력하고 있으며, 학생 맞춤형 수업을 실현하고자 지속적인 연구와 실천을 이어가고 있다. 지역 기관들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 자율과정 및 융합형 교육과정 운영 역시 주목받고 있다.

과천고등학교의 예술로 사업 <마음 속 마음 프로젝트>

과천고등학교 노진영 교사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건, 지식을 넘어 삶을 지탱해주는 정서적인 힘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힘을 길러주는 가장 좋은 방식은 바로 예술이라고 믿는다. “누구나 자신만의 영역에서 예술가가 된다면, 삶을 좀 더 따뜻하고 단단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는 그런 신념으로 융합교육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지역 미술관 등과 직접 협업을 타진하며 예술로 사업을 처음 알게 되었다. 2019년 과천 중앙고등학교에서 예술로 사업에 처음 참여한 후, 과천고등학교로 부임해 2021년, 2023년, 2024년에 연이어 참여하고 있다. 또, 그는 교육부의 2022 개정 교육과정 연구진으로 참여해 예술인과 학생들이 함께 한 생생한 예술적 경험을 교육과정 문서에 녹여내 교과서를 집필하고, 교육 연구 내용을 전국 학교에 소개했다.

2024년 과천고등학교의 예술로 사업 <마음 속 마음 프로젝트>는 불안이라는 감정에서 출발했다. 전시, 공연, 낭독극 등 다양한 예술 형식을 경험하는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은 스스로 작가가 되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았다. ‘불안’을 주제로 예술적으로 풀어내는 과정에서 예술인과 함께 심리지표를 예술 언어로 새롭게 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실험하고, 미술창의반과 연극반이 드로잉 전시와 공연, 영화를 선보였다.

2023년의 주제는 <아티스트북 프로젝트>로 책의 형태, 구성, 의미를 다양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각 예술가의 작업 방식과 기획 아래 자신만의 책을 만들고 전시했다.

현재 과천고등학교의 예술로 사업에는 이은아(미술, 연극) 리더예술인과 강다민(문학), 민정희(연극), 신하정(미술) 참여예술인이 참여하고 있다.



(왼쪽부터) 노진영, 신하정, 이은아

과천고등학교 미술실은 학교 본관과 조금 떨어진 별도의 건물에 자리한 독립적이면서도 넉넉한 공간이다. 널찍한 공간과 미술 작업을 하기 좋은 큼직한 작업대, 손을 씻을 수 있는 개수대, 그리고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아트월, 한쪽에는 '아지트'라고 불리는 아늑한 아트 라이브러리 공간이 있다. 원래는 창고로 쓰이던 이 공간을 예술인들과 학생들이 함께 지금의 모습으로 탈바꿈시켰다고 한다. 과천고등학교 미술실에서 인터뷰가 있던 날, 반가운 소식도 함께 전해졌다. 예술로 사업과 융합교육 과정을 진심으로 이끌어 온 노진영 교사가 장학사로 발령을 받은 것이다. 그간의 노력과 연구의 결과였다. 함께했던 이은아, 신하정 예술인도 진심 어린 축하 인사를 건넸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노진영 과천고등학교 미술교사 노진영입니다. 학생들의 융합교육을 위해 예술로 사업을 진행했고, 2022 교육과정 연구진으로 교과서 집필에 함께하고 저희 학교 프로젝트 사례도 실제 예로 소개했습니다. 2025년에는 장학사로 발령을 받아, 교육과정 전반에 더 깊이 있게 연구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신하정 저는 회화 작업하는 작가입니다. 저는 예술로 사업에 2014년부터 참여해 왔어요. 과천고등학교에서 4년째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서 이젠 제 학교처럼 익숙하고 정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은아 저는 연극을 주로 하다가 예술로 사업을 하면서 활동 영역이 자연스럽게 확장되었습니다. 디지털 미디어, 퍼포먼스 등 다원 예술 분야에서 다양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을 위한 예술로 사업은 어떻게 진행됐나요?

노진영 제가 처음 예술로 사업에 참여한 건 2019년이었어요. 그때 진행한 '예술가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나 관심사, 지역과 관련된 주제를 스스로 정해 1년 동안 프로젝트를 진행한 뒤, 갤러리에서 전시까지 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드론 영상, 입체 작품 등 다양한 결과물이 나왔고, 그 과정을 엮어 책자도 만들었죠.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이 작가가 되어 자신의 이야기를 예술로 표현해 보는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이 특별한 경험은 대입에도 실제로 큰 도움이 되었어요. 학생들이 꿈꾸는 분야에 녹여내어 특별한 포트폴리오가 되기도 하고, 실제 예술을 전공하게 된 경우도 있어요.

과천고의 예술로 사업 역시 학생들이 작가가 되어 다양한 예술적 경험을 직접 표현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과 예술가들 사이에 예술적 언어를 통한 교감이 매우 중요했어요. 예술가들이 학생들과 함께하면서, 오늘 있었던 일이나 시험을 보고 느낀 감정, 친구와 다툼 이야기 같은 일상적 이야기를 들어주고 학생들의 삶에 함께하는 거죠. 학생들은 평소의 학교생활과는 다른, 더 자유롭고 색다른 예술적 시각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음 속 마음 낭독극



과천고등학교 예술로 사업을 소개해 주세요.

신하정 과천고 예술로 사업은 매년 조금씩 주제를 달리해서 진행했어요. 2022년과 2023년에는 주로 공간의 변화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미술실 내부의 공간을 새롭게 바꿔서 예술적으로 환기하는 프로젝트였어요. 학생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아트월을 꾸미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낙서판과 그래피티월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예술 도서관도 만들었습니다.

이은아 2024년에는 아이들의 내면에 초점을 맞춰 미술, 연극 등 세부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생들이 자신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고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죠.

학생들과의 예술 작업은 어떠셨어요?

신하정 세대 차이는 확실히 느껴요. 그런데 사실 그 세대 차이도 해마다 더 명확히 느껴져요. 시 이전과 이후 세대가 또 다릅니다. 학생들도 성장기이기 때문에 1학년과 2학년 때, 1 학기와 2학기 때의 반응이 달라요. 아이들과 오랜 기간 함께하면서 다양한 면모를 보게 되고, 저희의 관점에 따라서 아이들을 만나는 온도나 정서적인 느낌도 많이 달라졌어요. 그런 다면적인 부분이 참 흥미롭습니다.

이은아 저는 낮을 많이 가리는 성격이라 아이들과 느긋하고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는 데 익숙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저 역시 어린 시절이 있었으니까, 그때 제가 무엇을 원했는지 떠올리면서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고 노력했죠. 주로 삶을 바라보는 다른 관점을 제시하려고 노력해요. 학생들이 집과 학교만 오가는 시계추처럼 반복하는 일상에서는 얻기 힘든 시선들을 프로젝트 안에서라도 최대한 다양하게 경험하게 해주고 싶어요. 아이들이 좀 더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이끌어 나가도록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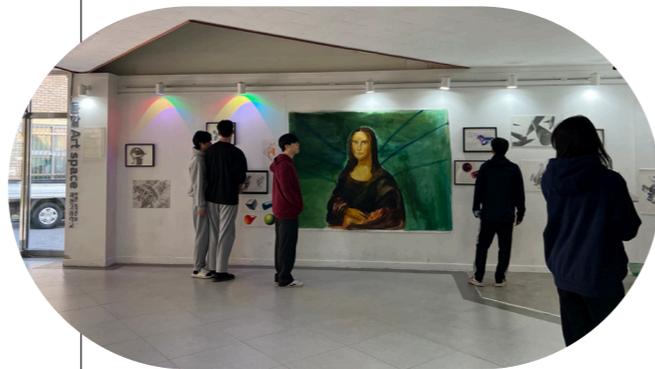
신하정 저희의 기본적인 목표는 학생들과 재미있는 예술 활동을 하면서 생각을 자유롭게 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곁에서 보면, 아이들이 많이 지쳐 있고 무기력하거나 불안한 모습이 느껴져서 안타깝기도 했어요. 그래서 2024년에는 아이들의 내면의 고민을 주제로 선택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아이들이 겪고 있는 심리적 격변이 더 잘 보였던 것 같아요. 아이들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공감할 수 있었어요.



노해린 지구온난화



정연수 먼지의 모형



다빈치 오마주 전시 장면



마음 속 마음 프로젝트 학생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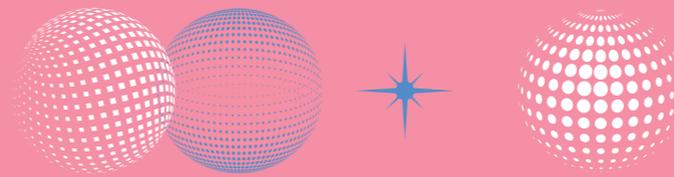
신하정 - '다이어리' 프로젝트를 만드는 나에게 예술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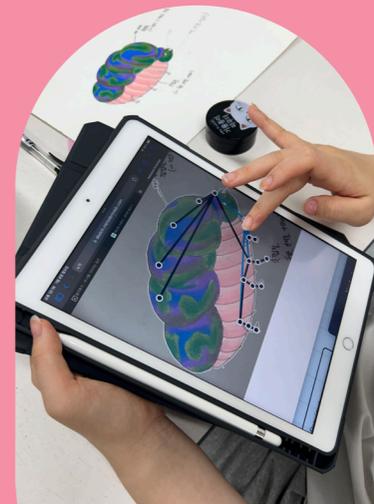
신하정 - '다이어리' 프로젝트를 만드는 나에게 예술로는



이은아 - '다이어리'를 겪어낸 나에게 예술로는



아티스트북 프로젝트- 전시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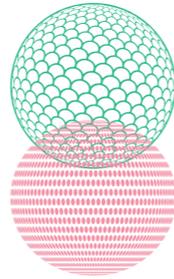
❶ 혹시, 학부모님들의 걱정은 없었나요?

노진영 우리나라 고등학교는 아무래도 학생들의 진로와 입시가 가장 큰 관심사잖아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제 수업이나 동아리 안에서 활동들을 이어나갔어요. 그리고 이런 예술 활동 경험들을 학생들의 생활기록부에 꼼꼼히 반영했죠. 예를 들어 천문학에 관심 있는 학생은 별자리 연구를 예술적으로 표현하고, 드론에 흥미가 있는 학생은 드론을 활용한 작품을 만들었어요. 이 경험들은 아주 특별해서 대입 과정에서 학생들이 자기 자신을 더 잘 어필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됩니다. 실제로 입시와 진로에서도 창의성, 인성, 리더십, 협력 같은 능력이 매우 중요해요. 예술로 사업은 이런 부분에서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니다.

❷ 예술인들에게도 예술로 사업이 특별한 영향을 주었나요?

이은아 저에게는 예술로 사업은 다양한 시각을 만나는 소통 창구입니다. 이 사업에 참여하면서 제 자신 안에 숨겨진 다양한 가능성을 새롭게 발견했고,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진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전엔 몰랐던 제 모습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신하정 예술로 사업에서의 프로젝트가 제 개인 작업에도 큰 영향을 주고, 실제로 개인 작품과 연계해서 발전시키기도 했어요. 예술로 사업이 예술가의 복지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예술가로서의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는 특별한 경험입니다.



❸ 노진영 선생님은 그간의 연구를 인정받아 장학사가 되셨어요. 축하합니다!

노진영 감사합니다(웃음). 저는 예술이 아이들이 인생을 걸어가는 데 꼭 필요한 마음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고교학점제를 연구하는 교육과정 부장을 4년 하고 올해 교무부장을 맡았는데, 지금의 교육이 진짜 필요로 하는 건 바로 정서적인 힘이라는 걸 더 확실히 느꼈어요. 이제는 줄 세우기 교육이 아니라, 아이들이 각자가 자기만의 나침반을 들고 진로를 찾아갈 수 있도록, 내면의 힘을 길러주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예술이 바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어요. 학생들이 살면서 어려움을 만날 때, 예술적 경험이 그 마음의 힘으로 작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술적 창작 경험과 분야 간 융합이 우리나라 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중요한 해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티스트 북 프로젝트- 전시 설치

과천고등학교와 예술인이 함께한 작업들



학교 미술실 공간 재구성(아트월, 낙서장), 아트 라이브러리 조성

- 리더예술인 신하정(미술)
 참여예술인 김병준(미술), 류경인(연극), 이은아(미술, 연극), 조혜진(미술)



예술로 사업 공로상 수상, 아티스트 북 프로젝트

- 리더예술인 신하정(미술)
 참여예술인 강다민(문학), 김병준(미술), 이은아(미술, 연극)



미술창의반의 드로잉 전시와 연극반 공연

- 리더예술인 이은아(미술, 연극)
 참여예술인 강다민(문학), 민정희(연극), 신하정(미술)

우리 생애 최고의 뮤지컬

#발달장애인_예술활동

#다원예술

#연극

#미술

#음악



아트상품
아텐토 스토어

마포푸르메직업재활센터

만남 사람

기업·기관 김재일 마포푸르메직업재활센터 센터장, 최광희 팀장, 안효성 사원

리더예술인 심현주(연극, 연예)

참여예술인 서현진(미술), 조규혜(연극)

마포푸르메직업재활센터

마포푸르메직업재활센터는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의 직업적 능력을 개발하여 경제주체로서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호와 고용을 동시에 지원하는 단체다. 마포푸르메직업재활센터에 출근하여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적게나마 수입을 얻고, 사회와 일을 자신의 속도로 조금씩 배워가는 이들을 이곳에서는 '이용인'이라고 부른다. 지금은 스물네 명의 이용인과 이들을 돕는 지원인력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 마포푸르메직업재활센터의 주된 정체성은 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보호 작업시설'이다. 물론 단순 작업 위주이고, 수입이 생계를 해결하거나 경제적 자립을 이룰 정도는 아니지만 성인이 된 중증 발달장애인이 한 사람의 성인으로서 마땅한 권리와 의무를 배우며 직업 철학을 실천하는 곳이다. 포장·임가공이 주된 작업이지만 자체 브랜드인 '아텐토(artntto)'를 통해 장애인의 창작물을 상품화하는 활동도 있다. 'art'와 선물이라는 뜻의 순우리말 '아토'를 합해 발달장애인의 독창적인 그림을 감성 상품으로 재해석한 브랜드이다. 제품에 따뜻한 마음을 담아 사회와 예술, 장애와 비장애를 잇는 메시지를 전한다.

마포푸르메직업재활센터의 예술로 사업 <뮤지컬, 생일파티>

마포푸르메직업재활센터는 직무훈련뿐 아니라 발달장애인들이 일상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정서적 안정을 위해 다양한 문화·여가 활동을 병행해왔다. 개개인의 잠재능력과 직업적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슐런(Sjoelen, 나무 보드 위에서 찍을 홀에 넣어 점수를 내는 스포츠), 독서, 수학, 체육, 연극활동 등의 동아리 활동부터 미술치료 같은 사회적응 프로그램, 영화 관람 등 외부 활동까지 폭넓게 진행된다. 이 가운데 디자인 브랜드 '아텐토(ART'NTTO)'는 미술활동 과정에서 탄생한 대표적 성과이다. 이런 여가활동의 기반을 더욱 넓혀준 것이 예술로 사업이었다. 여러 분야의 예술인들이 꾸준히 센터에 방문해 이용인들과 함께 미술활동을 진행하며 이용인들의 호응과 정서 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2024년에는 김재일 센터장의 아이디어로 이용인 전원이 참여하는 연극 활동이 기획되었고, 마침내 심현주(연극, 연예) 리더예술인과 서현진(미술), 서형선(음악), 이청오(연극), 조규혜(연극) 참여예술인은 이용인 모두와 함께 뮤지컬 <생일파티>를 무대에 올렸다.

이 공연은 센터의 모든 이용인(발달장애인)이 빠짐없이 참여한 첫 무대로 그 자체로 특별한 의미를 지녔다. 더 나아가 '마포구 가을문화 축제'에서 공연을 선보이며 큰 호응을 얻었고 지역사회와 발달장애인 간의 상생 가능성과 새로운 형태의 예술 교육의 확장 가능성을 보여준 뜻깊은 사례이다.



(왼쪽부터) 최광희, 안효성, 김재일, 심현주, 조규혜, 서현진

오전 9시 30분, 마포푸르메직업재활센터의 아침은 어느 직장처럼 활기차다. 시끌벅적한 웃음 소리와 밝은 인사가 작업실을 채우며 하루의 작업이 시작된다. 포장지를 접고, 물건을 나르고, 간단한 그림을 그리는 일 등 작업은 단순하지만 쉽사리 속도가 붙지는 않는다. 어떤 이는 시종 일관 열심이지만, 또 다른 이는 금세 다른 곳에 관심이 옮겨간다. 이곳에서 일하는 이들은 청년 지적발달장애인들이다.

마포푸르메직업재활센터에서 이용인들과 함께 울고 웃었던 예술인 중 세 명의 예술인이 인터뷰를 위해 몇 달 만에 센터를 다시 찾았다. 이용인들의 얼굴에 오랜 친구를 만난 듯 반가움이 가득하다.



마포푸르메직업재활센터를 소개해 주세요

김재일 저희는 일반 기업에 취업하기 어려운 중증 발달장애인들이 일과 돌봄을 함께 받을 수 있는 보호 작업시설이에요. 이용인들이 이곳에서 일상생활과 사회적응 훈련을 받고 간단한 작업을 통해 소정의 급여도 받을 수 있죠. 저희는 직업이 단순히 생계나 경제적 자립만을 위한 게 아니라 성인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와 의무를 실현하는 기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곳에선 직업이 갖는 의미를 특히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예술인들은 어떤 계기로 마포푸르메직업재활센터와 함께하게 되셨나요?

심현주 리더예술인 심현주입니다. 저는 공연과 축제를 기획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2017년 발달장애 아이들 대상 프로그램을 진행한 이후, 참여형 공연을 꾸준히 기획해 왔어요. 마포푸르메직업재활센터는 오랜 호흡으로 소통하는 방식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 참여하게 됐습니다.

조규혜 저는 주로 일상 공간에서 연극 작업을 해왔어요. 저희 동네에 장애인 기관들이 많아서 장애 예술에 대한 궁금증이 늘 있었거든요. 이번 예술로 사업을 통해 제가 직접 극단을 꾸리지 않고도 장애인들과 함께 작품을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참여하게 되었어요.

서현진 공예 디자인 분야에서 '인터랙티브 크래프트'라는 키워드로 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입니다. 사물과 사람, 공간 사이에서 오감을 활용한 다감각적 경험에 관심이 많아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슈를 제가 추구하는 '다감각적 접근법'으로 풀어 나갈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참여했습니다. 사실 이전에는 장애인과의 접점이 거의 없어서 처음엔 두려움도 있었는데 이번 프로젝트를 계기로 장벽이 허물어지고 작업의 폭도 넓어져 뜻깊었어요.

❶ 뮤지컬 <생일파티> 프로젝트는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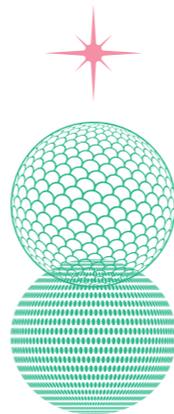
조규혜 처음에는 연극을 계획했어요. 그런데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23명의 이용인들이 모두 무대에 올라 원하는 역할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시간 제약도 있었기 때문에 이용인들과 예술인 모두에게 가장 익숙한 활동을 발전시키자는 논의가 나왔어요. 이용인들이 가장 적극적이고 즐겁게 참여했던 활동이 바로 '노래'였거든요. 마침 함께한 예술인 중에 음악 작업을 하시는 분도 계셔서 자연스럽게 뮤지컬 형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바닷속'이라는 재미있는 공간적 상상력과 이용인들이 두 달에 한 번씩 갖는 생일파티라는 친숙한 행사를 접목해 퍼포먼스를 만들게 된 거죠.

심현주 초반에 센터장님께서 "모든 이용인이 빠짐 없이 즐겁게 참여하고, 꼭 무대에 올랐으면 좋겠다"고 강조하셨어요. 그걸 목표로 공연이 늘어날수록 즐겁고 편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습니다. 프로젝트 내내 '즐겁게'라는 키워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진행했어요.

❷ 센터에서는 왜 공연 프로그램을 원하셨어요?

김재일 발달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역량 차이가 가장 적은 분야가 바로 문화예술입니다. 직업적으로 접근하기에도 좋고, 관심과 흥미도 많아요. 그동안 예술로 사업에서는 주로 미술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아텐토'라는 브랜드로 발전하는 성과를 얻었어요. 그런데 발달장애인들에게 가장 어려운 일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거든요. 연극이 바로 그 관계성을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전에도 연극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코로나로 중단된 경험이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도전한 거죠. 다행히 이용인들도 연극을 참 좋아합니다.

최광희 이용인들이 기도 많고 움직이는 걸 좋아해요. 음악 듣고, 노래 부르는 것도 좋아해서 센터 오픈 초기부터 연극은 꼭 하고 싶은 분야였어요. 이번 예술로 사업을 통해 그 목표를 이루었고 이용인들의 만족도도 정말 높았습니다.



최광희 - '디자인' 구현을 만드는 사람이다. 나에게 예술로는 행복을 만든다.



최광희 - '디자인' 구현을 만드는 사람이다. 나에게 예술로는 세상과 나를 잇는 다리다.



안선진 - '아트'를 만드는 사람이다. 나에게 예술로는 새로운 가능성을 만든다.



조규혜 - '디자인' 구현을 만드는 사람이다. 나에게 예술로는 아름다운 관계를 만든다.



조규혜 - '아트'를 만드는 사람이다. 나에게 예술로는 함께 즐거움을 만드는 일이다.



심현주 - '아트'를 만드는 사람이다. 나에게 예술로는 베풀고 나누는 경험을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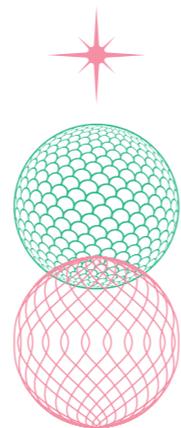
중증 발달장애인 이용인들과 소통하는 것이 어렵진 않았나요?

심현주 이용인들과 함께 바로 공연을 준비한 것은 아녜요. 우선 서로 친해지는 과정이 필요했어요. 저희가 매주 월요일 오전에 활동을 하는데 어느 날 센터 담당자님이 점심시간 후 산책 시간을 함께 하면 좋다고 팁을 주셨어요. 또 이용인들 개인의 성향이나 좋아하는 것을 미리 알려주시고 금방 친해질 수 있도록 미리 조 편성도 해주셨어요. 주말에 어떤 영화를 봤는지, 좋아하는 노래가 뭔지 같은 소소한 대화를 자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친밀감을 쌓았는데 그런 과정이 전체 프로젝트에 정말 큰 힘이 되었어요.

조규혜 이용인 분들의 열린 마음 덕분에 오히려 부담이 많이 줄었어요. 저희가 작은 프로그램을 준비해도 너무나 반갑게 맞아주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셨거든요.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솔직히 표현해주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도 더 쉽게 소통하고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안효성 저는 센터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었고 장애인 관련 일은 처음이에요. 그래서 예술인과 이용인이 처음 만날 때 걱정이 많았어요. 그런데 선생님들께서 일상 속 이야기나 게임처럼 자연스럽게 편하게 소통하며 연습하는 모습을 옆에서 보면서 저도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김재일 장애인 복지 쪽 일을 하는 관계자들은 발달장애인이 연극 공연을 준비하고 무대에 올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다들 경험으로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를 보신 관계자들이 더 놀랐어요. 발달장애인들이 연극을 어떻게 해낼 수 있는지, 어떻게 스스로 표현할 수 있는지 새로운 방법들을 배웠다고 평가해 주셔서 정말 기뻐했습니다.



공연이 지역사회에서도 큰 호응을 얻었다고 들었어요!

김재일 네, 작년에 마침 마포구에서 처음으로 장애문화예술제가 열려서 저희 공연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사실 지역 주민들이나 참석하신 관계자들이 발달장애인들이 이렇게 잘할 줄 몰랐다고 정말 좋은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직업재활센터는 늘 작업만 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몰랐다"고 많이들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단순히 돈을 버는 곳이 아니라 발달장애인들이 어떻게 일상을 살아가고, 또 일반 사회와 어떻게 관계 맺는지 보여드리려는 좋은 기회가 되어서 정말 뿌듯했습니다.

마포푸르메직업재활센터에 예술과 관련된 또 다른 목표가 있나요?

안효성 예술이란 게 각자의 개성과 시각에 따라 다양한 느낌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장애예술이 대중에게 더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김재일 장기적으로는 저희 '아텐토' 브랜드와 이번 공연처럼 콘텐츠를 계속 발전시켜 장애인 문화예술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싶어요. 음악, 미술, 공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장애인들이 직접 참여해 장애 인식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기여하고자 합니다.

마포푸르메직업재활센터와 예술인이 함께한 작업들



별주부전 바탕의 미술 워크숍과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제작

- 리더예술인** 홍은경(문학)
참여예술인 박정희(연예), 신지선(미술), 이도현(미술), 이지은(미술), 전성권(영화)



미술 워크숍 결과물을 활용한 '아텐토' 신제품 가방 제작 및 결과 공유 전시회 개최

- 리더예술인** 김진(미술)
참여예술인 손혜경(미술), 신혜정(미술), 오건훈(음악), 정윤미(연극)



이용인(발달장애인) 모두가 참여한 뮤지컬 <생일파티> 발표

- 리더예술인** 심현주(연극, 연예)
참여예술인 서현진(미술), 서형선(음악), 이청오(연극), 조규혜(연극)

뚝자리를 펴면 마법 같은 하루가 시작돼요

#찾아가는_뚝자리

#장애인식개선

#희귀질환

#동화낭독공연



사단법인 여울들 누리집

사단법인 여울들

만남 사람

기업·기관 박봉진 사단법인 여울들 대표

리더예술인 김수연(문학, 연예)

사단법인 여울들

사단법인 여울들은 희귀질환으로 투병하는 어린이들을 후원하며 아동의 인권과 권익을 대변하는 비영리단체이다. 희귀질환은 치료제가 없거나 치료 정보가 적고, 대부분 다양한 장애를 동반하고 있으며 때로는 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치료로, 가족 구성원 모두가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까지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사회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희귀질환 어린이 가정과 이를 돕고 싶은 사람 사이의 징검다리가 되고자 하는 곳이 바로 여울들이다. 여울은 시내나 강의 폭이 갑자기 줄어들며 물살이 세지는 곳을 말하는 우리말이다. 그 여울목에 놓인 든든한 돌다리처럼, 여울들은 환아후원, 운영후원, 장학후원 등 투명한 기부 시스템을 통해 의료비 지원, 장학 지원, 환경개선 지원, 인식개선 캠페인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한다. 희귀질환이라는 깊은 절망 속에서 부모들이 혼자 고통을 감당하지 않도록, 아이들과 그 가족에게 조금 더 나은 삶과 따뜻한 희망을 건네는 일. 여울들은 그 길을 조용히, 그러나 힘 있게 함께 걷고 있다.

여울들의 예술로 사업 <찾아가는 뚝자리>

사단법인 여울들은 2022년부터 3년째, 예술인들과 함께 <찾아가는 뚝자리> 프로젝트를 이어왔다. 이쯤처럼, 예술인들이 '마법의 뚝자리'를 들고 희귀질환 어린이 가정을 직접 찾아가, 그곳에서 특별한 하루를 펼쳐낸다. 희귀질환 어린이 가정의 어려움은 곧 가족 모두의 어려움이기도 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는 박봉진 대표의 제안에 따라 환우 어린이와 그의 형제자매가 함께 행복한 경험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첫해에는 가족과 함께하는 '소풍'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해는 비행기 티켓과 여권을 준비해 먼 나라로 떠나는 '세계여행'을 주제로, 그리고 세 번째 해는 희귀질환 어린이가 원하는 공간으로 친구와 이웃을 초대하는 '초대'라는 주제를 가지고 희귀질환 가정을 찾았다. 배우이자 동화작가인 김수연 예술인을 비롯해 연극인들이 주축이 되어 어린이들의 환경에 맞는 스토리를 고민했다. 예술인들이 '뚝자리'를 펴면 그곳은 멋진 놀이공원이 되고, 동물원이 되고, 때로는 하와이, 아프리카가 펼쳐지기도 했다. 희귀질환 어린이와 가족들은 예술가들이 펼친 마법의 뚝자리에서 잠시나마 고통과 걱정을 잊고 최고의 주인공이 되어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매해 여울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아 진행한 이 프로젝트는 전국의 희귀질환 가정 10~20곳을 찾아갔고, 때로는 초등학교 통합반의 장애 인식개선 수업으로도 진행된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예술인은 김수연(문학, 연예), 노유나(연극, 연예), 이나리(연극), 이은송(미술), 이은주(연극)이다.



찾아가는 뚝자리 누리집



2023년 예술로 사업 우수사례 인터뷰



여울돌의 <찾아가는 돛자리> 프로그램은 박봉진 대표의 의지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스무살 때부터 봉사에 뜻을 두고 영아원이나 농아원 등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이어오던 중 우연한 계기로 희귀질환 어린이들과 인연이 닿았다. 이후 희귀질환 환아 가정을 돕는 인터넷 카페로 활동을 계속 해오다가, 마음 맞는 지인들과 뜻을 모아 사단법인 여울돌을 설립했다.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희귀질환 아동 가정을 돕기 위함이었다. 단순한 치료비 지원을 넘어, 힘들고 지친 가정의 정서적 치유를 고민하다 유튜브와 네이버 등에서 어린이 동화 오디오북을 운영하는 김수연(KBS 'TV유치원' 21대 하나 언니) 예술인을 섭외하게 되었고, 그 또한 흔쾌히 선한 뜻에 진심으로 동참하면서 <찾아가는 돛자리> 팀을 꾸리게 되었다. 예술이 아이들과 가족에게 따뜻한 쉼표가 되어줄 수 있다는 믿음 아래, 여울돌의 기획사업은 그렇게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❶ <찾아가는 돛자리>는 어떤 활동인지 소개해 주시겠어요?

김수연 말 그대로 돛자리를 하나 들고 찾아간다는 의미예요. 희귀질환 어린이 가정에는 환아를 비롯해 소외되는 형제도 있고, 사실 가족 전체가 외출도 쉽지가 않아요. 공연을 보거나 전시회를 가본 적 없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저희 예술인들이 직접 예술 프로그램을 만들어 그 가정을 찾아가 동화도 낭독하고, 다양한 예술 활동을 함께 나누는 프로젝트가 <찾아가는 돛자리>입니다.

박봉진 첫해에는 '소풍'을 주제로, 돛자리와 소풍 바구니를 선물로 들고 갔어요. 바구니 안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과 체험놀이를 함께 할 수 있는 소품들이 들어 있고요. 다음 해에는 조금 더 나아가 '세계여행'을 주제로 가정별로 여행지를 선택하면 아이들의 여권도 만들고, 비행기 타고 떠나 그 나라의 춤을 배운다든지 하는 퍼포먼스를 예술인과 함께 했어요. 세 번째 해에는 저희가 찾아갔던 가정의 아이들이 호스트가 되어 친구들을 초대하여 파티를 여는 '초대' 콘셉트로 진행했어요. 환아들도 우리 사회의 당연한 일원이라는 인식을 자연스럽게 심어주고 싶었거든요.

❷ 환아 가정에는 맞지 못할 신나는 날이었겠네요.

박봉진 저희가 찾아갔던 가정 중 동현이네가 기억에 남아요. 동현이는 중증 장애를 동반한 희귀질환을 앓고 있어서 보호자의 도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또 경계성 인지장애가 있는 동생이 있었어요. 학교는 다니고 있지만, 두 아이 모두 장애가 있다 보니 어머니께서는 외부인을 집으로 초대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대요. <찾아가는 돛자리>가 그 집에 10년 만에 찾아간 첫 손님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작년에는 저희의 구연동화를 들었던 동생이 그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리고 글로 쓰고 할 만큼 프로그램을 무척 좋아했어요. 인지장애로 인해 학기 초에는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거나 괴롭힘을 겪기도 했는데, 예술로 사업에 참여한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아이가 친구들과 교감하는 기회가 생기고, 학급 발표회에서는 전교생 앞에서 리코더 연주까지 할 정도로 변화했어요.



김수연 정말 기적 같은 순간도 있었어요. 중증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환아의 집에 방문했을 때였는데요. 중증 환아는 일반적으로 인지가 어렵고 반응도 거의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은 형제자매를 위한 시간으로 준비하곤 해요. 그날도 동화를 읽고 있었는데, 이야기의 클라이맥스 장면에서 누워있던 환아가 딱 반응을 보인 거예요. 그냥 우연히 몸을 움직인 게 아니라, '듣고 이해한 반응'이었죠. 극은 계속 이어졌고 모두가 말을 하진 않았지만, 그 순간은 모두가 함께 느꼈던 것 같아요. '너도 듣고 있었구나' 하고요.

도 저는 동화를 쓸 때 생각이 더 많아졌어요. 제 동화를 듣는 아이들 중에는 건강한 아이도 있지만 아픈 아이도 있고, 잘사는 가정의 아이도 있지만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도 있고 편부모 가정도 있어요. 단 한 명이라도 상처받지 않도록,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하고 무궁무진한 어린이들의 이야기가 동화에 담겨야 된다는 사명감을 갖게 됐어요. 이 사업은 저에게도, 함께한 예술인 모두에게도 그런 마음을 남긴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 사업을 진행하며 어려움도 있었을 텐데요.

박봉진 아무래도 자원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찾아가는 돛자리>가 해를 거듭할수록 인기를 얻으면서 부산, 전라도, 충청도, 경기도 등 전국을 돌게 되었거든요. 때로는 행사의 대상이 학교로 바뀌기도 했고요. 예술가분들 입장에서는 예술로 사업에서 약속된 범위를 넘어서는 일정이 많았지만, 정말 봉사하는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임해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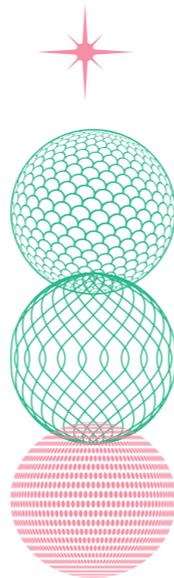
김수연 저희는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았지만, 뒤늦게 신청한 아이들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한 교통비나 숙박비는 여울돌에서 많이 지원해주셨어요. 예술인들은 예술로 사업에서 받은 지원 이상으로 재능을 보태고, 여울돌은 비용을 감당하면서, 이 프로젝트에 마음을 모았어요.

❓ 예술인에게 예술로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는 무엇이었나요?

김수연 예술로 사업이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었지만, 제 예술활동을 통해 환아 가정이 실제로 도움을 받고, 그 삶에 변화가 생기는 모습을 보며 정말 많은 것을 느꼈어요. 여울돌 프로젝트를 하면서, 제가 정말 예술과 희귀질환 가정을 잇는 '여울돌'이 된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예술로 사업은 단순히 예술인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가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소외된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일이라는 걸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해요. 특히 현장에 막 진입한 예술인들이 예술로 프로젝트에 많이 참여해보았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재능이 단순한 엔터테인먼트에 그치지 않고, 이 세상에 꼭 필요한 무언가로 쓰일 수 있다는 걸 느끼는 것, 그 자부심만으로도 예술로 사업은 충분히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 기획사업에 지원하고 싶은 기업이나 기관에 어떤 팁을 주시겠어요?

박봉진 예술로 사업 중에서도 저희 프로젝트 같은 기획사업은 예술인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콘텐츠를 제공받은 대상자들과 예술인이 소통함으로써 서로에게 새로운 동기부여의 기회를 제공해준다고 생각해요. 참여 기관이나 기업은 문화



예술을 통해 해결하고 싶은 고유한 니즈가 있기 때문에 기획사업에 신청하게 되는데요. 기획서를 작성할 때 도움이 될 만한 팁을 드리자면, 첫째, 기관이나 기업이 바라는 변화의 목적이 분명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에 대해 예술인들과 충분히 소통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기업이나 기관은 예술인과 대상자 간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매개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어야 하고, 예술가들이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물리적인 지원도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결국 프로젝트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담기지 않은 결과물은 돈을 주고 살 수도 있겠지만, 진심이 담긴 결과는 결코 돈으로 살 수 없는, 아주 소중한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사단법인 여울돌과 예술인이 함께한 작업들



「소풍」
「10년 만에 문을 열어준다」

- 리더예술인** 최설화(연극)
참여예술인 고경민(연극), 김수연(문학, 연예), 서정연(문학), 이나리(연극)



2023년 예술로 우수사례 선정
「세계 여행」 「희귀질환·장애 인식 개선」

- 리더예술인** 김수연(문학, 연예)
참여예술인 노유나(연극, 연예), 이나리(연극), 이은송(미술)



「초대」
「친구·지역사회 가정 초대」

- 리더예술인** 김수연(문학, 연예)
참여예술인 노유나(연극, 연예), 이나리(연극), 이은송(미술), 이은주(연극)

고립에서 공생까지 청년과 함께 걷다

#자립준비청년

#회복

#리커버리에술단



(사)푸른고래리커버리센터 누리집

사단법인 푸른고래리커버리센터

만남 사람

기업·기관 김정진 사단법인 푸른고래리커버리센터 사무국장

리더예술인 김지애(음악)

참여예술인 서영주(연극)

사단법인 푸른고래리커버리센터

사단법인 푸른고래리커버리센터는 정서적·상황적 어려움으로 사회적 고립 위기에 놓인 청년들이 다시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기관이다.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이나 고립은둔청년(은둔형 외톨이) 등 혼자 힘으로 세상과 마주하기 어려운 청년들이 이곳에서 공동체 생활을 경험하며 자립과 공생의 가치를 배운다. 만 18세가 되어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이란 이름으로 사회에 홀로 세워진 청년, 또한 '은둔형 외톨이'라 불리며 스스로 방문을 닫고 사회로부터 스스로 단절한 청년들, 이처럼 사회에서 고립되거나 고립될 위기에 놓인 청년들을 돌보는 '도시공동체'다. 사단법인 푸른고래리커버리센터는 온전한 자립을 위한 가치관을 새롭게 배우고, 공동체 안에서 공생을 배우는 곳이다. '고립에서 자립으로, 자립에서 공생으로'라는 모토로 외로운 청년들에게 품을 내어 주고 있다.

사단법인 푸른고래리커버리센터

(사)푸른고래리커버리센터는 고립·은둔 청년들이 교류를 통해 사회와의 연결점을 찾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싶어 예술로 사업에 참여했다. 예술인은 2016년에 이어 2022년, 2023년까지 미술, 음악, 영화, 퍼포먼스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 워크숍을 진행했다. 6개월간의 워크숍을 마친 크루들은 결과 발표회에서 직접 공연을 하고 관객과 자유롭게 대화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표현하는 경험을 한다. 숨겨진 재능을 발굴하고 용기를 내어 대중 앞에 나서면서, 고립 청년들 스스로가 자신의 가능성을 확인한 무대를 만들었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2023년 예술로 사업의 슬로건은 '새, 숨, 심'이었다. 예술 활동을 통해 '창조적인 심'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시간이었다. 특히, 영화관을 대관해 <몽상망상 영상전>을 상영한 것은 크루들에게도 큰 경험이었다. 주요 활동으로는 리커버리 예술단이 매달 진행하는 워크숍과 아트투어링 프로그램, 그리고 새롭게 참여하는 크루들과 함께하는 웰컴 파티 <오픈 쌀롱>, 결과를 공유하는 <몽상망상 영상전>,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는 <피날레 파티>가 있다.



리커버리예술단 YouTube



(왼쪽부터) 김지애, 김정진, 서영주

푸른고래는 흑등고래의 애칭이다. 흑등고래 사회에서는 갓 태어난 아기고래가 숨 쉬는 법도, 헤엄치는 법도 모르기 때문에 무리의 다른 고래들이 아기고래를 물 위로 올려 숨을 쉴 수 있도록 도와주고, 물살을 일으켜 헤엄치는 법도 알려주며 함께 돌본다고 한다. 상처 입고 병든 고래가 있다면 그 아래에서 함께 받쳐주며 숨을 쉴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존재들. 사단법인 푸른고래리커버리센터는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다. 경쟁 중심의 사회에서 상처 입거나 아직 나아갈 준비가 되지 않은 청년들의 편이 되어주고, 기다려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곁을 지키는 공동체. 이 마음에 공감한 예술인들이 함께 모여, 예술을 통해 청년들의 회복을 응원한다. 푸른고래리커버리센터의 예술로 사업은 고립은둔 청년에게는 물론 예술인들에게도 회복과 삶의 시간이 되었다. 2022년, 2023년 이곳에서 고립 청년들과 함께 <리커버리예술단> 활동을 이어온 김지애, 서영주 예술인이 다시 센터를 찾았다. 김정진 사무국장과 마주 앉은 세 사람. 그들이 만든 시간과 변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뉜다.



❶ (사)푸른고래리커버리센터를 소개해 주세요.

김정진 저희 센터는 2014년,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공동생활 그룹홈 운영을 시작으로, 노숙인 식사를 지원하는 '나들목 바하밥집', 직업 자활 프로젝트 '카페 브룩스', '리커버리아구단' 활동을 이어오다 2022년에 비영리 사단법인 푸른고래리커버리센터로 공식적으로 설립했습니다. 센터에서는 고립은둔 청년의 자아회복, 관계변화, 건강한 삶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에요. 부모님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하고 있고요. 사회에서 관계의 어려움으로 고립을 선택했던 청년들이 용기를 내어 저희 센터 문을 두드립니다. 센터에서는 이분들을 '크루'라고 불러요. 저희의 목표는 크루들의 정서적, 신체적, 관계적, 지적 건강까지 전인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매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크루들이 함께 식사를 준비하고 나누는 '쿠킹런치', 그리고 아마추어 야구단 '리커버리아구단', 예술인들과 함께하는 '리커버리예술단'도 저희 센터의 중요한 회복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❷ <리커버리예술단>이라는 이름이 참 재미있어요!

김정진 예술활동은 우리 센터에서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이에요. 초창기부터 자체적으로 다양한 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해왔고, 그러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로 사업을 알게 되어 자연스럽게 지원하게 됐죠. 예술단이라고 해서 어떤 정형화된 교육을 하는 건 아니에요. 예술인들에게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크루들이 자연스럽게 놀이처럼 접근할 수 있도록 기획한 프로그램이에요.

서영주 예술가든 크루든, 다들 저마다 개성이 있잖아요. 저희는 그 개별성을 중심에 두고 프로그램을 풀어갔어요. 게임의 룰을 빌려오듯, 각자의 색깔을 발견하는 놀이 방식처럼요. 그런 흐름 속에서 청년들이 스스로 자신만의 방식도 만들어가고, 자연스럽게 모두가 동등한 협업자로 서게 돼요. 그렇게 느슨하면서도 편안한 예술적 놀이를 함께하다 보면, 그 안에서 진짜 관계가 만들어지고 회복도 따라오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리커버리예술단>을 '회복과 되찾음을 위한 창조적 삶의 장, 창작 예술놀이 협업단체'라고 소개하고 싶어요.



❶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서영주 저는 배우입니다. 연극이나 영화에 참여하고 연출도 하고 있어요. 특히 장르의 경계를 넘나드는 다원예술에 관심이 많아서, 움직임 극이나 관객 참여 공연 등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작업을 즐겨요. 푸른고래리커버리센터와는 초창기부터 인연을 맺어왔어요. 크루들과 함께 '움직임 워크숍'을 진행하거나 무대 작업도 함께 했어요. 지금은 센터를 졸업한 크루들과 함께 '다큐멘터리 시트콤' 공연을 준비 중이에요.

김지애 저는 밴드 '다브다'에서 기타와 보컬로 활동하고 있고요. 2018년 쯤 서영주 예술인과 인연이 닿아 예술단 활동에 참여하게 됐어요. 2023년도에는 리더 예술인으로 참여했습니다. 미술, 영화, 연극 그리고 음악 등 다원예술 분야가 함께 참여해 각자의 활동 분야로 따로 또 같이 프로그램을 진행했어요. 크루들과 즉흥적으로 가사를 써보거나 스마트폰을 활용해 음악을 만들어보는 등 자유로운 방식으로 작업해요. 각자의 영역은 다르지만, 따로 또 같이, 그런 흐름이 즐겁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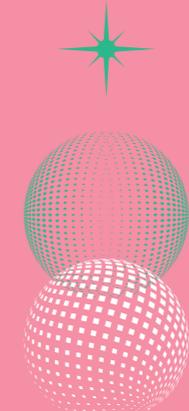


❷ <리커버리예술단>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나요?

김지애 저희가 가장 많이 고민하는 건 "어떻게 하면 함께 즐겁게 놀 수 있을까?"예요. 무언가를 가르친다고보다는, 게임의 규칙을 만들고 방법을 설명하면 크루들이 스스로 알아서 놀고, 또 그 속에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표현해요. 2023년에는 워밍업 프로그램인 '드림그림'을 시작으로, 코로나 시대의 감정을 담은 시각예술놀이 '나의 블루 이미지', 나만의 지도를 만드는 예술 탐험 '나의 길, 나의 맵', 각자의 섬을 공유하는 '릴레이 바캉스', 그리고 크루들이 직접 촬영한 영상을 영화관에서 상영했던 '몽상망상 영상전'까지 다양하게 진행했어요.

서영주 저희 프로그램은 대부분 사소한 아이디어에서 출발해요. 예를 들어 '릴레이 바캉스'는 무더운 여름날 집에만 있는 우리 크루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바캉스를 즐기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시작됐어요. 큰 종이를 한 장씩 들고, 그걸 나만의 섬으로 상상해보는 거예요. 그 섬에는 어떤 풍경이 펼쳐질지, 무엇을 가져가고 어떻게 즐길지, 자신만의 바캉스 레시피를 만들어보는 거죠. 서로 자기 섬을 소개하고, 음악이나 책 정보를 나누면서 각자의 방식으로 공감하고 연결돼요. 어찌 보면 그 섬은, 크루들의 방, 그리고 마음속 고립된 공간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김정진 리커버리예술단의 가장 멋진 점은 각각의 예술 프로그램도 물론 의미 있지만, 그 프로그램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글쓰기가 음악으로, 음악이 연극으로, 연극이 영화로 자연스럽게 확장돼요. 그리고 그 사이에 사람들 간의 관계 같은 무형의 자산이 더해지며 프로그램이 점점 더 깊고 풍성해지죠.



나에게 예술로는 회복의 영감이다. - 김정진



나에게 예술로는 도약의 시간이다. - 김지애



나에게 예술로는 (사회에 대한) 예술의 손기능을 실험하는 기회다. - 서영주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사회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김지애 요즘은 '실패해도 괜찮다'는 이야기를 조금씩 더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이 한 번의 실패로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잃게 될까' 하는 걱정에 움츠러들게 되는 건 여전하거든요. 실패해도 괜찮을 수 있도록,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회적 제도와 분위기가 더 잘 마련되었으면 좋겠어요.

김정진 우리는 인생을 종종 마라톤에 비유하죠. 그런데 마라톤도 가만히 보면, 달리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급수대에서 물도 마시고, 잠깐 쉬기도 하고, 신발끈도 다시 묶고... 심지어 걷는 사람들도 많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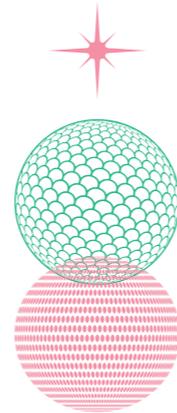
그런데 유독 삶에선 누군가 잠깐 멈춰 서기만 해도 너무 쉽게 '탈락'이라고 말해버리는 건 아닐까요? 그렇게 낙인을 찍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청년들도 자신을 실패자로 받아들이게 되고 점점 더 회복이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결국 우리 사회 전체가 조금 더 여유를 갖고 멈춰 선 사람을 기다려줄 줄 아는 시선을 갖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놀이'와 '회복'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서영주 놀이에서는 모두가 평등해요. 누구도 위에 있거나 아래에 있지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서로를 받아들여지게 되죠. 누군가 음치라고 해도 그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특징일 뿐이에요. 긴장도 자연스럽게 풀리고 오히려 자신을 분출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도 해요. 놀이 안에서 우리는 평등하고, 그래서 더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김지애 저는 사실 아주 내향적인 사람이고, 음악을 만들 때도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크루 분들이 정말 자연스럽게 대담하게 음악을 만들어내는 걸 보고 오히려 제가 한 수 배웠어요. 새로운 걸 시도하는 건 정말 큰 용기잖아요. 그런데 그 용기를 크루 분들이 저보다 더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많은 영감을 받아요. '창조적인 심'이라는 리커버리예술단의 모토처럼, 편안한 창작 안에서 아주 작은 성취감을 느끼고 그게 차곡차곡 쌓이면 어느 순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보이게 되는 것 같아요.

김정진 보통 고립·은둔 청년 지원 사업의 최종 목표는 취업인 경우가 많아요. 경제적 자립이 곧 회복이라고 보기도 하죠. 그런데 저희는 좀 다르게 생각해요. 문제의 시작이 '사회적 고립'이라면, 단순히 개인이 회복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는 자립 이후에도 좋은 관계를 맺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까지가 회복이라고 봐요. 혼자 노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놀면서 관계가 생기고 그 안에서 나도 회복되고, 다른 사람과의 연결도 회복되는 것, 그게 리커버리예술단이 지향하는 진짜 '회복'이에요.



사단법인 푸른고래리커버리센터와 예술인이 함께한 작업들



외부 협력 전시 <동굴전>과 영화제 <우리들의 스마트한 영화제> 개최

- 리더예술인** 서영주(연극)
- 참여예술인** 김지애(음악), 김푸르나(미술), 오재형(음악, 영화), 한기장(연극, 영화)



미술과 음악, 영화, 퍼포먼스 워크숍

- 리더예술인** 오재형(음악, 영화)
- 참여예술인** 김푸르나(미술), 박소연(연극), 지진현(미술), 한기장(연극, 영화)



예술놀이 워크숍, 아트투어링 프로젝트, 콘텐츠 쇼케이스

- 리더예술인** 김지애(음악)
- 참여예술인** 김푸르나(미술), 박소연(연극), 서영주(연극), 지진현(미술)

마음에 닿는 메시지, 지구를 위한 올림

#기후위기

#메시지캠페인

#라이프스타일

#일상의언어



기후위기 협동조합 누리집

기후위기 협동조합

만남 사람

기업·기관 이승희 기후위기 협동조합 팀장

리더예술인 김혜원(연극)

기후위기 협동조합

기후위기 협동조합은 기획자, 디자이너, 활동가가 모여 만든 스타트업이다. 2022년, 유한책임회사로 출발한 기후위기는 더 많은 사람이 함께 활동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2024년에 협동조합으로 전환했다. 시민들과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모험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주로 일상용품을 매체로 활용하여 다양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행동을 촉진하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 행사에 활용된 단체복을 재활용하는 '버라이어티'와 기후 메시지를 담아 새롭게 리디자인하는 실크스크린 워크숍이 있다. 메시지 티셔츠 판매사업은 단순한 '소비자'를 넘어 '캠페이너'가 되고자 하는 개인과 단체, 기업, 모임, 행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체들의 캠페인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워크숍 역시 다양한 모임 및 축제와 협업해 성북누리마실축제, 서울국제환경영화제에서 부스를 운영했다.

기후위기 협동조합의 예술로 사업, <기후위기 라이프>

기후위기는 2023년과 2024년, 2년에 걸쳐 예술로 사업을 진행했다. 처음에는 협업사업으로 매칭되었고 서로의 호흡이 잘 맞아서 두 번째 해에는 기획사업으로 이어졌다. 예술로 사업의 주요 프로젝트는 기후위기의 대표 상품인 실크스크린 티셔츠에 담길 메시지를 만드는 일과 워크숍 프로그램을 함께 기획하고 진행하는 것이다. 2024년 프로젝트에는 김혜원(연극) 리더예술인과 박수진(연극), 신지연(미술), 윤혜진(연극) 참여예술인이 함께 했다. 네 명 모두 각자의 관심사도, 표현 방식도, 좋아하는 것도 달랐지만, 하나씩 시도해보며 그들만의 방식을 찾아나갔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네 가지 모듈이 바로, '키퓌키퓌' - 주어 바꾸기 인사, '키식키식' - 기후위기 시대의 음식 문화를 이야기하고, '키드럭키드럭' - 티셔츠 해체와 재봉, '키적키적' - 감각적인 이미지로 메시지를 만들어내는 작업이다. 기후위기와 관련된 메시지를 직관적으로, 뻔하지 않게 풀어내는 기후위키만의 예술적 접근법이 담겨 있다.



194 - 195



본 전시의 기후위키 스타드 구입 문의

이승희, 김혜원

해 주셔서, 그 덕분에 워크숍 과정이 훨씬 풍성해졌죠. 함께 만든 메시지들 중엔 정말 멋진 문구들이 많아요. 그런 메시지들이 담긴 티셔츠가 실제로 잘 팔리면서 사업 수익으로도 이어졌어요. 무엇보다도 많은 시민들이 이 과정을 통해 기후위기를 더 가까이 느끼고, 자기 이야기처럼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도 이 작업을 통해 예술가들과 함께라면 기후위기 협동조합이 더 다양한 방향으로 확장될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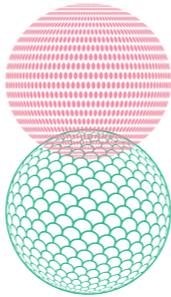
2024년 <기후위기 라이프> 워크숍은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김혜원 2024년에는 다섯 개의 커뮤니티와 함께 워크숍을 진행했어요. 각자의 생활 속에서 의미 있는 생각들을 통해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커뮤니티들이죠. 예를 들면, '강화유니버스는 강화도에서 활동하는 지역 청년들 모임인데, 이분들과는 "사라지는 삶, 살아가는 섬"이라는 메시지를 함께 도출했어요. '사이클러블 코리아'는 자전거를 일상의 교통수단으로 더 널리 쓰이게 하자는 캠페인을 하는 팀이고, '에코미디'는 자연생태나 기후변화를 주제로 코미디 콘텐츠를 만드는 스탠드업 코미디 팀이에요. 이 외에도 '동네숲 탐조클럽', '지구를 닦는 사람들'처럼 각각의 개성과 활동이 뚜렷한 커뮤니티들과 함께했어요. 다양한 방식으로 기후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참 좋았어요.

이승희 이번 워크숍에는 저희가 먼저 콜라보 제안을 드린 팀도 있었고,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분들이 신청한 경우도 있었어요. <기후위기 라이프> 워크숍 소식을 듣고 처음 연락을 주신 분들도 계셨고요. 재미있는 건 이 워크숍이 단순히 메시지를 만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작업하면서 서로에게서 힘을 얻고 '아, 우리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동지의식도 자연스럽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2024년 연말에는 그동안 워크숍에 참여했던 예술가들과 커뮤니티 운영진, 관계자들을 모두 초대해서 네트워크 파티도 열었어요. 앞으로도 다 같이 기후 관련 이야기들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작지만 의미 있는 컨퍼런스 같은 자리를 꾸준히 기획해보려 해요.

함께한 분들의 마음이 참 잘 맞았던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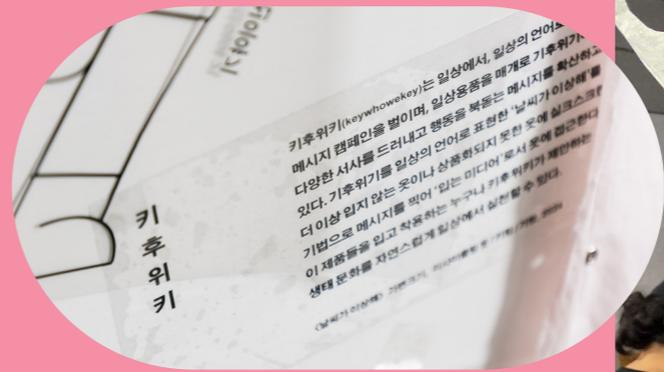
김혜원 맞아요. 프로젝트를 하면서 예술인들끼리 정말 친해졌어요. 외부의 협력자분들과도 어떻게 관계를 맺고 함께할 수 있을지를 하나하나 배워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프로젝트가 끝날 무렵에 다 같이 모여 회고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서로에게 쓴 편지를 한 명씩 읽었거든요. 다들 울컥하기도 하고, 몽클한 마음이 올라왔어요. 그 시간을 통해 서로를 더 많이 이해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응원하는 마음도 깊어졌죠. 사람이 만나고 헤어지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아쉬움 속에서 다



나에게 예술로는 10년지기 친구다. - 김혜원



함께하고 일하는 방식이다. - 이승희





시 만날 날을 기대하게도 되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멀리서 응원할 수 있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에요. 이번 경험은 우리 모두에게 좋은 에너지로 남을 것 같아요.

이승희 기관 입장에서는 사실 예술인 분들에게 이 프로젝트가 그냥 하나의 워크숍처럼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정해진 틀에 맞춰서 참여만 할 수도 있는데, 그 이상을 해주셨어요. 정말 본인의 예술 작업처럼, 혹은 함께하는 공동의 작업처럼 애정을 담아주신 게 정말 감동이었어요. 헤원 예술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덕분에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우리만의 워크숍'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해요. 예술이 가진 힘, 그리고 그걸 함께 나눌 때 생기는 감정의 진심을 많이 느낀 시간이었어요.

예술로 사업에 참여하면서 새롭게 느낀 점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이승희 환경운동이라고 하면 '운동'이나 '캠페인'이라는 단어 때문에 일견 거창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 삶 속에 깊숙이 닿아 있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이번 프로젝트를 하면서, 생각보다 정말 많은 시민들이 이미 자신의 생활 속에서 기후위기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방식으로 실천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단순히 개인 차원을 넘어서, 작고 큰 커뮤니티나 모임을 통해서도요. 꼭 캠페인 같은 큰 활동이 아니더라도 생활 속에서 자기만의 루틴으로 환경보호를 다양하게 실천하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걸 느끼면서, '아, 우리와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엔 활동가 중심의 네트워크만 생각했다면, 이제는 더 넓고 다양한 연결이 가능하겠다는 희망이 생겼고, 그게 참 기뻐요.



예술인 입장에서 이 프로젝트가 어떤 확장성을 주었나요?

김혜원 저는 원래 무대미술이 본업이지만, 개인 작업도 꾸준히 병행해오고 있어요. 예술로 사업에 참여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프로젝트가 끝난 뒤에도 계속 연락하고 지내는 동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네트워크가 만들어졌고 생각이 잘 맞는 예술인들과 재미있는 작업 아이디어를 나누다 보니 어느 순간 개인 작업을 넘어서 팀 작업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제가 함께하고 있는 팀이자 작품명이기도 한 '공중제B'라는 이름의 프로젝트가 있어요. 2020년부터 베란다에서 작물을 키우면서 음식과 기후문제를 연결해서 생각해보게 됐어요. 지금의 음식은 마치 공장에서 찍어낸 것처럼 너무 깨끗하게 포장되어 있지만 우리는 그것이 어디에서 왔는지, 원래 어떤 모습이었는지 잘 몰라요. 결국 인간과 음식은 하나의 순환 고리 안에서 연결되어 있는데, 그 연결이 끊어진 게 지금 우리가 겪는 위기의 원인인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시작된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기후위키 라이프> 워크숍에서 음식문화를 다룬 '키식키식' 파트를 제가 맡게 된 것도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죠.

이런 식으로 제 개인 작업과 예술로 사업이 서로 연결되고, 다른 예술가들과 협업하면서 계속 새로운 작업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2024년에는 아르코예술극장의 기후 프로젝트에도 참여했어요. 2025년에도 이와 관련해서 재미있는 기획을 준비 중이에요. 다양한 작업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 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영감을 주고받는 과정이 저는 정말 의미 있게 느껴져요. 그런 면에서 '예술로 사업'은 단순히 하나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새로운 예술적 관계와 확장의 출발점이 되고 있습니다.

기후위키 협동조합과 예술인이 함께한 작업들



기후위기에 대한 메시지(키적키적, 키드룩키드룩, 키식키식) 수집 및 전달

- 리더예술인** 김혜원(연극)
참여예술인 박수진(연극), 신지연(미술), 윤혜진(연극)



5개 커뮤니티와 함께 <기후위키 라이프> 운영

- 리더예술인** 김혜원(연극)
참여예술인 박수진(연극), 신지연(미술), 윤혜진(연극)

예술로 연결된 삶

서민기 예술인

참여이력

- 2016년 : 아시아나항공(주) 홍보팀(퍼실리티에이터)
- 2017년 : (주)워터웨이플러스(퍼실리티에이터)
- 2018년 : 주식회사 케이티디에스(퍼실리티에이터)
- 2019년 : 더좋은종합건축(리더예술인)
- 2021년 : 재단법인 대구여성가족재단(리더예술인)
- 2023년 : 사단법인 생명평화아시아(리더예술인)
- 2024년~2025년 : 사단법인 생명평화아시아(리더예술인)



2023년 예술로 사업 우수사례 인터뷰

내가 예술로 사업을 처음 만난 건 2016년이다. 나는 대구에서 자라고 전통 악기를 공부하며 당시 대학교를 졸업한 뒤 지역을 기반으로 여러 팀에 소속되어 프리랜서 국악기 연주자로 활동하고 있었다. 어느덧 내년이면 나와 '예술로'와의 인연도 10주년이 되어가는데, '예술로'의 변화만큼 나 역시 많은 것들이 변화했다. 나의 음악을 만들게 되었고, 내가 공연할 무대를 직접 기획하고, 프로젝트를 구상하며 장르에 국한되지 않는 작업을 동료들과 이어가고 있다.

이 모든 과정에는 '예술로'가 늘 함께였다. '예술로'를 통해 만난 예술인들과 연결되어 확장된 개인적 활동 범위와 역량 그리고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 추구하게 된 삶의 방향까지! 이번 기회를 통해 나에겐 마치 소설 속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기나긴 여정의 단편적인 기억과 개인적 생각을 짧게나마 나눠보고자 한다.

나는 2016년을 시작으로 2022년을 제외한 9번을 사업에 참여했는데, 리더예술인이 대부분이었고, 예술 활동이 아닌 일을 할 때도 기업 담당자로 함께 하면서 '예술로'와의 인연이 이어졌다. 그때 당시엔 '예술인파견지원사업'이란 명칭이었는데, 평소 호기심이 많은 나는 지역을 벗어나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는 것에 아주 큰 흥미를 느꼈던 것 같다. 지금은 '리더예술인'이지만 그때 당시엔 '퍼실리티에이터'라고 칭해지던 역할의 무게를 온전히 알지 못한 채 무작정 서류를 냈다. 당시 26세, 새로운 무언가를 향한 기대와 설레는 마음을 가득 안고, 서툴지만 감사히도 얻은 기회로 내 삶과 '예술로'와의 연결이 시작되었다.

2016년도 '예술인파견지원사업'은 매칭 시스템을 이용했는데 많은 기업이 있었다. 대구 혹은 인근 지역 기업이 몇몇 있었지만, 이동에 품이 들더라도

새로운 경험을 원했던 나는 선택권이 많은 서울 지역 기업에 매칭을 시도했다. 여기저기를 고민하던 중 (주)아시아나항공과 매칭이 되었다. 기업의 니즈는 크리스마스 캐럴을 만들어 무료 배포하겠다는 사회공헌팀의 프로젝트였는데, 기업은 캐럴을 국악으로 만들고 싶어 했기 때문에 초짜인 내가 덜컥 큰 기업에 매칭이 된 것이다.

기업 담당자이셨던 최석병 과장님(팀장님? 부장님? 여전히 헷갈리는 명칭)과 만나기 위해 아시아나항공 본사에 가던 날이 아직도 생생하다. 김포공항에서 조금 이동해야 했는데, 걱정, 설렘, 기대, 초조 여러 가지 감정이 오고 갔다.(길 잃어버리지 않기 또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였다.) 대구에서 출발해 오랜 시간이 걸려 도착한 아시아나항공은 아주 크고 분주했다. 드라마에서 보던 광활한 회사의 풍경을 마주할 수 있었고, 봄비는 구내식당에서 식사하며 잠깐이나마 직장인의 삶을 경험할 수 있었다. 대기업인 만큼 확인 절차가 많은 점, 그동안 해온 프로젝트 등 친절한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며 회사라는 집단(?)에 대한 이해의 시간을 가졌다. 내 삶에 새로운 무언가가 시작되는구나! 생생히 느낀 순간이었다.

모든 것이 처음인 그때에 나는 잘 해내고 싶은 게 많았다.(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때 마음이 더 앞선 느낌이다.) 재단에서 준비한 퍼실리티에이터 워크숍, 검색 등을 통해 내 나름의 방법을 만들었다. 참여예술인이 활동보고서를 잘 작성할 수 있도록 날짜, 장소, 인원, 회의 등 시트를 만들어서 공유하는 것과 각자가 가진 개인 활동 시간을 대략 정리해 주는 것이었다. 활동보고서를 작성하기 전 또 하나의 일이 생기는 것이지만, 나 역시 정리도 되고 만족스러웠다.(이후 기획사업을 제외하고는 언제나 사용했다.) 또 한 가지는 첫 만남이다. 내가 선택한 방법은 첫 만남을 개별로 가지는 것이다. 참여예술인의 작업실 혹은 편안한 공간으로 찾아가 인사를 나누고 사업에 참여하게 된 계기와 개인 작업 등 개인적 이야기를 나누며 탐색(?)의 시간을 가졌다. 이 시간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었던 것은 비록 4명이지만 다수가 되어 나누는 대화와 1대 1로 나누는 대화는 아주 다르다고 여겼다.(글을 쓰다 보니 내가 그때 그런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다.)

사실 기업과의 첫 만남보다 예술인과의 첫 만남이 그렇게 떨릴 수 없었다. 지금은 처음 만난 사람과의 대화가 그리 어렵지 않지만, 그때의 나에게 그리 쉽지만은 않았다. 설레는 마음이 더 큰 그 긴장의 시간은 '예술로' 하면 나에게 떠오르는 요소 중 하나이다. 때론 바쁘고 정신 없이 시간을 흘려보내느라 인지하지 못하는 새로운 무언가를 향한 반짝이는 마음을 확인할 수 있달까! 그렇게 시작한 나의 첫 프로젝트는 계획한 대로 음원 제작과 함께 끝이 났고 이후 2년 동안 콘서트, 직업 강의 등 여러 프로젝트로 이어졌다.

물론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다. 지금은 흐려졌지만 중간중간 마음이 어려운 순간들이 많았고, 프로젝트가 끝날 때 즈음 예술인과 문제가 생겼다. 문제는 언제나 발생할 수 있고 잘 풀어가면 된다. 하지만 한 예술인이 그때 당시 가장 큰 사회 이슈였던, '박○○ 정부' 같다고 나에게 말했고, 아주 큰 충격을 받고 나의 모든 행동을 돌아보는 시간도 있었다. 곱씹을수록

속상한 말이라 지금도 가슴이 먹먹해지지만, 나는 작업에 충실하고자 했던 것이 누군가에게는 불편함으로 다가갈 수 있구나 깨달았던 순간이다.(당시에는 며칠 동안 밤잠을 설쳤다.)

그 이후에도 ‘예술로’를 통해 다양한 기업 그리고 음악, 무용, 미술, 연극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인을 만났다. ‘예술로’를 통해 만났지만 가깝게 타 장르의 작업 방식을 알 수 있는 시간들이었고, 이는 내 개인 작업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누군가가 주는 악보를 연주하는 형태에서 나의 이야기를 써보는 것, 그것을 음악으로 만들어 보는 것이 그 시작이었는데, 너무 갑작스럽거나 무겁지 않은 변화로 스며들 수 있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올 수 있었던 이유 중 한 가지는 관계라고 생각한다. 나에게 예술로는 다양한 장르와의 작업이기도 하지만 한 사람과 만나 시간을 가지며 관계를 쌓고 서로를 이해하는 순간들로 구성된다. 처음부터 중간 역할에 충실해야 해서였을지는 모르겠지만, 함께하는 이들이 하고자 하는 것, 원하는 것을 알고 싶었고 그를 위해 행해야 하는 여러 방법이 그리 힘들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 시간들이 쌓여 이후엔 프로젝트의 방향을 나만의 언어가 아닌 함께의 언어로 풀어가는 방식에 대한 고민으로도 이어졌다. 이는 꼭 작업에 국한된 것이 아닌 내 삶의 방향으로도 연결되었다. 2017년 대구에서 참여했던 ‘예술로’는 특히나 소중하고 특별함을 넘어 나에게 신비함까지 지니고 있다. 프로젝트를 넘어서 서로에게 좋은 에너지를 주고받았고 사업 기간이 끝난 후에도 우린 연결되었다. 김민주, 안지경, 강민영 그리고 서민기 넷의 이름을 따서 ‘삼민일지’라는 이름을 붙여 재미를 더했고, 사업 기간에 사용하려고 모아둔 공금을 쓴다는 이유로 함께 제주로 여행을 떠났다. 함께 제주로 떠났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는데, 예술로 연결된 삶이란 제목을 붙이게 된 이유 중 한 가지가 여기에 있다. 우연히 예약한 숙소의 주인은 내가 제주에서 했던 공연을 보셨던 분이었고 체크인하며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건축사무소를 운영하고 계시고, 제주에서 복합문화공간을 준비 중인데 다양한 아이디어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때는 1월쯤이었고 나는 자연스럽게 예술로 사업을 떠올렸다. 마침 그해에 기획사업이 생겼고, 감사하게 우린 함께 한 해 동안 제주와 대구를 오가며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다.(삼민일지 중 한 분은 개인적 사정상 함께 하지 못했지만 언제나 함께 한 느낌이다.) 지금도 우리는 ‘예술로’에 함께 하고 있고, ‘초록감각’이라는 기획팀을 만들어 각자의 장르를 넘나드는 작업을 우리만의 호흡으로 이어가고 있다. 만약 그때 우리의 관계가 지속되지 않았다면 지금의 나는 달랐을 것이다.

물론 우린 ‘예술로’라는 사업 안에서 지켜야 하는 것들을 지키며, 기업과 수많은 대화를 통해 무언가를 만들어야 한다는 압박과 시간적 제한을 갖고 함께하는다. 예술로 사업은 말 그대로 사업이기 때문이다. 어떤 정해진 결과물이 없다는 것이 어느 무대보다 부담으로 느껴진 적도 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알 수 없는 무엇을 향해 고민하고, 서로 다른 시선의 생각을 나누고 찾아가는 과정이 ‘예술로’의 매력이라 느끼고 그 매력에 흠뻑 빠져 있다. 그러다 보니 나에게 언젠가부터 함께하는 팀 안에서 신뢰, 그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 형성이 프로젝트보다 중요하게 여겨질 때도 있다. 물론 함께하는 팀원들 각자가 원하는 것 그리고 ‘함께’가 되었을 때 해야 하는 것 등 우리는 챙겨야 할 것들이 많다. 단지 관계만으로 작업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각자와 서로를 믿고 소통의 시간을 만들어 간다면, 우

리에겐 의미 있는 과정이 남겨지고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결과물이 따라온다.(잘하고 못하고의 시선이 아닌 다른 차원의 아름다움!) 이 과정을 가지기에 6개월의 시간은 너무나 짧다고만 생각했지만, 언젠가부터는 어떻게 호흡을 가져 가느냐에 따라서 충분한 시간이기도 하다고 생각된다. 서로가 서로를 믿고 각자 자기 자신의 호흡을 잘 살피며 함께 흘러갈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 것. 예술로를 통해 깨달은 것이지만 다른 작업 그리고 내 삶에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게 되었다.

2025년에는 다년형 기획사업에 연이어 참여한다. 2023년 기획사업으로 처음 시작하게 되었는데, 대구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시민단체 ‘생명평화아시아’와 5명의 예술가가 함께한다. 예술로를 통해 만난, 혹은 그로 인해 연결된 동료들인데 나에게 개인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 ‘금호강 디디다’라는 이름을 붙여 팀으로 활동하며 기업의 이슈이자 지역사회 이슈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자 했다. 언제나 다른 지역으로 나가고 싶은, 답답한 마음을 느끼며 살았던 대구에서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지속적인 관계 연결망의 필요성을 느꼈고, 단편적인 프로젝트가 아닌 이 시작을 통해 확장될 수 있는 것들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다행히도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움직이게 되었고 장르와 상관없는 재밌다고 느끼는 작업들이 펼쳐졌고 올해 역시 펼쳐질 예정이다.

하지만 그 와중에 중요하게 가지고 가고 싶었던 것은 우리들의 내부적 관계와 성장을 위한 것들이다. 대화하는 방식과 회의의 방법 등 더욱 단단하게 함께 나누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찾아가고자 했다. 이 과정 속에서 나는 또 다른 시선을 가지게 되었고, 너무나 집중한 나머지 누군가에게는 환경운동가, 활동가란 명칭을 들으며 때론 혼란스럽기도 하지만 이 또한 자연스럽게 흘러온 온전한 나의 선택이었음을 알고 있다.

매년 겨울이면 내년의 활동을 위한 지원사업을 찾고 쓰기를 반복하며 지칠 때도 많지만, 예술로를 통해 하나씩 더해지는 새로운 작업의 연결점은 일 년을 돌아보았을 때 흥미롭다. 혼자서는 하기 어려운 것들을 함께 만들어 가고 고민해 가는 과정이 주는 또 다른 힘을 이젠 알고 있다. 2016년 사업에 처음 참여한 나와 지금의 나는 아주 많이 변했고, 이를 통해 연결된 사람들과 보내는 지금의 시간이 가끔은 새삼스럽게 느껴진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꾸준히 ‘예술로’와 함께 할 수 있어서 언제나 감사했고 10주년을 맞이한 특별한 기록에 함께하게 되어 무척 기쁘다. ‘이젠 이 사업에서 독립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예술로’는 나에게 많은 것을 주었다. 언제, 어떻게, 어디에서, 무엇 하나 확신할 수 없는 불안한 삶 속에서 관계와 과정을 통해 연결되고 확장되는 시간을 함께해 준 모든 이들에게 이 시간을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또한 올해도, 내년에도 새롭게 연결될 모두의 재미난 시간을 응원하며!

PART 3

드림터



예술인의 성장과 변화

다양한 기업 및 단체, 그리고 타 장르와의 협업을 통해 성장과 변화를 이룬 예술인을 소개합니다.

138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예술 탐험가
신지영

142

도시의 기억을 수집하는 예술가
오석근

146

열린 페이지를 남겨둔 예술가
오정향

150

6년의 동행, 음악으로 함께한 드림스테이지
김현성, 이성준, 정가윤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예술 탐험가, 신지영

예술은 자유로운 창작 활동이다. 아마도 그 '자유로움'이란 특성 때문일까. 때로는 특정 장르로 예술가를 구분 짓고 규정하는 일이 다소 답답하고 어쩌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 신지영 예술인을 만나기 전, 찝막한 소개에서 나는 그를 '문학인'으로만 알고 그를 만났다. 책을 두 권 들고 나타난 그의 첫인상은 그리 틀리지 않아 보였다. 하지만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그의 예술 세계는 문학을 훌쩍 뛰어 넘어 있었다. 생각지도 못한 다양한 분야의 예술 활동이 툭툭 튀어나왔다. 마치 다음 페이지에 무엇이 나올지 모르는 종합 예술 매거진을 펼친 느낌이다.



만남 사람

신지영(문학)

Profile

작가이자 융복합 예술 프로젝트 그룹 '우리, 봄'의 대표이며 <화음무시>라는 앨범을 낸 싱어송라이터이다. 그동안 쓴 책으로 청소년 시집 『넌 아직 몰라도 돼』, 『해피 버스데이 우리 동네』, 청소년 소설집 『프렌즈』, 『내 친구는 슈퍼스타』 등과 동화 『안믿음 쿠폰』, 『짜구 할매 손녀가 왔다』, 『퍼펙트 아이돌 클럽』, 『배려의 여왕이 할 말 있다』, 『이야기 프로듀서 유이』와 동시집 『지구영웅 패트병의 달인』 등과 인문교양서 『너구리판사 풍풍이』, 『법정에서 만난 역사』 등이 있다. 시, 소설, 동화 등 다양한 장르의 글을 읽고 쓰고 있다.

2015년: 부여슈퍼(참여예술인)

2016년: 대명여울빛거리상인회(퍼실리테이터)

2017년: 대명여울빛거리상인회(퍼실리테이터)

2018년: 울오어낫싱(퍼실리테이터)

2019년: 대명여울빛거리상인회(참여예술인)

2020년: 주식회사 건축재생공방(리더예술인)

2021년: 텐마인즈(리더예술인)



세상 호기심 많은 사람

10여 년 전 예술로 사업에 처음 참여할 당시 신지영은 '단순히' 문학하는 사람이었다. 혼자 작업하는 것이 당연한 글 쓰는 일을 업으로 삼고, 동화와 시, SF장르 청소년 소설 등을 꾸준히 써왔다. 예술로 사업에는 초창기부터 참여했다. 참여예술인으로, 퍼실리테이터로, 리더예술인으로, 그리고 다시 참여예술인으로. 다른 장르의 예술인들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알아가고, 그는 점차 여러 분야를 이해하게 되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다른 예술인들과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보고 싶다는 마음이 싹텄다.

음악 밴드 활동은 원래 취미였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예술 소외 계층을 위해 추진하는 '신나는 예술여행'에 팀을 꾸려 지원했다. 그러다 보니 또 자연스럽게 예술단체의 대표 역할을 맡게 되었다. 그렇게 그의 역할은 점점 더 확장되었다. 함께 진행하는 공연이나 전시의 기획을 맡았고, 더 잘하고 싶은 욕심이 생겨 연출도 하게 되었다. 2024년 연출한 작품은 '고(故) 김남주 시인 30주기' 서울 행사, 그리고 작고 문인 선양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한 한국작가회의의 '소월노래방', 소월아트홀에서 연 '한국작가회의 50주년' 기념 행사가 있다. 이 가운데 '소월노래방'은 소월의 시에 곡을 붙인 노래를 연주하는 콘서트로, 꿈밭소극장(구 학전소극장) 무대에서 열려 화제를 모았다. 꼬리에 꼬리를 물듯, 가지에서 움이 트고 또 다른 가지에 뻗어나가듯, 그의 예술활동은 점점 더 확장되었다. 새로운 것에 기꺼이 마음을 여는 자세, 다른 영역을 이해하려는 태도, 그리고 언제나 경계 너머를 궁금해하는 호기심이 그의 가장 큰 동력이다.

신지영은 작가다. 시를 쓰고 소설도 쓴다. 책을 매개로 강연을 펼치기도 한다. 그는 공연기획자다. 연출을 맡기도 하고, 직접 무대에 서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밴드 활동을 하고 두 장의 음반을 낸 가수이기도 하다. 이 모두가 신지영이다. 그와 이야기를 나눌수록 그의 다면적인 모습은 더 다채로운 빛깔을 발한다. 신지영은 '예술로'를 만나 무지개가 되었다.

시야를 넓혀준 예술로의 경험들

오지랴, 웃웃의 넓은 웃자락을 일컫는 말이다. 신지영 예술인은 스스로를 호기심이 많고 오지랴가 넓다고 말한다. 오지랴 넓은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이의 말과 행동을 들여다볼 줄 아는 눈썰미가 뛰어나다는 점이다. 몸 사리지 않는 도전 앞에서 오히려 눈빛이 빛난다. 다른 세계를 품는 널따란 웃자락을 가진 것은 물론이다. “예술로 사업을 하는 예술인은 대부분 열려 있는 자세가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술로 사업을 통해 그는 시야가 확장되었다고 말한다. 특히 2015년 <부여슈퍼> 프로젝트에서 생활인들의 모습을 가까이에서 깊게 만나면서 자신의 세계를 깰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이전까지 관념적으로 이해했던 이 세계를 피부로 느끼게 되었다. 꾸준히 협업사업 위주로 참여하였기에 매번 처음부터 시작하는 마음이다. 기타리스트 정재영, 싱어송라이터 하림도 당시 인연을 맺어 지금까지 꾸준히 예술적 동지로 지내고 있다.

매번 새로운 장르를 만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기관들을 만나며 새로운 예술을 모색하는 과정 자체가, 예술로 사업에서만 만날 수 있는 아주 중요하고 색다른 경험이라고 그는 말한다. 중요한 것은, 결과물을 내려 노력하기보다는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이다.

예술로 사업의 확장

‘신나는 예술여행’은 그에게 매우 애정 깊은 프로그램이다. 이 여행의 콘셉트는 반복되는 일상 속에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한 특별한 공연이었다. 흔히 떠올리는 트로트나 일반적인 대중음악에서 벗어난 새로움을 전하고 싶었다.

그래서 신지영 예술인은 예술로 사업에서 인연을 맺은 대중음악가, 기타리스트, 전통무용가, 가야금 연주자와 함께 무대를 구성했다. 신지영 예술인은 창작곡을 선보였고, 노래는 본인이 직접 불렀다. 그러나 첫해에는 시장 상인들의 기대와 실제 공연 사이의 온도차로 인해 큰 반응을 얻지 못했다.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해 고민하던 중, 그는 1930년대 민요, 재즈, 엔카가 혼합된 독특한 장르인 ‘만요(漫謠)’를 발견했다. 우리 민족의 정서와 애환이 담긴 만요는 전통시장이라는 무대와 잘 어울렸다.

이듬해 선보인 만요 공연은 상인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었고, 세 번째 해에는 의상까지 준비해 무대의 완성도를 높였다.

예술로 사업을 통해 얻게 된 네트워크는 이처럼 예술인들의 시도와 성장을 새로운 방향으로 지속 가능하게 만들었다. 예술로 사업은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관계 맺기의 연결점이 되었고 신지영 예술인은 그렇게 3년동안 전국 수십 곳의 전통시장을 다녔다. 신지영 예술인의 활동 기반은 예술로 사업을 통해 끊임없이 확장되고 있다.



2017년 대명여울빛거리 시장 다시, 시장_공연



2022년 대명여울빛거리시장 트릭아트 작업 중

지금은 새로운 예술이 필요한 시대예요. 너무 급속도로 시대가 바뀌고 과학과 기술의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서 철학과 예술이 이를 따라잡지 못할 정도죠. 이 시대에 예술이 무엇을 할 수 있어? 라고 질문할 때, 예술의 역할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계속 융복합을 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보는 거예요.

예술로 무지개를 펼치다

물론 그 역시 혼자만의 작업에 골몰하는 시간이 있다. 바로 글을 쓰는 시간이다. 다양한 분야와 융복합 작업을 이어가는 만큼, 글에 대한 철학과 정체성이 더욱 분명해야 한다고 그는 생각한다.

“제가 융복합을 하는 이유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싶어서예요.”

결과가 누추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는 계속해서 여러 분야를 넘나들며 도전을 이어간다. 수많은 고민과 활동들이 자양분이 되어 글을 쓰고 책을 내며, 또 그 책을 콘텐츠로 학교나 도서관 등에서 ‘작가와와의 만남’ 행사나 강연도 꾸준히 진행한다. 청소년 시집 『최고는 짝사랑』 강연에서는 시를 읽고, 그 시로 만든 음악을 듣고, 또 음악을 배경으로 한 춤도 함께 감상하며 진행된다. 또 『세계를 바꾸는 착한 음악 이야기』 강연에서는 어린이들에게 일상의 소리를 들려준 후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게 하고 함께 상상도 해보고, 그것에서 비롯된 음악들을 함께 노래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버라이어티한 그답게 강연도 평범치 않다. 읽는 텍스트에서 보는 텍스트로, 그리고 그 다음 텍스트는 뭘까? 그의 고민이 담긴 예술 실험이다.

작가이자 시인이며, 공연기획자이자 연출가이며, 가수인 사람, 다음에 또 무엇을 할지 눈을 빛내는 사람, 신지영 예술인에게 ‘예술로’는 무엇일까? 그의 색깔을 여러 빛깔 무지개로 만들어준 사업이자 그의 예술 실험실이다.

도시의 기억을 수집하는 예술가, 오석근

사진은 예술이자 기록이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모두의 기억이자 역사가 된다. 오석근은 이러한 사진 기록 작업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시각 예술가다. 의미 있는 작업들이 쌓일 때마다 틈틈이 전시를 연다. 그의 일상 은 주로 인천 곳곳을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고 기록하는 일로 채워진다. 그는 자신의 활동을 시각 안에 텍스트가 공존하는 형태로 확장해 나가는 '비주얼 아티스트'라는 단어로 정의한다. 그가 수행하는 기록, 조사, 연구, 전시의 모든 과정은 넓은 의미에서 모두 미술의 영역 안에 있다.

Profile

오석근은 시각 예술가다. 사진을 중심으로 한 작업과 더불어 기록 기반의 연구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그는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콜렉티브(Collective) 팀 '복숭아꽃'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인지역의 산업사를 연구하는 '경인 콜렉티브' 등 지역 작가들과 함께 다양한 문화 예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2014년: 홍예문 문화연구소(참여예술인)

2015년: 인천탁주, (주)추억극장 미림, (재)강화고려역사재단(퍼실리테이터)

2016년: (주)추억극장 미림(퍼실리테이터)

2019년: 주식회사 건축재생공방(리더예술인)

2020년: 주식회사 건축재생공방(리더예술인)

2024년~2025년: 인천유나이티드(리더예술인)



만남 사람

오석근(미술)

공유 기억 속 메시지를 담은 시각 예술가

그의 작업은 아카이빙을 바탕으로 한 시각 예술이다. 그는 작업 초기에는 옛날 교과서의 형식을 빌려 주인공 '철수와 영희'를 등장인물로 과거 청소년 시절의 억압받았던 욕망이나 교회에서 느꼈던 죄책감 등 개인의 기억을 풀어냈다. 개인이나 집단이 함께 겪은 역사가 만들어낸 공통의 기억을 소환하고 상처와 의미를 찾아내는 그의 작업은, 점차 인천이라는 공간으로 구체화되었다. 그중에서도 인천 신흥동은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이 뉴타운처럼 개발한 지역으로, 당시 지어진 적산가옥이 밀집해 있는 동네다. 신흥동 일대에 재개발 이슈가 불거지면서, 평소 교류하던 지역 건축가와 함께 이곳을 기록해보기로 한 것이 프로젝트 <신흥동 아카이빙>의 출발점이었다. 이 프로젝트에서 오석근은 신흥동의 적산가옥과 골목 곳곳에 남겨진 삶의 흔적들을 사진으로 기록하는 역할을 맡았다. 프로젝트는 점차 확장되었고 예술적 네트워크도 함께 넓어졌다.

“적산가옥(敵産家屋)은 ‘적이 남겨 놓은 집’이란 뜻인데요, 신흥동 지역을 찍으면서 자연스럽게 근현대사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도시재생이라는 분야나 인천 자체에 대한 애정도 깊어졌어요.”

인천은 오석근이 태어난 도시다. 근대화 이전엔 어촌이었던 인천은 개항을 거치며 서구 문물이 유입되고 철도가 놓이며 일제의 침략과 함께 청나라·영국 등의 대사관이 설치된 국제도시가 되었다. 한국전쟁을 겪으며 군수화 지역이 되고, 자연이 파괴되는 매립 과정과 많은 가치를 희생한 산업화까지, 전국에서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찾아 몰려든 노동자들의 도시이기에 공장도 많고 관련된 문화제도 많다. 한국에서 벌어졌던 다양한 사건 사고와 정책과 움직임들이 모두 인천에 녹아 있다. 그는 ‘역사에 의해 도시가 변화’했으며 도시의 틈 사이에는 그 역사와 양분이 쌓여 있다고 생각한다.

인천은 흥미롭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한 지점들이 많아서 창작에 영감을 주는 도시다.

인천에서는 날것들, 삶의 날것이 날선 현실을 툭툭 두드리기도 한다.

그에게 인천은 끊임없이 긴장되는 ‘정글’ 같은 느낌일까?

그런 질문에 그가 내놓은 대답은 뜻밖에도 ‘정글’이 아닌 ‘황무지’였다.

역사와 장소, 기업과 기억

오석근은 예술이 일상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예술계 내부에서만 소비되는 구조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는 예술인이 예술의 공적·사회적 가치를 고민하며 예술계 밖으로 나와야 한다고 말한다. 예술인의 영향력이 사회 속에서 순환되고, 각각의 위치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사회적으로 “예술이 이런 효능이 있구나, 이런 것도 가능하구나” 하는 인식을 넓혀야 하고, 그러한 공공 기여를 통해 예술인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그가 예술로 사업에서 발견한 가치도 이 ‘순순환’에 있다.

“예술가들이 예술 활동을 하면서 공적 가치를 생산하고, 공공에 기여하는 과정을 통해 그 가치에 대한 올바르게 합당한 대우를 받는 순순환 구조로 수렴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예술가들이 예술계 안에만 있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예술이 사회와 너무 동떨어져 있고, 예술계 내부에서만 소비되며 사회적으로 순환하지 않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의 예술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지, 예술적·사회적 가치들이 어떻게 순환될 수 있는지를 알리기 위해, 예술인들이 더 많이 도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술로 사업도 그런 시도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THE UNITED 매거진, 무고사 인천공항



THE UNITED 매거진, 이범수_아암도



2015년 인천국제비엔나소시지영화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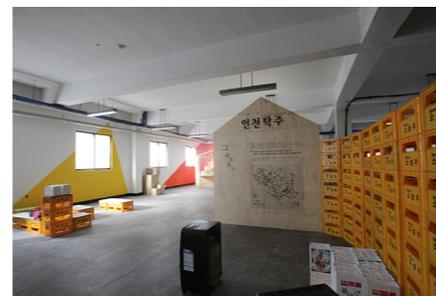
2019년 건축재생공방 옹노 x 동인천탐험단 - 신흥동 일곱주택



THE UNITED 매거진



인천유나이티드 인스타그램



2015년 인천탁주 그 히스토리

인천 스피릿, 인천유나이티드 시민구단 프로젝트

그는 2024년부터 인천유나이티드 구단과 함께 예술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민구단으로 출발한 인천유나이티드 구단은 2023년, 창단 20주년을 맞았다. 그는 시민구단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정책을 시도하는 구단의 모습에서 함께 하면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다소 생소한 ‘스포츠와 예술의 결합’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홈경기 에 매번 1만 5천 명의 인천 시민이 모인다. 인천에서 이 정도 많은 시민이 모이는 행사는 흔치 않다. 하지만 관련 정보들은 제대로 공유가 되지 않았고, 시민구단 특성상 예산도 넉넉하지 않아 실행 가능한 일들이 제한적이었다. 그래서 오석근은 한 달에 한번 발행하는 ‘더 유나이티드(THE UNITED)’ 매거진에 지역의 가치와 선수의 이야기를 함께 담은 사진을 선보이기로 했다. 선수를 소개하고 시민들과 가까운 공간이나 인천의 이야기를 함께 엮어내는 형식이었다. 매거진은 경기마다 현장에서 배포되고 SNS를 통해 홍보했다.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새로운 슬로건과 함께 예술인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실행하면서 구단에도 점차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2024년부터 구단이 조금씩 바뀌어 가는 게 눈에 띄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역과 함께 하는 구단으로 조금씩 시민들 곁에 다가서는 중이다. 오석근은 이 프로젝트의 가장 큰 장점으로 ‘다년사업’이라는 점을 꼽는다. 예술가들은 쌓인 노하우를 바탕으로 더 높은 완성도와 흥미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고, 기업은 중간에 단절되지 않고 연속성을 보장받을 채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차년도 예산을 준비할 수 있다.

예술로 기획사업은 긴 호흡 속에서 우리가 구상한 확장성을 실현하고,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는 것을 시간을 두고 판단하고 의미화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한다. 1년 단위의 사업은 그 시간적 여유가 너무 짧아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 그런 점에서 다년사업은 확실히 리스크를 줄이고, 전략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며, 결과물 또한 풍성해질 수 있다.

예술의 가치를 사회로 확산해 나가다

오석근은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믿는다. 그는 예술가들이 해야 할 일들을 예술가가 아닌 사람들이 맡아오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와 마을이 지금의 모습이 되었고, 관공서에서 나오는 디자인이 지금처럼 고착되었다고 지적한다. 그는 예술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공공 영역이나 사회 전반에 진출해서 정당한 계약을 맺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 예술가와 시민,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만나 예술의 사회적 가치가 순환되고, 즐겁고 재미있는 실험과 긍정적인 영향으로 확산되는 미래를 그는 그리고 있다.

열린 페이지를 남겨둔 예술가, 오정향

약속 장소인 대구예술발전소는 운치 있는 벽돌 건물이었다. 이곳은 오래전 한국담배인삼공사(현 KT&G)의 대구연초제조창(담배의 재료인 연초를 말리고 보관하던 공간)으로 사용되다 1999년 문을 닫은 뒤,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 근대산업유산을 활용한 예술창작벨트' 조성사업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2013년 복합 문화공간으로 새롭게 개관했다. 이곳의 레지던스 스튜디오 중 한 곳에서 오정향 예술인의 미디어아트 전시가 열리고 있었다. 화면 속에서는 깊은 바닷속 공간이 일렁였다. 뿌연 미지의 세계가 점점 푸르게 가까워졌다.

Profile

오정향은 미디어 아티스트다. 기억을 기반으로 사라진 공간들을 3D 프로그램으로 복원하고, 그 안에 기억을 소환할 수 있는 요소들을 넣는 영상 기반의 인터랙티브 미디어 작업을 한다. 오정향 예술인은 예술로 사업의 원년인 2014년부터 참여했다.

- 2014년: 재단법인 대구문화재단(참여예술인)
- 2015년: 달서구립분리도서관, 한울요양병원, 연광시니어타운, 성일요양병원(퍼실리티어)
- 2016년: (재)한국국학진흥원(참여예술인)
- 2017년: (재)한국국학진흥원(참여예술인)
- 2018년: (주)비피(참여예술인)
- 2020년: (사)대구작가콜로퀴엄 대구문학관(참여예술인)
- 2021년: (사)대구작가콜로퀴엄 대구문학관(참여예술인)
- 2022년: 재단법인 대구여성가족재단(리더예술인)
- 2024년: 주식회사 플렉(리더예술인)



만남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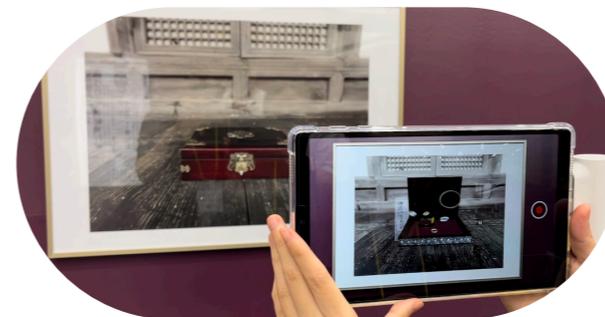
오정향(미술)

눈 깜짝 감고 '예술로' 지원

오정향 예술인은 지금으로부터 꼭 10년 전인 2014년에 우연히 예술로 사업을 알게 되었다. 그때 그는 아직 '어린' 예술가였다. 진행 중이던 작업에 대한 고민은 물론 예술가로서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깊은 혼란을 겪고 있던 시기였다. 뭔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었다. 눈앞에 흔들리는 동아줄을 붙잡듯, 예술로 사업에 지원서를 냈다.

"당시 저한테는 예술로 사업이 낯선 세상의 문이기도 했는데 그 문을 그냥 자연스럽게 열고 들어간 거죠. 뭔지도 잘 모르고 시작했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저 나름대로는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해온 것 같아요."

예술로 사업이 일정 기간 동안의 예술 활동 과정을 활동으로 인정해 활동비를 지급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그리고 매번 예상치 못한 프로젝트가 기다리고 있다는 점도 신선했다. 처음 만나는 예술인들과 팀을 이루고 현장 분석부터 결과물 완성까지 6개월간 함께한다는 건 어렵고 힘든 과제였지만, 한편으로 그에겐 매번의 경험이 예술적 성장을 이끄는 자양분이 되었다.



예술로 사업의 원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참여해왔다. 해마다 경험이 쌓일수록 새롭게 배우는 점도 생기고 새로운 시도도 멈추지 않았다. 각각의 기업과 예술로 사업에 대한 이해도 넓어졌다. 그렇게 10년, 대구의 다양한 기업·기관과 예술로 사업을 함께하며 예술 세계의 행보도 한층 넓어졌다.

2022. 9. 3.~4.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여성 UP 엑스포 반지길 부스 전시

새로운 경험으로 자신을 확장하다

그의 작업은 사라진 공간들을 3D 프로그램으로 재현하고, 그 안에 기억을 소환할 수 있는 요소들을 담아내는 인터랙티브 미디어아트 분야에 속한다. 자신의 재능을 살려 참여한 예술로 사업의 프로젝트들은 하나하나 특별했고, 모두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 2024년에는 미디어아트 콘텐츠 제작 기업 (주)플렉과 매칭되었다. 팀에 영상 제작 경험이 있는 예술인이 한 명도 없었던 터라 리더예술인으로서 처음엔 걱정이 컸다. 그러나 팀원 모두가 함께 스테디하면서 영상을 완성해 나갔고 프로젝트가 마무리될 즈음에는 높은 완성도의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이 프로젝트는 (주)플렉과의 추가 계약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거두었고, (주)플렉 또한 예술로 사업을 통해 미디어아트 전시, 공연 콘텐츠 기획 분야에서 입지를 다지는 성과를 이루며 win-win의 경험이 되었다.

한국국학진흥원과의 프로젝트도 그에게 특별한 기억이다. 그는 한국국학진흥원이 주최한 스토리 테마파크 공모전에서 일종의 샘플 작업을 맡게 되었는데, 안동을 기반으로 하는 테마파크에 필요한 공연 영상을 직접 제작하는 일이었다. “전통 공연의 배경으로 쓰일 미디어아트를 기록물을 바탕으로 작업해야 했는데, 제가 기존에 해왔던 미디어아트 작업과 너무 달랐죠. 국악이나 한국무용 공연자들과 합을 맞추는 일도 무척 생소했구요.”

그 경험을 계기로 그는 그 이후의 다른 공연 영상 작업도 ‘겁없이’ 도전하기 시작했다. 어떤 해에는 예술인들과 함께 교육용 보드게임을 제작하고, 코딩 수업을 진행하는 등 미디어아트를 넘어서는 다양한 장르와 프로젝트도 섭렵했다. 그에게 예술로 사업과 함께 한 지난 10년은 자신의 작업이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를 실험해본 도전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늘 혼자 작업하던 것들을 다른 작가들과 융합하거나, 혹은 제가 해오지 않던 장르, 예를 들어 미디어아트를 기반으로 하지만 공연이나 다른 용도로 활용되는 영상들을 만들면서 제 작업이 확장될 수 있는지 알게 되었어요. 제가 가진 기술들을 얼마나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도 점점 더 체감하게 됐습니다.”

관계가 만들어낸 새로운 도전, 아트디렉터

오정향 예술인이 활동하고 있는 대구는 대도시이긴 하지만 대기업이 아주 많은 지역은 아니다. 중소기업에는 메세나 같은 문화예술 투자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래서 예술로 사업이 정착되기 전까지는 기업·기관과 예술인이 협업할 기회 자체가 드물었다. 그런 점에서 예술로 사업은 지역 예술인과 중소기업 모두에게 단비 같은 존재였다.



2024. 7. 23.
주식회사 플렉_수창청춘맨손
미디어파사드_상영 모습



2024. 7. 23.
주식회사플렉_수창청춘맨손
미디어파사드_상영 모습



2024. 11. 29.
주식회사 플렉_대구읍성
미디어파사드_상영 모습



2014. 11. 29.
대구문화재단_우리동네
로드맵_전시 모습

“제가 지역사업을 했을 때, 거의 대부분 그다음 해에 다른 일들로도 함께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지역사업은 예술인들에게는 활동 영역을 확장하는 기회이고, 기업에게도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요.” 예술로 사업을 통해 그는 시각예술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장르의 예술인들과도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 본인은 원래 사람들과 유대를 많이 만드는 스타일은 아니라고 말하지만 이 사업을 통해 맺어진 인연들이 유지되고 발전하면서 긍정적인 네트워크의 힘을 실감하게 되었다.

“프로젝트나 작업이 생길 때 저를 가장 먼저 떠올려주는 분들이 생겼어요. 저 역시 어떤 도전을 하고 싶을 때 떠오르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그렇게 가용 인맥이 많아지면서 실행할 수 있는 프로젝트의 폭도 함께 넓어졌고요. 그 연장선에서 (주)플렉과의 추가 프로젝트에서는 제가 아트디렉터의 역할을 맡게 되었어요. 콘텐츠 디렉팅이라든지 공연 기획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제 역할이 확장되고 있어요.”

지역사업의 가장 큰 장점은 예산 문제로 문화예술 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 기업들에게 새로운 시도를 해볼 기회를 제공하고, 예술인들 역시 자신이 활동하는 지역 안에서 기업과 협업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같은 지역의 기업과 예술인이 한 번 협업해 좋은 결과를 만든다면, 그 관계를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해법도 지역 안에서 자연스럽게 모색할 수 있다. 이는 지역 상생의 의미로도 이어진다.

다음에 위해 남겨놓은, 유리구두 한 짝

예술로 사업에서 기업·기관을 선택할 때, 오정향 예술인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기준은 ‘콘텐츠’다. 해당 기업·기관의 이슈가 자신이 미디어 아트로 작업할 수 있는 영상이나 전시 콘텐츠로 구현이 가능한지, 또 그것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성과 확장 가능성을 갖고 있는지 생각한다. 그에게 예술로 사업은 신데렐라 이야기 속 ‘유리 구두’와 같다. 새로운 미지의 세계에 발을 내딛게 해준 계기였고, 유리 구두에 꼭 맞는 주인을 찾아가듯 자신만의 역할을 찾아가는 여정이기도 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 오정향 예술인은 그 유리 구두에 새로운 의미를 하나 더한다.

“신데렐라가 유리 구두 한 짝을 남겨둬으로써 그다음 이야기가 이어지잖아요. 저 역시 예술로 사업을 마치더라도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좋은 결과들이 남아 있어서, 그다음, 또 그다음의 일들이 가능해진 것 같아요. 제게 예술로 사업은 다음을 기약하는 유리 구두 한 짝이에요.”

6년의 동행, 음악으로 함께한 드림스테이지

2017년, 김현성, 이성준, 정가윤 예술인이 음악을 매개로 예술로 사업에서 처음 만났다. 그해, 롯데월드와 인연을 맺어 기업과의 협업을 경험했고, 롯데월드에서 함께 한 소아암 어린이들을 위한 공연은 예술로 사업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김현성 예술인은 아이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작사와 작곡을, 이성준 예술인은 기업과의 소통과 매니지먼트를, 정가윤 예술인은 아이들과 직접 호흡하며 프로그램을 이끄는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예술로 사업에서 시작된 활동이 기업과 예술인이 함께 성장하는 성공적인 파트너십으로 자리 잡았다.

김현성(음악), 이성준(음악), 정가윤(음악)

Profile

김현성은 작사, 작곡, 노래는 물론 다른 가수의 코러스로도 활약 중인 싱어송라이터이자 멀티 엔터테이너다.

이성준은 클래식 기타리스트로, 섬세한 연주와 깊이 있는 해석으로 꾸준히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정가윤은 '미식가요'라는 팀의 보컬로 활동하며, 음악 교육에도 힘쓰고 있는 아티스트다.

예술인과 (주)호텔롯데월드는 사업 이후에도 서로의 가치를 공유하며 장기적인 협력 관계로 발전했다.



만남 사람

(왼쪽부터) 이성준(음악), 김현성(음악), 정가윤(음악)

2017년부터 계속된 드림스테이지

2024년 12월 14일, 올해도 어김없이 롯데월드 어드벤처 가든스테이지에서 소아암 어린이들과 함께 세상에 위로를 전하는 제6회 <롯데월드 드림스테이지>가 펼쳐졌다. 이번 무대를 위해 25명의 소아암 어린이들과 10명의 기업 관계자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노래와 안무를 연습하고 음원 녹음에도 참여했다. 매년 3곡을 발표하는데, 한 곡은 순수 창작곡, 한 곡은 이전 드림스테이지에서 발표한 곡, 나머지 한 곡은 기존 대중가요를 선정해 준비한다. 모든 곡은 녹음 스튜디오에서 녹음한 뒤 음원으로 발매된다.

2017년부터 시작된 드림스테이지는 소아암 경험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노래와 공연으로 삶의 긍정적인 성장 경험을 공유하고 동시에 소아암 인식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소아암 어린이들과 롯데월드 임직원으로 구성된 샤희데 봉사단이 함께하며 지금까지 총 5차례 디지털 음원이 발매되었고 매년 롯데월드 어드벤처 가든스테이지에서 합창 공연을 진행해왔다. 몇 년째 연속으로 참여하고 있는 아이들도 있기에 예술인들도 롯데월드에서의 연습을 즐거운 나들이처럼 여기며 모두가 함께 이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

“기본적으로 아이들은 아마추어입니다. 전문적인 음악 교육을 받지 않았고 학교 음악 시간에 배운 것이 전부인 경우가 많아요. 악보도 잘 읽지 못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죠. 그런 상황에서 정식 음원 발매라는,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을 잘 이끌어 가면서 최대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이성준 예술인

소아암을 극복한, 힘센 아이들의 합창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떠올리는 소아암 혹은 백혈병을 앓는 아이들의 이미지는 항암 치료로 머리가 빠지고, 무균실에서 긴 입원 생활을 하는 모습에 고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일종의 고정관념이자 편견이다. 하지만 이성준 예술인의 말처럼, 아이들은 그저 아이들이다. 활발한 아이들은 또래 친구들과 다를 바 없다. “교육자로서 아이들을 만나보면 아이들이 쉬는 시간에 그렇게 뛰어다닐 수가 없어요. 아이들을 좋아하는 여자 아이들은 K-POP 댄스를 추고, 남자 아이들은 모여 휴대폰 게임하고 그래요. 쉬는 시간이 정말 시끄럽고 활기차요.” 이 아이들은 단지 평범한 아이들이 경험하지 않은 아주 어려운 과정을 겪고 이겨낸 존재일 뿐이다. 항암 치료로 성장기가 잠시 멈추어 체구가 작은 경우도 있지만, 이들은 결코 ‘불쌍한 아이들’이 아니다. 힘들고 험난한 시간을 스스로 이겨낸, ‘힘센 아이들’이다. 예술인들의 목표는 노래에 익숙하지 않은 이 아이들에게 합창을 가르치고, 한정된 연습 시간과 녹음 환경 속에서 최선의 타협점을 찾는 것이다. 잘 갖춰진 합창단도 일주일에 두세 번씩 꾸준히 몇 달을 연습해야 녹음이 가능한 현실에서, 아이들이 주인공이 되는 음악을 만드는 일은 쉽지 않다. 일정 수준 이상의 완성도를 유지하면서도 아이들을 우선에 두는 균형 있는 결과물을 만드는 것, 그것이 예술인들이 추구하는 방향이다.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자꾸 욕심이 생기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아이들의 즐거움이 가장 중요하죠.”

프로젝트 초기에 창작곡으로 진행해 달라는 요청이 있기도 했지만 그 요청이 없었다고 아마 창작곡을 선택했을 거라고 한다. 김현성 예술인은 이렇게 말한다. “아이들이 주인공이 되어, 자신들의 이야기가 노래로 만들어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아이들의 노래가 음원 사이트에 올라가고, 롯데월드 무대에 오르게 되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에게는 잊지 못할 추억이자 큰 자신감이 된다.

“음악을 만들어 가는 과정 속에서 보컬로 직접 참여하면서 지금까지의 경험을 이 프로젝트에 그대로 투영해볼 수 있었어요. 평소 음악 교육도 해오다 보니 그 노하우를 현장에서 적용해 볼 수 있었던 점도 좋았습니다.” 정가윤 예술인의 말처럼, 예술인들이 평소 하고 싶었던 일, 할 수 있는 일을 통해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동시에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무척 기쁘고 보람 있는 경험일 것이다.

감사하며, 양보하며, 의지하며, 함께

<롯데월드 드림스테이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롯데월드,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그리고 예술인 등 여러 주체가 함께 만드는 협업 프로젝트다. 예술인의 입장에서는 서로 다른 성격을 지닌 기관의 업무 담당자들과 소통하면서 기존의 예술계에서 익숙한 사고방식이나 언어와는 전혀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현장 기업 담당자들과 소통하며 예술인들의 작업 진행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동시에 기업의 요구사항을 조율하며 프로젝트를 함께 만들어 나갔다.



2022. 12. 10.
가든스테이지 공연



2024. 12. 14.
가든스테이지 공연



2023. 10. 28. 연습



2024. 11. 2.
녹음 부스



예술인들끼리의 협업 또한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각자의 예술관이 확고하기 때문이다. 보통의 음악 작업은 작곡, 녹음, 유통 등 과정별로 역할이 분리되어 있지만, 드림스테이지는 모든 과정을 긴밀하게 협업해야 하는 구조다. 음악을 하는 사람으로서 협업의 필요성과 과정을 이해하고 있지만, 때로는 작은 디테일 하나로 의견이 갈리고, 계속해서 연습을 반복하거나 아예 방향을 바꾸는 경우도 있다. 협업은 본래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각자의 세부 분야가 다르기에 오히려 서로에게 의지하고, 믿고, 다름을 인정하며 팀으로서의 시너지를 만들어가고 있다. 예술인들 스스로도 이렇게 인연이 오래 이어질 줄은 몰랐다고 말한다.

이들에게 예술로 사업은 단순히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다. 예술로 사업에 새롭게 지원하는 예술인들에게, 예술로 사업을 단지 재정적 수단으로 여기기보다, 사회 속 예술인의 역할과 예술의 가치를 함께 고민하고, 타인과 협력해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일의 의미에 주목하라고 조언한다.

세상을 위한 예술을 할 때

프로젝트 초기에는 ‘해야 하니까 하는 일’이라는 마음, 어쩌면 떠밀리듯 시작했던 일이었다. 하지만 해를 거듭하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 각자의 예술관에도 변화가 생겼다. “저희는 그냥 하던 일의 연장선일 뿐인데 기업이나 재단 입장에서는 특별한 일처럼 느껴진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가진 능력이 아주 뛰어나지는 않더라도 사회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포트폴리오나 현실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예술을 통해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체감하며, 예술인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고민도 깊어졌다. 예전엔 그저 ‘열심히 해야지’ 하는 생각뿐이었지만, 이제는 자신이 가진 능력이 누군가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겼다.

정가윤 예술인에게도 이 프로젝트는 어느덧 자신이 하고 있는 일 중 가장 보람을 느끼는 작업이 되었다. 처음에는 ‘예술가들과 기업의 협업이 과연 잘될까?’하는 의구심도 있었지만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자신도 모르게 열린 마인드가 되었다. 다양성에 대한 관심이 커져서 앞으로 다른 사회적 프로젝트에도 참여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롯데월드 드림스테이지> 프로젝트는 예술인들이 자신만의 세계를 넘어, ‘사회에서 예술이 뭘 할 수 있는가’를 끊임없이 기획하고 실험할 수 있는 기회다. 또 ‘예술인들이 이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직접적인 답을 준 프로젝트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의미 있는 지점은 아이들과 협회 관계자, 기업과 예술인 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한뜻으로 힘을 모아 만들어낸 아름다운 ‘합창’이라는 점이다.

PART 4

누림터



지역과 함께 누림

지역 기업기관과 함께 지역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함께 누리는 문화예술 활동을 소개합니다.

156

자연 더하기 예술
국립생태원

164

피난민촌의 추억을 예술로 담다
복현1동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172

회사에서 예술하는 동료들
한국동서발전

180

백화난만(百花爛漫) 백년극장을 꿈꾸다
광주극장

충남문화관광재단

자연 더하기 예술

#서천

#설치미술

#대나무숲길

#생태



국립생태원 누리집

국립생태원

만남 사람

기업·기관 한성민 국립생태원 야외식물부 연구원

리더예술인 유희만(미술)

충남 서천군 마서면



국립생태원 야외 공간에 어울리는 조형 작품을 기획, 설치하여 자연 속에서 예술을 환기하는 경험을 관람자들에게 제공.

국립생태원 + 예술로 사업

충남 서천에 있는 국립생태원은 환경부 산하 기관으로, 생태와 생태계에 관한 조사, 연구, 전시, 교육 등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대한민국 최대 생태 전시관'이라는 수식어에 걸맞게 30만여 평의 드넓은 부지에 철새를 관찰할 수 있는 나저어구역, 한반도의 우제류를 사육하는 고대륙구역, 한반도숲이 있는 하다람구역, 습지생태원이 있는 금구리구역 등 한반도의 다양한 생태환경을 만나볼 수 있는 구역들이 있다. 실내 전시관인 에코리움에는 다양한 기획전시와 함께 지구의 기후 조건에 따라 구성된 열대관, 사막관, 지중해관, 온대관, 극지관 등 세계 5대 바이옴이 조성되어 있다. 전시와 교육 또한 국립생태원의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이곳에는 언제나 다양한 연령의 관람객들이 찾는다. 관람객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전시와 교육 콘텐츠를 고민하고 기획하는 일 역시 이곳의 매우 중요한 업무다.

국립생태원이 예술로 사업의 문을 두드린 것은 야외식물부에서 근무하는 한성민 연구원의 의지가 컸다. 그는 국립생태원을 찾는 관람객들이 자연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으면 하는 마음에서 야외 공간에 예술인들의 아이디어를 빌리고자 했다. 예술인들은 2023년, 2024년 각각의 프로젝트로 생태원에 어울리는 예술 조형물을 제안했고 이를 제작해 전시했다. 시각 예술가인 유희만 예술인이 2년 연속 이 프로젝트에 리더예술인으로 참여하여 국립생태원과 마음을 맞추었고, 김은주(미술), 송해석(미술), 이선아(무용) 참여예술인이 함께 했다. 국립생태원은 이들과의 인연을 바탕으로 향후 지역 예술인들과 함께 더 넓은 야외 예술작품 갤러리를 만들겠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1900 157

(왼쪽부터) 한성민, 유희만



너른 들과 작은 숲들, 습지와 연못, 산양과 고라니가 햇살을 쬐며 평화롭게 누워 있는 언덕과 돌산. 아직 겨울인데도 국립생태원의 풍경은 황량하기보다는 요모조모 다채롭다. 30만 평에 달하는 국립생태원은 크게 연구·조사를 담당하는 구역과 관람객을 위한 전시·교육을 담당하는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국립생태원 야외식물부의 한성민 연구원과 유희만 예술인은 예술로 사업이 끝난 지 몇 달 만에 다시 만나 반가운 인사를 나눴다. 2024년 예술로 사업을 통해 제작한 작품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는 국립생태원 내 산책길로 조성된 대나무숲길 입구에 세워져 있었다. 대나무로 엮은 커다란 당나귀 귀 모양의 작품 앞에는 ‘2024년 충남 예술로에 참여한 예술가들의 작품’이라는 설명과 대나무의 특성, 신라시대 경문왕 때의 설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이야기가 함께 소개되어 있다. 작은 바람에도 속삭속삭 흔들리며 소리를 내는 대나무 숲을 배경으로 세워진 이 작품은 자연의 색과 어우러지는 소재와 형태로 은은하게 자리를 지킨다. 예술인들이 함께 모여 작품을 구상하고, 생각을 나누며 자주 찾았던 국립생태원 대나무숲길과 참 잘 어울리는 작품이다.

국립생태원은 예술로 사업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나요?

한성민 국립생태원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생태 복원과 보전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생물다양성을 유지하며 생태계를 가꿔 나갈지를 연구하는 곳입니다. 이와 관련한 생태 전시와 교육 공간도 함께 운영하고 있어요. 저의 업무는 야외 식재지 관리인데요, 양묘장에서 키운 식물을 보존녹지에 심어 관리하게 되는데 워낙 넓으니까 구역을 나누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술로 사업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자연 속 예술 공간을 만들고 싶다는 바람에서 출발했어요. 그래서 예술로 사업에 지원할 때도 구체적인 요구보다는 국립생태원의 공간 자체에 대해 설명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미술 작품 보는 것을 좋아해서 새로운 도시에 가면 꼭 뮤지엄이나 갤러리를 가장 먼저 들러요. 문학도 좋아하고 창의적인 것, 예술적인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 만큼 국립생태원을 찾는 관람객들도 자연과 예술이 어우러진 공간에서 새로운 감각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Q 참여하신 예술인들은 어떤 분들이셨어요?

유희만 세 명의 화가와 한 명의 무용가가 함께 했는데 우연히 모두가 사라져가는 자연을 주제로 작업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저는 '갯벌'을 주제로 추상적인 미술 작업을 하고 있고요. 또 한 분은 '사계'를 주제로 작업해요. 그리고 무용가 분은 모내기나 추수처럼 농사짓는 소리를 채집해서 몸짓 언어로 표현하는 퍼포먼스를 하고요. 모두 고향이 시골이어서 자연에 대한 이해가 깊고, 기후변화로 인해 사라져가는 자연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끼며 관련된 작업을 하고 있던 작가들이에요. 그런 작가들을 국립생태원 프로젝트에서 만났다는 게 참 반갑기도 하고 신기한 일이지.

Q 예술을 사랑하는 담당자와 자연을 사랑하는 예술인들이 만났네요!

유희만 그렇죠. 이렇게 만나기가 쉽지 않죠. 저는 계속 국립생태원을 원해서 이곳으로 오게 되었어요. 예술인 입장에서는 예술로 사업의 기업·기관 담당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담당자의 성향에 따라 사업의 성과와 결과물이 정말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한성민 저도 이 프로젝트의 담당자가 되어 예술인들을 만난 건 운명이라고 생각해요. 우연이 반복되면 그게 바로 운명이라고 하잖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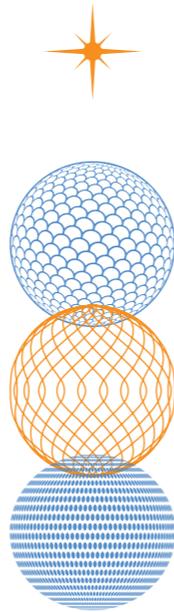
Q 프로젝트 과정은 순조로웠나요?

한성민 처음 만나 진행하는 과정이 순조롭지는 않았어요. 소통 과정에 오해가 생겨 첫 두 달을 그냥 흘려보내다시피 했죠. 예술인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을 고려해야 했고, 물론 예산 문제도 있었지만 공공기관이다 보니 보고 체계가 있고, 조직이 있고, 또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와야 한다는 딜레마도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는 공간이라는 개념을 풀어내는 데에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었달까요. 결국, 공간 계획과 별개로 하나의 결과물로 조형물을 제작하게 되었고, 그게 바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작품이 되었습니다.

유희만 사실 보편적이면서도 창의적이라는 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작가들 입장에서는 공공기관과 협업할 기회가 거의 없다 보니 막상 기관을 만나게 되면, '좀 보편적이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선입견을 갖고 접근하게 되는 것 같아요.

Q 예술인들의 협업 과정은 어땠어요?

유희만 무용가가 어떻게 함께 했을까 궁금해하는 분도 많았는데요, 미술작가들만 모여 작업할 때와는 다른 또 다른 즐거움이 있었어요. 보통 미술작가들은 작업실 안에서 혼자 작업하는 경우가 많고, 시각 예술의 테두리 안에서 개념을 만들다



나에게 예술로는 나로부터의 탈출이다. - 유희만



나에게 예술로는 나를(우리 기관을) 새롭게 비추는 거울이다. - 한성민



보면 생각의 방향이 비슷해지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타 분야의 예술가들과 협업하면서 아이디어를 나누고 교류하며 서로의 영역을 넘나들고, 예술이라는 더 넓은 틀 안에서 시야가 확장되었던 것 같아요. 작가들이 모여서 회의할 때는 엉뚱하게 느껴졌던 아이디어들도, 토론을 거치면서 점차 하나로 모이고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방향이 좁혀지더라고요.

2023년, 2024년 2년 연속 참여하셨는데, 해를 거듭하며 발전된 점이 있었나요?

유희만 연속 참여하면서 아무래도 국립생태원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높아졌죠. 작가들 간의 팀워크도 점점 더 좋아졌던 것 같고요. 두 해의 주관 부서가 달랐고, 담당자의 스타일도 달랐어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방식도 조금씩 다르고 작업 결과물도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2023년에는 방향성이 비교적 명확했던 반면, 2024년에는 가이드라인을 두지 않고 좀 더 열린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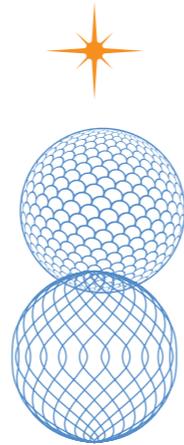
2025년에도 새로운 프로젝트를 계획하신다고 들었어요.

한성민 네, 국립생태원에서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작품을 설치한 나무숲길을 따라, 2025년에도 좀 더 규모 있는 야외 전시를 계획하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참여해주신 예술인들이 모두 자연을 주제로 작업하시는 분들이라 저희 국립생태원의 이미지와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전시도 작가님들께 부탁드릴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물론 예산에 맞춰야 하긴 하지만, 야외 공간에 어울리는 디지털 프린팅 전시 같은 방식도 함께 논의해보려 해요. 이걸 작년부터 이어온 이야기이기도 한데, 나중에는 충남 지역의 젊은 작가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열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에도 우리 예술인들께 많은 도움을 받게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술로 사업에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이 있나요?

한성민 저는 프로젝트 초반에 예술인과 기업이 서로 친해지고 알아갈 수 있는 워크숍이나 교류 행사가 있으면 좋겠어요. 중간 소통을 위한 체계나 채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단체 대화방이 있긴 하지만,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계기가 없다 보니 서로 어색하기도 하고, 중간 과정을 실질적으로 공유하긴 어려운 구조예요. 담당자 입장에서는 월별 활동보고서 외에도 중간중간 작업 경과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채널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유희만 저도 공감해요. 6개월이라는 시간은 프로젝트를 진행하기엔 다소



짧은 것 같아요. 기관의 니즈를 더 세심하게 살피고, 함께하는 예술인들과 마음을 맞추기 위해서도 시간이 조금 더 여유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술로 사업의 매력을 말씀해 주세요.

한성민 예술로 사업은 기업 입장에서 보면, 스스로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는 거울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내부에서는 자기 스스로를 왜곡 없이 제대로 바라볼 기회가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예술로 사업을 하면서 어느 순간 기업의 현실적인 모습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게 되더라고요. 담당자로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국립생태원의 장점은 무궁무진한 잠재력, 그리고 누구에게나 자랑할 수 있는 전시 공간과 연구 콘텐츠 같은 것들이겠죠. 반면에, 단점은 공공기관이다 보니 뭔가를 활발하게 시도하거나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점이에요. 단순한 용역 사업이었다면 갑을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의뢰하면 끝이겠지만, 예술로 사업은 평등한 관계에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같은 질문으로부터 시작하게 돼요.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 기관의 진짜 모습을 더 정확히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유희만 작가들은 보통 작업실 안에서 자기 생각에 매몰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외부와 소통할 때는 자신의 작업을 소개하고 개념적으로 설득할 순간이 있죠. 예술로 사업은 작가들에게 그런 연습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일종의 시험대인 것 같아요. 기업에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작품을 설득하는 그 모든 과정이 작가로서 사회와 직접 부딪히는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작가들에게는 스스로를 성찰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국립생태원과 예술인이 함께한 작업들



리더예술인 유희만(미술)
참여예술인 박재윤(미술), 김혜린(미술), 유현민(사진), 김은주(미술)

리더예술인 유희만(미술)
참여예술인 김은주(미술), 송해석(미술), 이선아(무용)

대구문화예술진흥원

피난민촌의 추억을 예술로 담다

#대구

#피난민촌

#아카이빙

#예술체험



2023년 예술로 사업 우수사례 인터뷰

북현1동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만남 사람

기업·기관 정보경 북현1동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팀장

참여예술인 권영세(문학), 이승희(미술)

대구광역시 북구 북현1동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피난민촌을 기억하는 기록 영상물, 다큐멘터리, 전시 등 다양한 아카이빙과 해당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예술체험 활동 진행.

북현1동 + 예술로 사업

대구시 북현1동 72번지 일대는 일명 '피난민촌'으로 불리던 지역이다. 1955년, 상습 수해 지역이던 칠성시장 인근 신천강변 일대에 큰 수해가 발생했고, 집을 잃은 피난민(避難民: 재해를 피해 옮겨간 주민)들을 위해 시에서 마련한 대체 거주지가 바로 경북대학교 뒤편 언덕의 공터, 지금의 북현1동 72번지였다.

동병상련의 처지에 놓인 피난민들은 하나둘 이곳에 터를 잡고, 서로에게 따뜻한 이웃사촌이 되어갔다. 마을이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부터였다. 좁은 골목 안에 100여 채의 소규모 주택이 밀집한 이곳 북현1동 72번지는 알록달록 색칠한 담벼락, 녹슨 대문, 제각기 다른 모양의 우편함, 손수 가꾼 채소 상자, 영성하게 덧댄 창문 등 곳곳에 70여 년의 시간이 켜켜이 쌓여 있는 동네였다.

다른 지역들이 고층 아파트 단지로 도시화되는 동안, 이곳만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모습을 간직해왔다. 그러나 2019년 이후, 북현동 피난민촌에도 변화가 찾아왔다. 도시재생 및 주거여건 개선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한 것이다. 곧 역사 속으로 사라질 북현1동의 이야기와 그 흔적을 기록하고 다음 세대에 전하기 위해 주민들과 현장지원센터는 힘을 모아 '피난민촌 아카이빙 사업'을 진행했다. 이 프로젝트를 위해 예술로 사업에도 참여하게 되었고,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북현타작(他作)>이라는 큰 주제 아래 주민 참여형 예술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를 바탕으로 기록 영상물 <라스트랜드>와 다큐멘터리 <북현72>도 제작되었다.

2023년 프로젝트에는 박준우(음악) 리더예술인과 권영세(문학), 박재현(영화), 이승희(미술), 장재연(연예) 참여예술인이 함께 했다. 한편 북현1동 72번지는 현재 철거를 모두 마치고 그 자리에 영구임대주택과 청년형 북주택을 짓는 공사가 진행 중이다.



(왼쪽부터) 이승희, 정보경, 권영세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복현1동 72번지의 피난민촌 주민들과 함께 예술로 사업을 진행했던 권영세 예술인, 이승희 예술인, 그리고 당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의 정보경 팀장이 <예술로 사업 10주년 사례집> 인터뷰를 위해 오랜만에 다시 만났다.

2023년 예술로 사업이 종료된 이후, 정보경 팀장은 대구 북구 도시재생기초센터로 자리를 옮겨 복현1동에 대한 후속 지원을 이어가고 있으며, 아동문학가 권영세 작가와 설치 및 영상 작가 이승희 예술인은 각자의 자리에서 꾸준히 창작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한때 다정한 골목 풍경이 이어지던 복현1동 72번지 일대는 이제 높다란 가림막이 둘러쳐진 공사장으로 바뀌었고, 과거의 흔적은 자취를 감췄다. 하지만 현장 인근 도시재생센터 건물 안에 조성된 <복현 RE:CORD전> 전시관은 2023년 진행했던 전시를 그대로 옮겨와, 골목 풍경 사진과 옛집의 마당을 재현한 설치 작품 등으로 예술로 활동의 흔적을 담고 있다.

세 사람은 마치 자신들이 살았던 동네를 다시 찾은 듯 애정 어린 시선으로 전시 공간을 천천히 둘러보며, 복현1동 72번지에서 주민들과 함께했던 소중한 추억을 하나하나 되새겼다.



복현1동 예술로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정보경 저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는 낙후된 도심의 주민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물리적인 재생을 함께 도모하는 역할을 맡고 있어요. 보통은 주민 교육이나 제도 중심의 프로그램이 위주인데, 보다 색다른 접근은 없을까 고민하던 중 예술로 사업을 알게 되었어요. 오래된 이야기가 켜켜이 쌓인 복현1동 피난민촌에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면서 오래된 마을의 기억을 아카이빙하는 '주민 아카이빙 기록화사업'의 일환으로 2021년 처음 예술로 사업을 신청하게 됐어요. 이후 3년간 프로젝트를 지속하면서 복현1동 주민들과의 만남, 그리고 이주와 철거의 과정까지도 함께했어요. <복현타작(他作)>이라는 이름 아래 진행된 이 프로젝트는 주민들이 자신들의 삶을 그림, 글, 음악, 영상 등 다양한 예술 장르로 표현해보는 참여형 예술체험 활동이에요. 그 결과물로 책도 만들고, 영상과 전시 콘텐츠도 제작하게 되었지요.

이 과정에서 예술가들과 함께한 다양한 작업을 통해 주민들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그 안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커뮤니티의 결속도 살아났고, 사라져가는 복현1동 72번지의 풍경을 함께 기억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복현1동에서 예술로 사업은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닌, 마을의 정체성과 공동체를 되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한, 매우 의미 있는 사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술인이 본 복현1동 '피난민촌'의 첫인상은 어땠는지 궁금해요.

권영세 제가 아마 나이순으로 치면 대구 지역 예술인 중에서 제일 연장자였고, 전국에서도 꽤 뒤쪽에 서 있을 예술인이 아닐까 싶어요. 사실 저는 처음부터 복현1동을 희망했던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막상 복현1동에 발을 디디고 동네 풍경을 마주한 순간 제 마음이 활짝 열렸어요. 좁은 골목이 다닥다닥 붙어 너무나 정겨운 마을인 거예요. 제가 1970년대까지 살던 동네하고 꼭 닮아 있어서, 마치 그 시절로 되돌아간 듯한 느낌마저 들었어요. 복(福)자와 고개 현(峴)자를 쓰는 이 소담한 동네를 매일같이 걸으며 어린시절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골목 풍경 속에서 제가 상상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떠올랐고, 그 이야기들은 '담벼락에 낙서 한 줄' '옥상 텃밭에는' 같은 연작 동시로, 또 국악동요의 노랫말로 태어났습니다. '골목지킴이 자귀나무'를 비롯해 골목을 주제로 한 연작시도 썼어요. 이 글들을 정리해 언젠가 한 권의 책으로 묶어낼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예술로 사업 참여를 반가워하셨나요?

정보경 동네 주민들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매 기수마다 10명에서 20명 정도의 주민들이 꾸준히 참여하셨는데, 특히 피난민촌 어르신들께서는 평소 접해보

지 못했던 예술활동을 무척 소중하게 기다려주셨습니다. 처음엔 “나는 잘 못해요”라며 부끄러워하시고 수줍어하시기도 했지만, 막상 수업이 시작되면 누구보다 집중도 잘하시고, 열심히 참여하셨어요. 자신의 작품이 책과 전시를 통해 새롭게 태어나는 과정을 보시면서는, “이게 진짜 내 거야?” 하며 신기해하시고, 또 참 기뻐하셨죠.

주민들과의 추억도 많으실 것 같아요.

이승희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먼저 마을에 대한 리서치를 했는데, 마을 역사에 관한 자료는 많았지만, 정작 이곳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없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사람의 이야기를 프로젝트에 담고 싶었어요. 처음에는 주민들과 다소 서먹했지만, 함께 텃밭을 가꾸고 골목길에 마을 벽화를 그리며 서서히 가까워졌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보며 초상화를 그려보는 프로그램도 했어요. 시간은 걸렸지만 점점 더 친해지고 마음을 열면서 주민들 한 분 한 분의 살아온 이야기, 속 깊은 이야기들도 들을 수 있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이순자 어머니의 이야기가 특히 마음에 남아요. 어머니는 생전에 함께 살던 자신의 어머니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어머니를 먼저 떠나보내고 지금은 혼자 이 마을에 남게 된 이야기도 들려주셨지요.

<라스트랜드> <복현72> 같은 영상물에도 주민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정보경 네, 복현1동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예요. 주민들의 인터뷰는 물론, 철거되기 전 마을의 생생한 모습들과 이주 이후 텅 빈 집들, 조용해진 골목 풍경까지 고스란히 담아냈어요.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의 도움으로 주민 상영회를 열었는데, 각자 다른 곳으로 뿔뿔이 흩어져 이주하신 주민들이 오랜만에 다시 만나는 반가운 자리이기도 했죠. 그날, 주민분들이 추억에 젖어 우시거나 동네를 그리워하는 모습이 참 인상 깊었어요. 제 손을 꼭 잡고 “우리 삶을 기억하게 해줘서 고맙다”고 말씀하시던 주민의 얼굴이 선명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이 프로젝트의 의미가 모두 담겨있었던 것 같아요.

<복현RE:CORD전> 이야기도 좀 들려주세요.

이승희 <복현RE:CORD전>은 저희가 3년 동안 활동한 내용을 갈무리해 총망라한 전시였어요. 피난민촌 안의 한 집을 전시공간으로 만들어 새롭게 꾸며보았죠. 특징적인 골목 풍경을 되살린 공간도 있고, 한곳에는 다같이 모여 앉아 함께 밥을 먹었던 이 동네만의 추억을 되살릴 수 있도록 동그란 테이블도 제작했습니다. 권영세 예술인의 동시를 비롯해 피난민촌의 다양한 기억이 담긴 ‘기억서랍’의 방, <복현72>



이순자 - 나에게 예술로는 예술활동을 알려주는 지평이다.



윤영은 - 나에게 예술로는 시선의 확장이다. - 이승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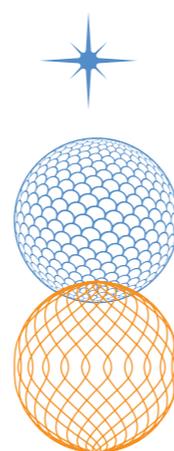
이승희 - 나에게 예술로는 여러 빛깔, 하지만 정해진 경계는 없는 내 마음의 풍경이다.

다큐멘터리를 상영하고 시나리오를 다시 읽어볼 수 있는 '이야기 병풍' 공간도 관람객에게 많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주민들이 실제로 사용하던 옛날 가구나 재봉틀 같은 생활 오브제들도 함께 전시되었고, <복현타작(他作)> 책자와 로컬 크리에이터,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가 함께 제작한 굿즈들을 소개·판매하는 공간도 마련했습니다. 이 전시는 현재 복현어울림센터로 공간을 옮겨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도시재생 사업으로 새롭게 들어설 건물 안에 조성될 새로운 전시 공간의 초석이 될 예정입니다.

예술로 사업 이후에도 개인적으로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신다고 들었어요.

이승희 피난민촌에는 이곳의 상징과도 같은 나무들이 있었어요. 감나무, 개가죽나무, 자귀나무 같은 오래된 나무들인데요. 철거가 90% 이상 진행되었을 즈음, 우연히 다시 찾은 마을에서 제일 높은 언덕 위 감나무 한 그루, 개가죽나무 한 그루가 남아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제 이 마을에 살아 있는 건 저 나무뿐이구나' 생각하다가, 그 나무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구상하게 되었어요. 감나무를 옮겨 심고서 새로운 곳에서 다시 뿌리내리고 커가는 모습을 촬영도 하고 나무 주인이었던 분의 인터뷰도 하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그분은 현재 요양원에 계시고 감나무도 역시 옮긴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고사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나무를 갖고 있다가 새로운 작업을 통해 벤치나 다른 오브제로 만들어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곳에 있던 나무가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이 마을 어딘가에 놓이게 되겠죠.

권영세 저도 이 일에 영감을 받아 복현1동 72번지의 나무와 관련된 장편 이야기를 하나 구상하고 있어요. 이 작은 동네의 두 그루 나무가 교감을 하고, 나무와 사람도 교감을 하지요. 세월의 흐름과 함께 동네가 바뀌고 사람도 나이들고 나무도 변화를 맞죠. 그리고 모두가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이곳 복현1동 피난민촌에서 함께 한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술로 사업에 바라는 점을 말씀해 주세요.

권영세 저는 작가라 혼자 작업하는 시간이 많은데, 예술로 사업을 하며 연극, 영상, 국악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인과 협업을 할 수 있어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예술가로서 이런 기회를 만나는 건 쉽지 않죠. 하지만 함께 모여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기에 6개월이라는 시간은 너무 짧아요. 프로젝트 기간이 좀 더 여유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참여 인원도 더 확대되면 좋겠고요.

이승희 예술로 사업의 취지는 예술인들이 활동 영역 면에서 더 넓은 가능성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조금은 결과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 아쉬운 면도 있어요. 저는 운 좋게도 복현1동 프로젝트가 저의 개인 작업과도 결이 맞아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결과보다는 과정을 더 중요하게 바라보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보경 기관의 입장에서는 예술로 사업의 문턱이 조금 더 낮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기간 또한 6개월이 길 수도 있지만, 저희 복현1동처럼 오랜 호흡이 필요한 경우엔 오히려 짧기도 했어요. 프로젝트에 따라 기간 조정이 더 다양해도 좋을 것 같아요. 예술로 사업이 예술인의 활동 영역을 확장하는 계기가 된 것처럼, 저희 기관 입장에서도 다양한 분야의 예술인과 협업하면서 새롭고 창조적인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의미 있는 기회였습니다.

복현1동도시재생센터와 예술인이 함께한 작업들

<p>2021</p> <p>- 복현1동 기록 작업 및 벽화 제작 - 다큐멘터리 <안녕, 나의 72번지></p> <p>리더예술인 전일환(음악, 연극, 영화) 참여예술인 권영세(문학), 김인철(문학), 이승희(미술), 현숙경(미술, 영화, 연예)</p>	<p>2022</p> <p>피난민촌 연작 동시 <골목></p> <p>리더예술인 현숙경(미술, 영화, 연예) 참여예술인 권영세(문학), 박재현(영화), 오영지(국악), 이승희(미술)</p>	<p>2023</p> <p>복현1동의 핵심 건축물 '복잡소'에서 <복현RE:CORD展> 개최</p> <p>리더예술인 박준우(음악) 참여예술인 권영세(문학), 박재현(영화), 이승희(미술), 장재영(연예)</p>
--	---	--

울산문화관광재단

회사에서 예술하는 동료들

#울산

#조직문화

#예술활동

#지역활성화



한국동서발전 누리집

한국동서발전



예술 콘서트
in 한국동서발전



공동 미술창작 프로젝트
<연결된 우리>

만남 사람

기업·기관 김병조 차장, 강민아 과장
한국동서발전 홍보팀

리더예술인 이진희(국악)

참여예술인 백다래(미술, 사진)



울산 중구 성안동

울산지역 예술인들과 함께 본사와 사업소에서 공연·전시를 추진해 직원들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즐기는 행복한 예술활동 진행.

한국동서발전 + 예술로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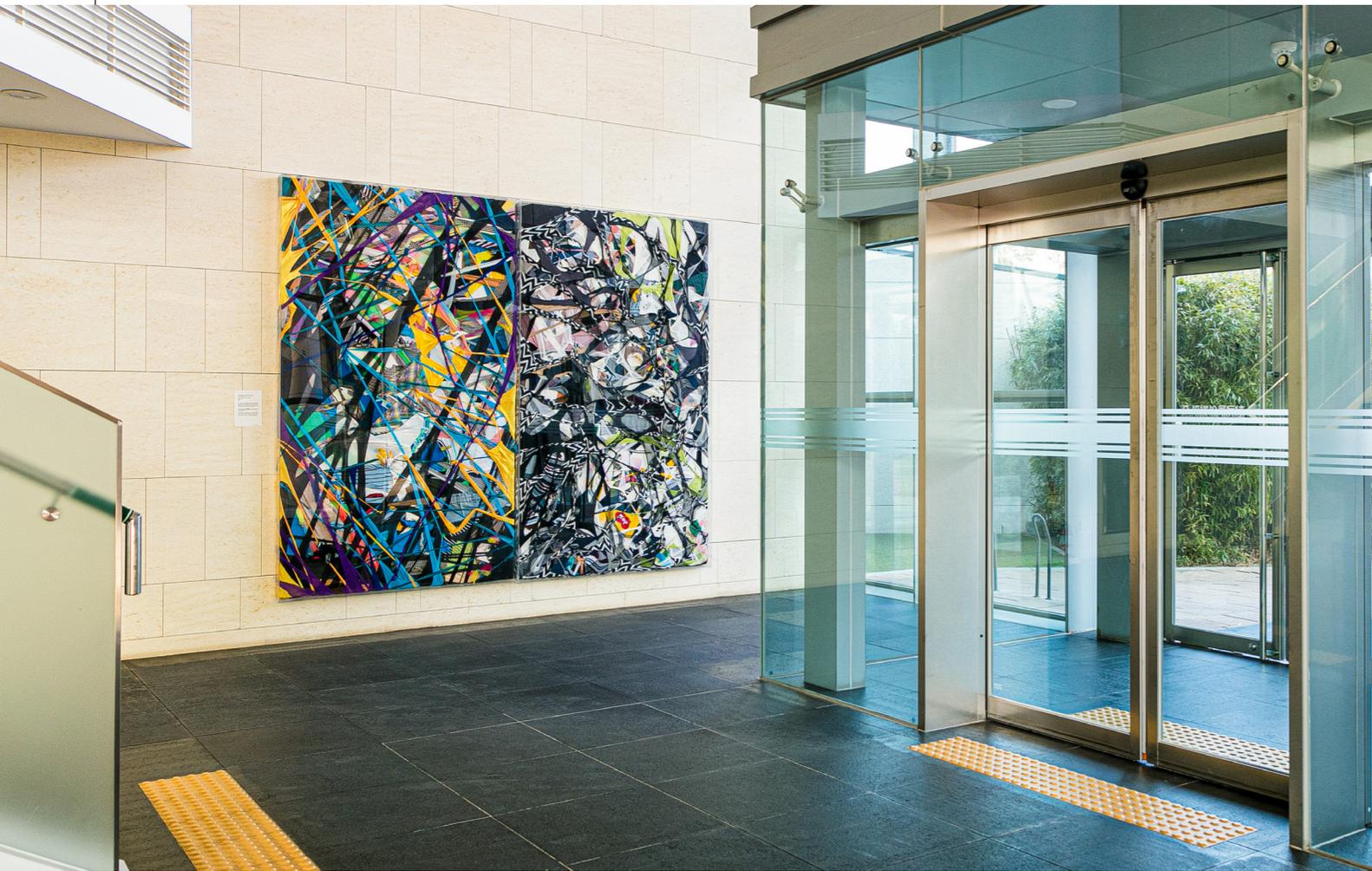
한국동서발전의 모태는 한국전력공사이며, 그 뿌리는 1915년 설립된 경성전기회사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1년 전력사업 구조개편을 통해 한국전력공사의 발전, 송전, 배전 중 발전 부문이 분사되며 한국동서발전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되었다. 본사는 울산에 있으며 당진, 울산, 동해, 일산 등 전국 여러 지역에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동서발전은 10여 년 전 공공기관 이전 시기에 울산으로 본사를 이전한 이후, 지역사회 친화적인 다양한 활동을 펼쳐 왔다. 예술 역시 그 일환으로, 예술이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중요한 매개로 주목받고 있다. 2022년에는 뮤지션 디에이드, 동렬이 참여하는 공연을 경주풍력발전소와 당진발전본부에서 열었다. 공연은 영상으로도 제작되어 한국동서발전 공식 유튜브에 게시되며 큰 호응을 얻었다. 또 2019년부터는 청각장애인 도예가를 양성하고, 도자기 전시회, 도자기 체험교육을 통해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며 지역 장애 예술인의 사회참여와 경제적 자립을 도왔다.

한국동서발전 예술로 사업은 2023년 울산문화관광재단의 매칭으로 울산 지역 예술인들과 함께 진행되었다. 이진희(국악) 리더예술인을 비롯해 김소형(미술), 박정영(연극), 백다래(미술, 사진), 이선화(음악) 참여예술인이 함께 했다. 예술인들은 6개월간 한국동서발전 임직원들과 함께 소통과 연결을 주제로 다양한 예술활동을 펼쳤다. 점심시간과 퇴근 후 시간을 활용해 퍼포먼스, 연극, 합창을 융합한 공연 연습을 하는 한편 버려진 헌 옷과 천을 꿰매고 엮어 공동 창작 미술작품을 제작하기도 했다. 그 결과, '예술로 하나된 동서, 우리 정서발전'을 주제로 <소통하고 있슈>라는 창작 공연을 성황리에 펼치고 공동창작 미술작품 <불이(不二), 연결된 우리>는 로비 공간에 전시하였다. 또한 공연과 전시 영상은 유튜브 콘텐츠로도 제작되어, 울산 지역 예술인들을 널리 알리고 예술로 프로젝트의 가치를 지역사회에 확산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병조, 강민아, 백다래, 이진희

한국동서발전 본사, 사내의 카페테리아에서 예술인들과 담당자들을 함께 만났다. 홍보팀의 김병조 차장, 강민아 과장, 그리고 이진희 리더예술인과 백다래 참여예술인이 예술로 사례집 인터뷰를 위해 시간을 내었다. 다른 예술인들도 함께했으면 좋았겠지만, 바쁜 일정으로 함께 하지 못한 아쉬움을 나눴다. 예술로 사업이 끝난 지 1년이 훌쩍 지났지만, 마치 어제 만난 사람들처럼 시끌벅적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이들은 예술인들의 공연이나 전시 소식을 있을 때면 단톡방에 정보를 공유하고, 직접 관람하며 응원하는 사이가 되었다. 강민아 과장은 예술인들의 공연이 있을 때 회사 임직원들에게 직접 홍보하고, 자신도 빠짐없이 참석한다. 실제로 그는 취미로 그림을 꾸준히 그려왔고, 최근에는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 중인 '부캐' 예술인이기도 하다. 울산 안에서 기업의 임직원들과 예술인들이 예술로 사업을 통해 만나 예술을 경험하고 마음을 나누며 상생하는 '친구'가 되었다.



❶ 한국동서발전의 예술로 사업,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나요?

김병조 한국동서발전은 서울에서 울산으로 본사를 이전한 지 10년쯤 되었습니다. 지역과 더 가까워지고,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던 중에 예술로 사업을 알게 되었고, 좋은 기회라 생각해 신청하게 됐습니다. 다행히 선정되어 훌륭한 지역 예술인들을 만나게 되었죠. 처음엔 다섯 명의 예술인들이 각기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셔서, 어떤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할지 조금 막막하기도 했어요. 당시 사장님께서 기업문화에 깊은 관심이 있으셨고, 직원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사내 예술행사 형태로 진행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어요. 마침 공연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연극과 미술 분야 예술인도 함께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다양한 장르를 융합한 프로젝트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❷ 예술인들은 어떻게 한국동서발전과 함께하게 되셨나요?

이진희 저는 국악을 전공했고 울산에 있는 예술단에서 공연과 기획을 함께 맡고 있어요. 타악을 좋아해서 다양한 나라의 민속악기 연주를 하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예술로 사업에서 지원했던 두 곳 중 한국동서발전과 인연이 닿았어요.

강민아 이진희 예술인이 저희 사내 타악 퍼포먼스 공연을 총괄해 주셨는데, 직원들에게 직접 교육도 해주시고 연주까지 하셨어요. 정말 멋졌습니다.

백다래 시각 예술가로 영상 기반 퍼포먼스 작업을 주로 해요. 사실 시각 예술은 다른 예술 분야에 비해 좀 더 개인적인 성향이 강한 분야잖아요. 그런데 예술로 사업에 참여하면서 협업 중심의 작업을 하는 작가님들을 보면서 많이 배웠고 시야가 확장되는 경험을 했어요. 한국동서발전은 참여한 기업 중에서 가장 '회사다움이 느껴지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흥미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강민아 당시 총 다섯 팀이 있었는데 리더예술인은 매칭을 하고, 참여예술인은 제비뽑기를 하는 방식으로 선정되었어요. 기업이 먼저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각 예술인이 1지망을 적어 매칭하는 방식이었는데 저희는 정말 강하게 이진희 리더님을 원했어요. 국악 전공자인 것도 신선했고, 뭔가 신나는 프로젝트가 가능할 것 같은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❸ 바라던 대로 신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셨나요?

강민아 크게는 무대 공연과 공동 미술작품 창작으로 나뉘어 진행됐어요. 타악 공연에 참여하신 분들은 새로운 악기를 배운다는 것 자체를 굉장히 즐거워하셨습니다. 직장 내 갈등이나 커뮤니케이션을 주제로 한 연극도 준비했는데요, 평생 연극은 처음이라는 직원들이 대본 작업부터 자기 배역까지 아주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셨어요. 저희 임직원 자녀 두 명이 아역배우로 출연했는데, 이후 연기에 흥미를 느껴 다른

무대에도 올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뿌듯했어요.

이진희 점심시간이나 퇴근 후 시간을 내서 직원들과 함께 연습을 했어요. 처음 악기를 접하면 다루기가 쉽지 않은데도 다들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셨어요.

백다래 저는 헌 옷 등을 이어 만든 대형 공동 미술작품 작업을 맡았어요. 여러 직원들이 함께 참여해 주셨는데, 각 파트마다 표현이 조금씩 달라져서 작업 과정 자체가 아주 재미있었어요. 손재주가 있는 분, 조금 서툰 분 다 함께 자기 속도에 맞게 작업하면서 결국엔 하나의 완성된 작품을 만들어냈죠.

강민아 미술 작가로 참여한 김소형 예술인은 아버님이 저희 회사에서 정년퇴직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한국동서발전에 조금 더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참여 하셨는데, 작업 중에 아버님의 예전 부하 직원을 우연히 만나 반가워하는 에피소드도 있었어요.

김병조 공연하는 날, 아버님도 직접 오셔서 공연을 보셨죠.

Q 정말 즐겁고 성공적인 공연이었을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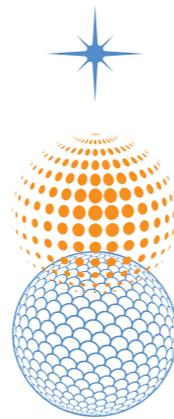
강민아 맞아요. 사실 관객이 많이 안 오면 어쩌나 걱정이 컸는데, 예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깜짝 놀랐어요. 공연에 참여한 직원들뿐 아니라 같은 부서 동료들이 단체로 응원하러 오고, 재미있는 문구가 적힌 응원 플래카드를 준비해오고 학창 시절 축제처럼 유쾌하고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김병조 공연 장소도 일반적인 폐쇄된 강당이 아니라, 열린 로비 라운지 공간에서 진행했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자연스럽게 다가와 관람할 수 있었고,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관객들도 공연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열어둔 점이 좋았던 것 같아요.

백다래 라이브 공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메소드 연기를 펼쳤어요. 관객들도 뜨겁게 응원해주는 분위기 자체가 좋았고, 무대와 객석이 하나된 것 같았어요. 미술 전시와는 또 다른 생생한 에너지가 공연 현장에 가득했죠. 참여자 모두가 하나가 되어 만들어낸 진짜 '우리'의 공연이었어요.

Q 기업과 예술인의 끈끈한 소통이 느껴집니다.

이진희 예술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소통'이라고 생각해요. 이번 한국동서발전 프로젝트는 특히 담당자들과의 소통이 정말 탁월했어요. 중간중간 팀 회식도 마련해주시고, 덕분에 팀워크를 다질 수 있는 기회도 자연스럽게 생겼죠. 사실 기업이나 기관마다 조직문화가 다르고, 커뮤니케이션 방식이나 사용하는 앱도 다 다르기 때문에 예술인 입장에서 적응이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게다가 저희도 각자 연극, 음악, 미술 등 분야가 다르다 보니 각자의 작업 스타일을 조화롭게 녹이는 것



김병조 - 11이러면 극중 예술인 배역 맡기



나에게 예술로는 좋은 길(路)이다. - 강민아



나에게 예술로는 우연히 내린 하늘의 신기하고 예쁜 구름이다. - 이진희



나에게 예술로는 금용치른다. - 백다래



이 늘 과제거든요. 그런 점에서 한국동서발전 담당자들은 이런 협업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배려해 주셔서 서로 어떤 이야기도 편하게 주고받을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졌고, 그게 결과적으로 작업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백다래 그리고 정말 좋았던 점 중 하나는, 기업에서 영상 아카이빙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셨다는 거예요. 종종 아카이빙까지 예술인이 직접 챙겨야 할 때도 있는데,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저희가 창작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가끔 그때 영상이 생각나면 다시 찾아보곤 해요. 그 시간이 영상으로 남아 있다는 것 자체가 참 큰 의미로 다가와요.

이진희 맞아요. 저희가 예술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 협업이 있었기에 프로젝트도 더 즐겁고 완성도 있게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내 분위기가 굉장히 에너지틱하다는 인상이 들어요.

김병조 저희 회사는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신입사원부터 정년을 앞둔 직원까지 연령대가 정말 다양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세대 간 소통, 기업 내 커뮤니케이션 활성화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죠. 좋은 예술이 결국 작품과 관객 간의 소통에서 비롯되듯 회사도 마찬가지로 임직원 간의 활발한 소통이 곧 좋은 조직문화로 이어진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아침마다 다 같이 노래를 부르는 '출근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어색해하던 분들도 지금은 자발적으로 즐기고 계세요.

강민아 예술로 사업 이후에는 사내 문화가 더 다채롭고 재미있게 변화한 것 같아요. 자발적인 동호회도 늘었고 회사 창립기념일 행사에 직원 합창 공연은 이제 빠지지 않는 기본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기타 동아리', '음악 동아리', '한번 해보는 합창단' 같은 모임도 자연스럽게 생겨났고요. 예술로 사업을 통해 예술이 조직 안에 들어오면서 사람들 사이의 분위기와 에너지에도 긍정적인 파장이 퍼진 것 같아요.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울산 지역과 다양한 협업을 이어간다면서요?

강민아 한국동서발전은 전국에 발전소를 운영하는 공기업이자 울산에 본사를 둔 지역 대표 기업으로서 울산시민들과 함께하며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께 '한국동서발전은 울산에 기여하는 기업'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지역사회와의 접점을 지속적으로 넓혀가고 있어요.

김병조 울산대학교 미술대학, 애니원고등학교 등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 청년 예술인들과도 연계하고 있고, 장애 아동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지원하는 사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어요. 이처럼 예술을 매개로 한 사회공헌 활동이 지역과 기업 모두에게 긍정적인 연결고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술로 사업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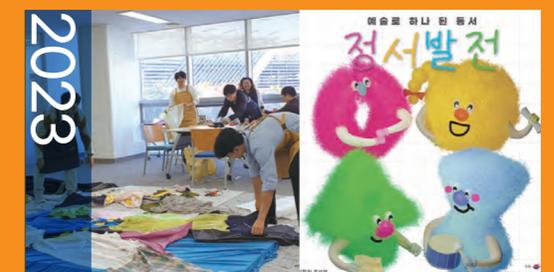
김병조 기간이 조금 더 길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술인들에 대한 보상도 늘어나기 바라구요.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기 위한 예술인의 시간과 노력에 대해 더 많이 인정하는 우리 사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강민아 저는 앞으로 더 다양한 분야의 예술인들이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기업마다 바라는 지점은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예술 분야가 다채로울수록 실험의 여지가 넓어지고 그만큼 예상 밖의 재미있는 시너지도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백다래 저는 처음 참여하는 예술인과 경험 있는 예술인이 자연스럽게 섞일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프로젝트를 유연하게 이끌어가기 위해서도 그래요. 초심자의 신선한 감각과 경험자의 노하우가 어우러질 때 훨씬 풍성한 작업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진희 팀 매칭 전에 예술인과 기업이 서로를 더 잘 알아갈 수 있는 준비 기간이 있었으면 해요. 팀이 한번 결정되면 바꾸기 어렵잖아요. 사전 워크숍이나 1박 2일 연수 프로그램 같은 걸 통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신중하게 매칭되면 좋겠어요. 그렇게 된다면 협업도 훨씬 수월할 것 같습니다.

한국동서발전과 예술인이 함께한 작업들



- 리더예술인** 이진희(국악)
- 참여예술인** 김소형(미술), 박정영(연극), 백다래(미술, 사진), 이선화(음악)

광주문화재단

백화난만(百花爛漫) 백년극장을 꿈꾸다

#광주

#영화

#2035년-100주년

#공간활성화

광주극장

광주극장 + 예술로 사업

광주극장은 그 자체로 우리나라 영화와 공연의 역사다. 1935년, 일제강점기 시절 조선인 자본으로 설립된 호남 지역 최초의 극장인 광주극장은 총장로 한복판에 자리 잡았다. 광주의 중심지, 서울로 치면 종로와 비견되는 총장로 1, 2, 3가에는 일본인 상점이, 4, 5가에는 조선인 상점이 몰려 있었다고 한다. 총장로 5가에 자리한 광주극장은 영화 상영뿐 아니라 교육과 집회의 장소이기도 했고 강연과 발표회장, 권투 경기장, 창극과 국극을 위한 공연장이기도 했다. 최승회를 비롯한 당대의 예술가들이 무대에 섰던 극장. 지금도 나무 천장과 계단이 남아 있는 내부에는 옛 영사기와 영화 간판이 전시되어 있고, 오래된 매표소 창문 사이로 그 시절의 흔적이 조용히 말을 건넨다. 1968년 화재로 재건된 현재의 건물은 겉모습은 달라졌지만, 내부는 여전히 근대 극장의 정취를 간직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광주극장은 국내 유일의 단관극장이라는 이름을 지켜가며 예술 영화, 독립영화, 제3세계 영화들을 상영하는 소중한 문화공간으로 살아 숨 쉬고 있다. 광주극장과 예술로 사업은 2020년, 2021년, 2023년에 진행되었다. 그간 임인자(미술, 연극, 연예) 리더예술인과 광주극장을 사랑하는 강선철(사진), 김대선(문학, 사진), 박정수(문학), 송태영(문학), 윤연우(미술), 이선미(미술) 참여예술인이 함께 극장 공간의 가치와 기억을 예술로 기록하고 공유하는 과정에 참여했다.

이들은 공간 개선, 아카이빙, 관객과의 소통을 주요 축으로 삼아, 광주극장의 간판실 역사를 담은 책 『간판실』을 집필해 출간했고, 광주동구청의 고향사랑기부금과 연계해 <광주극장 100년, 나의 영화 100편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피아노 프리즘’, ‘절해고도’, ‘드림 팰리스’ 등을 중심으로 시네테크를 열어 영화에 대한 담론을 관객 속으로 깊숙이 끌어들이기도 하고, 극장 굿즈를 판매하는 ‘만축상점’의 신규 굿즈를 제작해 관객과의 새로운 접점을 만들었다. 예술인은 프로그램 운영을 넘어, 광주극장이 지닌 역사와 문화의 층위, 그리고 예술의 지속성을 오늘의 관객에게 전한다. 오늘도 그 자리에 한 편의 영화처럼 서 있는 광주극장은 한 시대의 기억처럼 우리 곁에 머물러 있다.

만남 사람

기업·기관 김형수 광주극장 전무
리더예술인 임인자(미술, 연극, 연예)

광주광역시 동구 총장동

90여 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국내 유일 단관극장의 명맥을 지켜가는 아트시네마 광주극장의 문화적·예술적 가치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활동 진행.



(왼쪽부터) 김형수, 임인자

초행이었지만, 광주극장은 금세 알아볼 수 있었다. 고풍스러운 건물과 옛날식 극장 간판, 수동식 매표소가 있는 입구까지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아온 오랜 것들'이 만들어내는 극장의 아우라를 따라 실내로 들어섰다. 넓은 로비와 높은 천장, 2층으로 이어지는 라운지형 계단 아래에는 예술로 사업을 통해 조성된 '만축상점'이 자리하고 있다. 오래된 영사기와 포스터, 영화음악 음반 표지들이 극장 곳곳에 전시되어 있고 2층 라운지에는 휴게공간도 마련되어 있다. 두꺼운 문을 열고 검은 막을 젖혀 살짝 들여다본 극장 안에는 영화가 상영 중이었다.

1, 2층으로 구성된 객석, 거대한 스크린과 음향이 주는 압도감. 오랜 추억이 켜켜이 쌓인 진짜 '극장'의 감각이었다. 1997년부터 이곳에서 일한 김형수 전무는 자신이 근무한 30여 년은 '광주극장의 역사에 비하면 미미한 시간'이라고, 담담하게 웃는다. 그동안 예술로 사업을 함께 진행한 임인자 예술인은 광주극장 바로 옆, '영화가 흐르는 골목' 한켠에서 독립서점 '소년의서'를 운영 중이다. 예술로 사업 이후에도 이웃으로 자주 마주치는 반가운 인연이다. 질곡의 근현대사와 함께 오랜 세월 광주시민들의 기억 속에 자리해온 광주극장. 스토브의 따뜻한 온기에 기대 앉아, 예술로 사업 당시 진행했던 간판 그림 이야기 책 『간판실』을 펼쳐놓고 인터뷰가 시작되었다.



『간판실』은 예술로 사업을 통해 제작한 책이죠?

임인자 예술로 사업 참여 당시 콘텐츠들을 만들고, 판형과 표지를 고심하느라 출판은 2024년에 마무리하게 된 책이에요. 3년여에 걸쳐 만든 책이라 그런지 10주년 사례집에 소개하게 되어 기쁩니다. 책에는 광주극장의 간판화가 박태규 작가의 간판실 이야기와, 시민들과 함께한 간판그림 워크숍, 참여 시민들의 인터뷰, 그리고 광주극장 간판그림 아카이브 자료까지 다양하게 담겨 있습니다. 광주극장은 매년 10월 개관기념일에 맞춰 광주극장영화제를 여는데요, 개막식에서 시민들과 함께 그린 간판그림을 올리는 것이 중요한 행사예요. 박태규 작가의 미술 세계뿐만 아니라, 시민 참여를 통해 드러나는 광주의 문화를 잘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국내에 이런 대규모 단관극장이 남아 있다는 것이 놀라워요.

김형수 한국 영화산업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대기업들이 제작, 배급, 상영까지 모두 아우르게 됐고, 극장들도 대부분 멀티플렉스 중심으로 재편되었죠. 관객 입장에서는 영화 관람 환경이 훨씬 편리해진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전통적인 지역 극장들, 말하자면 지역민의 삶과 함께 호흡하던 토착 극장들이 거의 다 사라져버렸어요. 극장이란 단순히 영화를 보는 곳이 아니라, 그 지역의 역사와 사람들의 추억이 쌓이는 공간이기도 하거든요. 어릴 적 부모 손잡고 갔던 극장을 성인이 되어 다시 찾고, 나중엔 자녀와 함께 가는... 그런 식으로 세대를 이어가며 공유되던 기억의 장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다 사라졌다는 사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흔히 '국내 유일의 단관극장'이라는 수식어로 광주극장을 소개하지만, 사실 그 말이 꼭 자랑스럽지만 한 건 아니에요.. 때로는 마지막 하나만 남겨졌다는 외로움이 느껴지기도 하죠.

예술인들은 어떻게 광주극장과 협업하게 되셨나요?

임인자 광주극장을 좋아하는 예술가들이 모여 기획사업에 참여했어요. 지방 도시의 상업적인 극장에서 독립영화, 예술영화를 상영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당시 OTT의 공습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극장이 더 어려울 때였죠. 텅 빈 극장에 관객이 2~3명일 때도 있는데, 이대로라면 어느 날 광주극장이 정말 문을 닫지 않을까 하는 위기감이 있었어요.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 길을 깨끗하게 지켜가는 모습을 보면서 광주극장을 위해 뭔가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는 공감과 의지가 모여, 예술인들이 의기투합했어요.



예술로 사업을 통해 진행한 프로젝트도 소개해 주세요.

임인자 처음 저희가 관심을 가졌던 건 공간 개선과 광주극장을 알릴 수 있는 굿즈 제작이었어요. 1층 로비 공간에 <만축상점>이라는 이름의 굿즈 스텝을 꾸렸죠. 광주극장의 오래된 아카이브를 활용해 엽서, 포스터, 에코백 등 다양한 기념품을 제작했어요. '만축상점'이란 이름은 상영한 영화가 만원 사례를 이룰 때, 광주극장에서 직원들에게 보너스를 담아주던 '만축(滿祝)봉투'에서 따왔어요. 그 시절의 기쁨과 정서를 담아 이름을 지었죠.

김형수 중요한 프로젝트로 <나의 영화 100편, 광주극장 100년>도 있어요. 광주극장이 100년을 지키는 극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붙인 이름이고요. 관객들이 영화를 볼 때마다 스탬프를 찍을 수 있는 스탬프 카드를 만들어, 100편을 완주한 관객을 인터뷰하고 그분이 직접 고른 영화 한 편을 기념으로 상영하는 이벤트예요. 극장에서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광주극장을 찾아주는 단골 관객들에 대한 궁금증도 있었고, 영화를 매개로 서로를 알아보자는 마음이 컸어요. 인터뷰 전문은 광주극장 온라인 플랫폼에도 공개했는데, 많은 공감을 받았어요. 생각보다 반응이 뜨거워서 매년 5~6명 정도 진행하며 지금까지 16명째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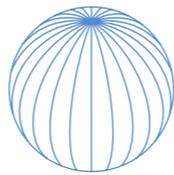
임인자 또, 세 번째 해에는 시네토크 행사도 열었어요. '피아노 프리즘', '절해고도', '드림 팰리스' 같은 작품을 주제로, 영화를 보고 난 후의 생각과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었죠. 관객의 참여가 더해지면서 광주극장이 지역 문화공간으로서 더욱 활기 있게 살아 숨 쉬는 느낌이 들었어요.

관객들의 호응이 좋았겠어요?

김형수 그럼요. 극장은 365일 거의 쉬지 않고 열려 있는 공간이잖아요. 프로젝트의 결과물이나 성과들이 사업이 끝났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객들과 만나고 교감한다는 점이 정말 큰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 만축상점만 봐도 그렇습니다. 굿즈를 구경하던 관객들이 너무 예쁘다며 반가워하고, 극장의 오래된 사인물이나 옛 영화간판 같은 것들을 찾아보는 분들도 있어요. 또, 광주극장 공간 구석구석을 애정 담긴 눈으로 보는 관객, 건물을 배경으로 행복한 모습으로 사진 찍고 돌아가는 여행자들을 보며 예술로 사업에서 더해진 가치들이 계속해서 확산된다는 것을 느낍니다. 요즘엔 영화를 보러 오시는 분들뿐 아니라, 그냥 '광주극장을 보기 위해'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아졌어요. 그 자체로 이 공간이 가지고 있는 힘, 그리고 예술이 더해진 후의 확장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1940년 10월 10일 (낯설게, 새롭게, 다시 한번, 잠깐 멈추고) 바라보기도 - 김형수



1945년 10월 10일 (낯설게, 새롭게, 다시 한번, 잠깐 멈추고) 바라보기도 - 임인자



❶ 다른 도시에서 찾아오는 관객도 많은가요?

김형수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 이후에 광주를 찾는 여행객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 같아요. '5.18 광장'과도 가까이 위치해 있고, 광주극장 옆에 '영화가 흐르는 골목'이 조성되어 있어서 20~30대 젊은이들이 예전보다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독립서점 '소년의서'에도 함께 들러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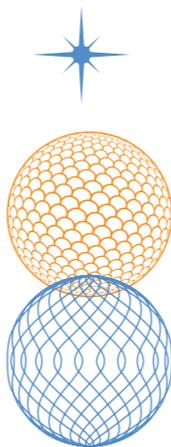
❷ 예술인, 관객 모두의 광주극장에 대한 애정이 느껴져요.

임인자 정말 사심을 갖고 예술로 사업을 했던 것 같아요. 오랜 시간 자료도 열심히 찾고, 같이 고민하면서 극장에 대한 애정과 사유가 깊어졌어요. 저희 예술인들 모두 장르는 달라도, 광주극장을 중심에 둔 고민과 애정이라는 공통분모는 늘 함께 있었던 것 같아요.

김형수 맞는 말씀입니다. 예술로 사업에 참여하신 예술인들을 보면서 저도 느꼈던 게, 이해도보다 애정도가 더 높았다는 점이에요. 광주극장은 솔직히 말하면 오래된 일상의 공간이에요. 그런데 그런 공간을 예술인들이 정말 사랑해주셨고, 그 진심이 작업을 통해 그대로 드러났어요. 이 공간을 사랑해주신 예술인들의 활약 덕분에 누군가에게는 더 특별한 공간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관객들도 이제는 예전처럼 단순히 영화를 보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저마다의 방식으로 광주극장을 이용하고 계세요. 누군가는 굿즈를 둘러보고, 또 누군가는 2층 라운지에 앉아 책을 읽고, 혹은 그냥 건물 자체를 감상하러 오는 분들도 있어요. 관객층도 다양해졌고, 그만큼 공간 안에도 새로운 활력과 에너지가 생겨나고 있어요.

❸ 단관극장 운영이 쉽지 않으실 텐데, 광주극장을 지켜가는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김형수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저희 같은 규모의 옛 극장들은 연간 관객 20만~30만 명 정도는 되어야 유지가 가능한데, 지금 광주극장의 연간 관객 수는 2만~3만 명 수준입니다. 이건 일시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앞으로도 크게 나아지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이기도 해요. 사실 마음속으로는 이제 접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적도 여러 번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그래도 모든 걸 재화의 가치로만 판단할 수는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광주극장은 광주라는 도시 안에서 90년 넘게 쌓여온 시간의 가치를 품은 공간이에요. 그 가치는 누군가와 함께 나눌수록 더 커지는 것 아닐까요? 관객이 1만이든 2만이든, 그 절대적인 관객들과 함께 힘을 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계속 이 공간을 지켜가는 이유이기도 해요. 지내다 보면 느껴요. 공간이 주는 힘도 있지만, 그 공간을 중심으로 모여드는 사람들이 전해주는 에너지가 정말 크다는 걸요



❹ 끝으로, 예술로 사업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김형수 예술은 우리 삶 곳곳에 스며들어 조용히 어루만져주는 따뜻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세계적으로 한국 문화가 주목받는 시대지만, 정작 주변을 둘러보면 예술을 업으로 하는 친구들의 삶은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일부 분야에 쏠림 현상도 여전하고요. 그래서 저는 예술로 사업이 예술인들 각각이 자기만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말 그대로 '백화난만(百花爛漫)'의 장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모든 예술이 저마다의 자리에서 자유롭게 다양하게 피어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그런 든든한 힘이 되어주었으면 합니다.

임인자 문화 예술 분야에서 하나의 정책 사업이 10년 넘게 이어졌다는 것 자체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예술가가 기업·기관과 협업하면서 예술의 다양한 가능성을 실험하고 시도해본다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경험입니다. 앞으로도 예술로 사업은 멈추지 않고 꾸준히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이 예술가에게도, 공간에도, 또 시민들에게도 분명히 새로운 감각과 가능성을 열어줄 테니까요.

광주극장과 예술인이 함께한 작업들



광주극장 내 만족상점 조성

리더예술인 임인자(미술, 연극, 연예)
참여예술인 김대선(문학, 사진), 윤연우(미술), 이선미(미술)



만족상점 추가상품 기획, <나의 영화 100편 광주극장 100년> 기념품 개발

리더예술인 임인자(미술, 연극, 연예)
참여예술인 강선철(사진), 김대선(문학, 사진), 송태영(문학), 이선미(미술)



광주극장 간판실 아카이브 북 『간판실』 출판

리더예술인 임인자(미술, 연극, 연예)
참여예술인 박정수(문학), 윤연우(미술), 이선미(미술)

시대 변화에 대응하는 플랫폼으로서의 예술인파견지원사업

류성호 멘토
독립기획자

다시 변화를 마주한 예술

세상이 빠르게 변한다는 말은 더 이상 새롭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생각이 달라졌다. 인간의 역할과 사회 구조를 근본부터 다시 고민하게 하는 AI 기술의 등장 이후 급속한 진화가 체감되고 있으며,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정치·경제·문화 전반에서 예상하기 어려웠던 변화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예술 또한 예외는 아니다. 한때 특정한 장소에 머물던 예술은 이제 네트워크를 타고 끊임없이 확산되고 있으며, 창작의 도구 역시 물질에서 비물질로, 손에서 코드로 확장되며 경계를 무의미하게 하고 있다. 이미 예술은 정해진 형식이나 공간에 안주하지 않으며, 예술가들은 다채롭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스스로의 위치를 새롭게 정의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돌이켜보면 새로운 기술의 등장은 언제나 예술의 경계를 흔들어 놓았고, 그 과정에서 예술은 스스로의 역할을 다시 정의해야 했다. 사진이 발명되었을 때 회화는 기록이 아닌 표현의 영역으로 나아갔고, 영화가 등장하면서 문학은 내러티브의 구조를 새롭게 탐색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마주한 변화는 단순한 도구나 매체의 확장이 아니라 예술이 창작되고 소비되는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있다. 인공지능이 이미지를 생성하고, 음악을 작곡하며, 소설을 쓰는 시대가 되었고, 예술은 더 이상 인간만의 고유한 창작 행위라고 단언하기 어려워졌다. 메타버스 속 퍼포먼스는 전통적인 무대 공연과 어떻게

다른가? 인공지능이 만든 음악과 그림은 과연 예술이라 부를 수 있을까? 이전에도 기술이 예술에 미친 영향은 컸지만 지금은 그 속도가 훨씬 빨라졌고 변화의 방향 역시 예측하기 어려워졌다.

따라서 질문은 ‘이것이 예술인가’에서 멈추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예술이 어떻게 자신의 존재 방식을 새롭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예술은 언제나 시대의 변화를 반영해 왔지만 지금의 변화는 그 반영의 방식조차 다시 고민하게 만든다. 단순한 형식의 전환을 넘어 예술이 새로운 환경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를 탐색해야 할 시점이다. 변화에 대한 예술의 태도와 반응이 결국 지속 가능성을 결정할 것이며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예술은 무엇을 담아 어디로 가야 하는가? 예술은 시대가 던지는 질문과 마주하며 동시대의 변화 속에서 의미를 재구성한다. 기후 변화, 젠더, 노동, 정치적 불안정과 같은 문제들은 예술과 무관한 영역이 아니며, 그 속에 내재된 구조를 해체하고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역할을 요청받고 있다. 변화는 예술에 도전과 가능성의 영역을 동시에 열어준다. 변화하는 세계에서 예술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기계적 반응과 활용이 아니라 변화 자체를 새로운 방식으로 소유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시대 변화를 반영한 예술인파견지원사업의 의미와 가능성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사회 구조의 빠른 변화 속에서 예술의 역할과 기능에 관한 논의가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예술은 점차 미적 표현이나 관례적 문화 콘텐츠 생산을 넘어 다양한 분야와 결합하며 다채로운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예술인파견지원사업은 예술과 타 분야의 협업을 실험하는 중요한 현장 사례로 주목 받아 왔으나 지금까지의 협업 방식과 활동은 주로 교육, 디자인, 공간 연출, 콘텐츠 제작 등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예술인의 창의적 사고보다는 특정 기술적 숙련도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실용적인 영역에서 작동 중인 AI 기술의 발전이 예술인의 창작 영역은 물론 경제 활동에 활용되는 기능적 역할의 상당 부분을 대체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예술과 기업·기관 간 협력 방식의 전환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기술의 발전과 AI의 등장으로 이미지, 음악, 영상, 텍스트 생산을 넘어서 기획, 큐레이션, 그리고 전체 경험 설계에 이르기까지 창의적 생산 활동의 비용 감소, 시간 단축, 영역 확장이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예술인의 전통적 역할은 근본적

으로 재검토 될 필요가 있다. AI는 효율성과 범용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작업을 자동화할 수 있으나 인간이 보유한 섬세한 감성, 미묘한 정서, 그리고 복합적인 사회적 맥락을 반영하는 창의적 구상력은 기계적 알고리즘으로 쉽게 대체될 수 없는 고유의 가치를 지닌다. 이러한 관점에서 예술은 문화적 의미를 재구성하고 사회적 담론을 창출하며, 기술과 인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새로운 가치 체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술은 전통적 장르의 한계를 넘어 다양한 분야와 융합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사회적 혁신을 촉진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기술 발전으로 인한 위축이 아니라 역할과 가치의 확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인의 전문성과 맞춤형 역량 강화는 단순히 창작 기술의 숙련도를 높이는 것을 넘어 AI와의 공존 시대에 맞춰 인간 고유의 감성과 사회적 맥락을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전통적인 예술 창작 역량 외에도 문제 해결 능력, 커뮤니케이션 기술, 디지털 리터러시와 함께 인간의 미묘한 감성 및 정서를 포착하여 이를 사회적 경험으로 전환하는 경험 설계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AI 에이전트가 기획과 큐레이션까지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시대에 예술인의 역할은 콘텐츠 제작을 넘어 '의미를 조직하는 자'와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는 자'로 재정의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곧 기술이 미처 포착하지 못하는 우연성과 인간적 정서를 세밀하게 재구성할 수 있는 창의적 중개자로서의 역량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게 됨을 시사한다. 따라서 예술인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창작 기술에 더해 사회 전반의 문화적, 정서적 흐름을 이해하고 이를 예술적 경험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심층적 감성 분석과 경험 디자인 기법을 교육 프로그램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개별 예술인의 직능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기업 및 기관의 요구와 보다 정교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AI 시대에 대응하는 창의적 재구성 및 기획 능력을 배양하는 맞춤형 워크숍과 사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역량 강화는 예술인의 기능적 역할을 보완하는 것을 넘어 기술 발전과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사회와 경제 전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기업과 기관의 예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일도 중요하다. 예술 협업이 관례적 범주의 사업에 머무르지 않고 조직의 생산성과 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이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기업·기관 담당자들에게 예술적 사고와 창의적 접근 방식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전문 교육과 컨설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예술 협업이 실제로 조직 운영과 비즈니스 혁신에 기여한 사례들을 연구하고, 이를 기업·기관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데이터와 사례를 기반으로 한 교육 프로그

램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협업이 보다 유의미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기업·기관이 본격적인 사업에 참여하기 전에 사전 예비 프로그램을 통해 예술과 협업하는 과정과 효과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예술인과 협력하기 전에 기업·기관이 필요로 하는 창의적 지향이 무엇인지 구체화하고 협업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협업 모델 역시 단기 프로젝트를 구체적 계기로 활용해 중장기적 파트너십을 단계적으로 구축해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예술 협업이 단기적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기업과 기관 내부의 문화적 변화와 혁신의 주요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위에 언급한 변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사업 운영 방식 또한 달라져야 한다. 현재의 구조에서는 개별 프로젝트가 완료된 후 실질적인 성과 평가나 피드백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프로젝트 종료 후에도 협업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협업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를 개발하고, 참여자들이 지속적으로 협업 결과를 공유하고 논의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성공적인 협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후속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기업·기관이 예술인을 정식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적 지원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부처 및 문화체육관광부 내 다른 지원 사업과의 연계를 검토하는 것도 강력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예술과 산업의 접점을 확대하려면 예술인파견지원사업이 보다 넓은 정책적 맥락 안에서 논의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통해 예술 협업이 일회성 지원이나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구조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제별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기업 및 기관과 예술인의 특성이 효과적인 접점을 형성해 전문적인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협업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정기적인 네트워킹 행사를 비롯해 주제별 연구 실험, 공동 프로젝트 기획, 프로젝트 맞춤형 모델 개발 등을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 협업이 더욱 유기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장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창조적 공명: 예술의 자율성과 혁신이 만나는 지점

예술인파견지원사업은 기능적 매칭이나 정형화된 협업 모델을 넘어 다양한 유형의 예술인과 여러 형태의 기업·기관이 서로의 고유한 지향과 필요를 반영하

며 자유롭게 협력할 수 있도록 설계된 다층적 플랫폼이다. 이 사업은 각 참여 주체가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자세로 임할 때 극대화되는 창의적 시너지를 목표로 하며, 예술과 산업 전반에 걸쳐 새로운 담론과 혁신을 촉진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구체적 희망을 담고 있다.

예술인의 적극적 복지와 사회 혁신을 실현하기 위한 실험적 사업으로 설계된 예술인파견지원사업은 한국의 예술 창작 환경과 예술인의 사회·경제활동 경험 및 역량, 기업 구조, 그리고 사회적 맥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시작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예견된 어려움을 기꺼이 감내하며 사업이 지속되는 동안 이상과 현실의 간극을 확인하며 보완이 필요한 지점과 유지해야 할 방향성, 그리고 추가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경험으로 축적해 왔다. 이러한 경험의 축적은 지금까지 운영된 사업 기간과 투입된 자원, 그리고 참여한 예술인과 기업·기관들이 만들어낸 중요한 성과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성과를 현재 한국 사회의 변화와 요구에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 이 부분은 앞으로 예술인파견지원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대한민국은 1960년대 이후 급격한 산업화를 통해 경제 성장을 이루었으며, 이후 정보통신기술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함으로써 디지털 혁명의 흐름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 왔다. 이 과정에서 국가적 차원의 과감한 투자와 정책적 지원이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그 결과로 한국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AI 및 자동화 기술의 발전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한국은 이러한 변화에 대한 대응 속도와 전략적 준비 면에서 주요 선진국과의 격차를 좁히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술 혁신이 단순히 산업적 효율성을 높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동반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은 기존의 경제·산업 모델을 재편하고 창의적 실험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신기술 도입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없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과 인간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과정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예술과 기술, 경제, 사회적 변화가 상호작용하는 새로운 협력 방식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며, 산업적 응용을 넘어 문화적·사회적 차원의 혁신으로까지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운영 중인 예술인파견지원사업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서 보다 유연한 방식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으며, 기존 협업 활동 외에 기술 변화에서 예술이 수행해야 하는 역할을 실험하는 비중이 점진적으로 확대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다시 말해 AI가 창작과 기획의 일부 기능을 대체하는 시대에 기술이 미처 담아내지 못하는 감성적 경험과 사회적 맥락을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예술이 수행할 수 있도록 예술과 기술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협업 모델을 탐색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

예술인파견지원사업은 기존 창작지원사업이나 일자리 창출 사업과는 차이가 있다. 이 사업은 예술과 사회, 경제 구조가 밀접하게 연결되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예술의 실용적 실험적 과정이다. 이론적 설계만으로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변수가 발생하는 현장에서 예술인은 창의적 사고와 대응력을 발휘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게 된다. 따라서 이 사업의 성과는 정량적 지표로 평가하기 어려우며, 실험과 도전, 그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과 학습, 성장하는 인력과 조직, 그리고 확장 가능한 아이디어와 협업 모델의 형성까지 포괄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대부분의 사업이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결과를 요구하는 현실에서 예술인파견지원사업 역시 기존 성과평가 체계의 틀 안에서 압박을 받고 있다. 그러나 예술과 사회가 만나는 지점에서 이루어지는 실험은 불확실성과 예측 불가능성을 수용할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 실험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과 통찰은 지속 가능한 혁신의 토대를 형성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실험 없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기는 어렵다. 궁극적으로 예술, 경제, 기술이 상호 보완하며 공존하는 새로운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유연하고 개방적인 운영 전략이 필수적이다. 예술의 자율성과 도전이 맞물리는 창조적 공명은 예술인의 적극적 복지를 넘어 시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변화의 방향을 감각하고 그 변화를 주도적으로 만들어가는 소중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한국 사회는 종종 편의성과 수월성을 개인적 이해관계와 연결시키며 대의적 가치를 지닌 사업을 협소한 틀 안에 가두는 오류를 범해왔다. 중요한 기회가 지나간 후에야 그 의미를 깨닫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지금 우리가 마주한 이 사업의 본질적 가치를 다시금 성찰해야 한다.

예술인파견지원사업은 단순한 예술 지원을 넘어 예술과 사회가 상호 작용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실험적 장이다. 이 사업이 지닌 의미를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틀에 안주하지 않고 보다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방식으로 생명력을 확장해 나가야 한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선택하는 방향이 예술과 사회가 만나는 방식과 그 접점에서 파생될 미래를 결정한다.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은 언제나 현재의 몫이며, 그 가능성이 충분히 발현될 수 있도록 사업의 가치와 역할을 깊이 고민할 때이다.

예술인파견지원- 예술로 사업 10주년 사례집 <터>

발행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기획·운영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가치확산팀
팀장 이숙현
운영 이유경, 김채연, 이지은, 전보영, 한주희

주소 (04637)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 416 서울스퀘어 3층
대표전화 02-3668-0200
홈페이지 www.kawf.kr

진행 디자인메카
글 서정학, 홍소영
사진 김효술, 이영근
디자인 디자인메카

979-11-92242-56-9 (15600)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25

이 사례집에 수록된 모든 글과 사진의 저작권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각 저작
권자에게 있습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동의 없이 무단 복제, 전재, 변형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